



가르칠 맛 나는 학교!
선생님이 행복해집니다

강한 · 감동 · 혁신 · 소통 · 전문 교총

새내기 선생님을 위한 교직생활 안내서

새내기 선생님!

새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좋은 교육 좋은 선생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선생님!

선생님이 하시는 일이
가장 소중합니다.

“
새내기 선생님을
환영합니다!
”

고맙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소명감을 가지고
선생님이 되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비록 명예나 부귀, 권세는 없을 지라도 선생님이야말로
아이들의 ‘희망’이 되어주고 그 아이들을 통해서
세상을 좀 더 낮게 만들어 주시는
가장 ‘소중한 일’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참 힘든 길입니다.

알아주지도, 심지어 예전만큼 존경,
아니 존중해 주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겐 우리들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한국교총이 선생님께서 교직생활을 하는 동안
동료 선생님과 함께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때로는 휘몰아치는 폭풍우를 막아내는 방파제가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하시는 일이 가장 소중합니다!!!
항상 그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하윤수

한국교총은 교권(敎權) 보호를 위한
튼튼한 등대가 되겠습니다.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끝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새내기 선생님을 위한 교직생활안내

Contents

- 04 선생님의 월급은?
- 05 선생님의 휴직 · 휴가
- 09 학교폭력 사안처리
- 12 학교안전공제
- 15 업무포털이란?
- 16 꼭 알아야 할 김영란 法
- 24 신임교사도 이전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25 건강한 교직생활
- 26 담임
- 27 담임교사 심계명
- 28 교직생활의 희로애락
- 30 자주 발생하는 교권침해와 대응방법
- 34 성희롱 · 성추행 문제 유형 및 대처 · 처리 절차
- 38 종례신문 활용하기 말이 필요 없는 효과 만점 '종례'



선생님의 월급은?

보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 정당한 노력의 대가이자 자신의 업무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인정을 받고 있는가 하는 척도가 됩니다.



+ 나의 호봉은 얼마일까요?

4년제 교대 졸업 초등 여선생님: 9호봉, 초임 3,400만원 정도(추정치)

신규 발령 시 각종 **경력증명서**를 꼭 챙겨가세요! 만약 시기를 놓쳤다면이라도 언제든지 근무하는 학교의 교감 선생님과 상의하여 호봉 재확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급 적용)

| 인정 경력 예시 |

군복무 경력, 기간제교원, 시간강사, 타 대학 졸업 학위, 임용 발령 전 석·박사 학위 취득, 일반 회사 근무 경력, 비서, 사설학원 강사 경력 등

| 3월 봉급 |

구분	내역	금액(원)	지급시기	비고
본봉	9호봉 추정치	1,951,657	매월	군 복무 경력 +2호봉, 교직이수 경우 -1호봉
교직 수당	교원 전체	250,000		
담임 수당	담임	130,000		학급 담임교사 (전담 제외)
정액 급식비	식비 지원	130,000		
교원 연구비	유·초등 근무 교원	70,000		경력 5년 미만 70,000원/5년 이상 55,000원
합계		2,531,657		

| 그 외 수당 |

구분	내역	금액(원)	지급시기	비고
명절휴가비	명절 휴가	1,170,994 (9호봉 추정치)	설, 추석	각 호봉(본봉)의 60%
시간 외 근무 수당	정액분 10시간	106,170 (9호봉 추정치)	매월	3월 발령교원은 4월부터 지급(15일 이상 근무)
정근 수당	경력 1년 이상	본봉의 5%~50%	1월/7월	경력 1년 미만 0%/2년 미만 5%/ 3년미만 10% / .../10년이상 50%
정근수당 가산금	경력 5년 이상 지급	5만~10만원	매월	경력에 따라 차등지급
가족 수당		배우자 4만	매월	부양가족별 지급(배우자 4만/첫째 자녀 2만/둘째 6만/셋째 이상 10만)

•시간외 근무수당 초과분이란? 일명 초과근무수당. 행사나 학생 지도, 기타 업무로 인하여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근무를 할 경우 받는 수당 (일 최대 4시간 인정)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 공포·시행(1.19) 이전 작성분으로 9호봉 금액은 추정치입니다.

선생님의 휴직 · 휴가



+ 해외여행을 떠나고 싶다면?

• 겪게 되는 문제

2018년 3월 초임 발령을 받은 A교사는 여름 방학 동안 20 일간의 유럽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해외여행에 관해서는 교감, 교장선생님께 미리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중요하지 않은 개인적인 내용인 것 같아서 따로 말씀드리지 않고 조심히 잘 다녀왔습니다. 무사히 여행을 잘 다녀왔고 개학 한지 일주일이지났지만 아직까지 아무 일도 없습니다. 별 문제 없겠지요?

• 그렇다면

A교사는 공무원 복무규정 위반으로 추후 감사에서 적발될 시 징계 조치 대상입니다.

교원이 방학 중 사용하는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는 휴가가 아닙니다.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 또는 근무 장소 이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를 할 수 있도록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방학 기간 중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출근하지 아니하고 지역도서관과 같은 학교가 아닌 장소에서 자율연수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로 결재 받은 후 해외여행, 개인 취미 활동 등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아하~!

교사는 방학 중이라 하더라도 공무원의 국외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연가와 같은 개인적인 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휴가가 아닌 자율연수로 인정받고자 할 때는 전문적 성장을 위한 연수임을 입증할 수 있는 연수계획서와 연수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기본적인 복무는 지침에 의해서 처리되지만, 지침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학교장이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학교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필수적인 사항 외에는 확실히 통일된 지침을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복무에 관한 사항은 항상 교감선생님과 먼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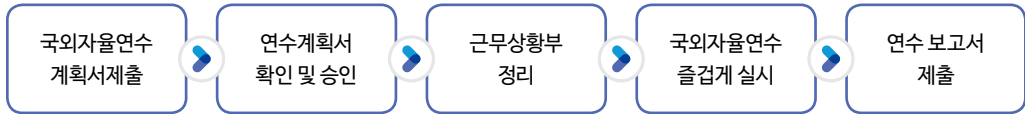
• 이렇게 해보세요

- 국외자율연수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 1)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 24조의2(교원의 휴가에 관한 특례)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교원의 휴가에 관하여는 교육부 장관이 학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 2)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
교원의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 또는 근무장소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할 수 있다.(2011.9.30.).

- 국외 자율연수의 절차를 알려주세요!

절차를 간단히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국외자율연수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계획서는 학교마다 정해진 양식이 있지만 보통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제출자, 희망국, 기간, 목적, 활동계획, 기대성과, 현지연락처 및 연락방법

계획서에 대한 교장,교감(관리자)님의 승인을 받은 후, 나이스(NEIS) 교육공무원법 제 41조에 의한 연수로 근무상황의 승인을 받은 후 외국으로 떠나시면 됩니다. 참 쉽죠?

잠깐!

※연수보고서 제출여부는 지역마다 다릅니다.

※ 연가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단, 연가는 휴업일 중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가능합니다. 근무상황란에는 <휴업일(평일)에는 연가로, 공휴일에는 기타>로 기입합니다.

- 이것만은 유의하세요!

① 돌아오는 날짜는 가능한 넉넉히 잡으세요

- 출근전날 항공사 사정, 기상악화로 귀국길 항공편이 출발지연 · 결항되는 경우 학교에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시차적응에 시간이 걸려요. 수업시간에 너무 졸려 괴롭습니다

② 사전에 관리자에게 말씀을 드리세요

- 티켓, 숙소, 교통편예약을 마쳤는데, 갑자기 관리자께서 허락을 안해준다면? 대략 난감이 아니라 초..난감입니다.

- 무료 해외연수 도전하기!

무료로 해외연수에 다녀올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도 꼭 도전해보세요.

1) 포상형 연수

- 각종 연구대회나 수업공모전에 입상하였을 때 제공되는 포상연수
- 교육부 교육정보화연구대회 1등급, 통일부 통일교육연구대회 입상자연수, 보훈처 나라사랑 수업 공모전 입상자 연수 등

2) 전문성 향상형 해외연수

- 각 영역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연수입니다. 대부분 시 · 도 교육청에서 연수 대상자를 모집하여 추천기관에 명단을 제공하는 형태로 진행되니 공문을 잘 확인하세요!
- 예) 샌프란시스코 특수교육 이해 연수, 선진외국학교 교사교류 지원사업 등

3) 프로젝트형 해외연수

-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해외연수이며 교사가 직접 프로젝트 계획을 세워 연구과제 수행하는 형태의 연수입니다.
- 예) 교육부 국외 현장답사단 (시·도교육청 배정 25팀, 전국공모 30팀)

+ 놓치기 쉬운 휴가 · 휴직 제도

• 겪게 되는 문제

결혼식을 앞두고 학기 중 웨딩 화보 촬영을 하고자 합니다. 주말에는 촬영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도저히 예약을 할 수 없습니다. 학기 중이라도 휴가를 사용하여 웨딩 화보 촬영을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 그렇다면

결혼식 웨딩 화보 촬영은 교사의 개인적인 편의 생활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연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교직원에 대한 복무관리는 학교장의 책임이며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라면 학기 중이라도 연가 사용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 휴가의 종류 |

종류	의미
연가	근무능률을 유지하고 개인 생활의 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휴가
병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부여받는 휴가
공가	공무원이 법령상 의무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에 부여받는 휴가
특별휴가	사회통념 및 관례상 특별한 사유(결혼 출산, 사망 등 경조사)

아하~!

연가는 개인의 편의를 위하여 사용하는 휴가로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방학 중이나 학기말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별한 사유로 학기 중 실시하는 경우에는 휴가로 인한 수업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참, 조퇴, 외출 등의 사용 시간의 합이 8시간이 되는 경우 연가 1일로 계산되니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연가 일수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 이렇게 해보세요

웨딩 화보를 찍으셨다면 이제 결혼식과 신혼여행, 그리고 임신과 출산 그리고 육아의 세계에 입문하시게 됩니다. 단계별로 사용할 수 있는 휴가 제도를 안내해 드립니다.

※ 결혼을 하게 되면 5일간의 특별휴가를 사용하여 신혼여행을 가세요. 또한 배우자가 출산을 하게 되면 남성공무원은 5일간의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어요. 여성공무원은 출산일 전후로 총 90일간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어요.

※ 모성보호시간은 여성공무원만 사용할 수 있지만, 육아시간은 남성공무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2017년 관련법 개정). 1년 동안 매일 1시간 늦게 출근하거나 1시간 일찍 퇴근할 수 있어요. 일찍 퇴근하여 함께 아이를 돌보는 것이 사랑받는 남편의 첫 걸음입니다.

특별휴가의 종류

종류	사유		휴가 기간
경조사 휴가	결혼	본인	5일
		자녀	1일
	출산	배우자	5일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2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입양	본인	20일
출산 휴가	임신 또는 출산		출산 전후 90일
여성보전 휴가	여성교원의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정기검진		매월 1일
육아 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육아할 때		1일 1시간
수업 휴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한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		출석수업기간
재해구호 휴가	재해 또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교원과 그 지역에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교원		5일
불임치료 시술휴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		시술 당일 1일
모성보호 시간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으로서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		1일 2시간

휴직의 종류

직권휴직	청원휴직
질병휴직, 병역휴직, 법정의무수행 생사불명, 노조전임자	유학휴직, 고용휴직, 육아휴직, 입양휴직 연수휴직, 간병휴직, 동반휴직

• 육아 휴직은 만 8세 이하(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교육공무원 모두 사용할 수 있어요. 휴직 기간 동안 경력은 100%인정이 되고, 최초 휴직일로부터 1년 이내 기간 동안 호봉 승급 인정 및 육아휴직수당도 지급됩니다.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 나머지 기간은 월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가 지급됩니다.

학교폭력 사안처리

+ 학교폭력 발생 시 대응 요령

• 겪게 되는 문제

학교 내 · 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 유인, 명예훼손 · 모욕, 공갈, 강요 · 강제적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등을 학교폭력 이라고 합니다. 위에서 제시한 유형은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으로, 신체 · 정신 · 재산상의 피해를 모든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울 행정법원에서는 ‘학교 폭력은 폭행, 명예훼손 · 모욕 등에 한정되지 않고 이와 유사한 행위로 학생의 신체 · 정신 또는 재산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하게 된다면 교사는 어떠한 대응을 하여야 할까요?

• 그렇다면

학교폭력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면 최고의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이는 철저한 학교폭력예방교육을 통해 실현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사안이 발생하게 되었다면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공정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에 사안처리 흐름도를 익혀 놓는 것이 좋겠지요?



조치 결정	자치위원회 심의·의결	• 자치위원회 소집 • 조치 심의·의결 • 분쟁 조정
	학교장 처분	• 조치 결과 서면 통보 • 교육청 보고
조치 수용	조치이행	• 피해학생 보호조치 및 가해학생 선도조치 • 조치결과 학생부 기록 • 가해학생 학부모 특별교육
	사후지도	• 피해학생 적응지도 • 가해학생 선도 및 주변 학생 교육과 재발 방지 노력
조치 불복	• 재심, 행정심판, 행정소	

아하~!

'따르릉~'

휴대폰 너머 들리는 석현이 어머니 목소리가 몹시 격양되었다. 같은 반 친구 재경이가 학기 초부터 지속적으로 돈을 빼앗고 때리는 등 석현이를 괴롭혀 왔기에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하겠다는 이야기였다. 석현이가 친구들에게 돈을 가져다주려고 어머니 지갑에 손을 대다가 알게 된 사실이라고 하였다. 아이들의 담임인 나는 아이들 양쪽의 말을 다 들어보아야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지만 일단은 **석현이 어머니의 마음을 달래 주고** 정확한 상황을 파악한 후에 다시 전화 드리겠다고 하였다.

걱정되는 마음으로 재경이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다. 재경이 어머니는 석현이 이야기가 나오자 그렇지 않아도 기다렸다는 투로 이야기를 하였다. 학기 초부터 석현이는 상습적으로 친구들에게 거짓말을 해 왔으며, 그 거짓말이 들리면 미안하다는 뜻으로 돈을 가져다주었다는 골자였다. 그런데 다수의 친구들에게 돈을 주었지만, 유독 재경이가 강압적으로 돈을 빼앗았다는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하고 다녀서 재경이를 바라보는 타인의 시선 때문에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하였다.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다보니 두 가정의 부모님과 학생이 모두 피해자처럼 보이기만 한다.

일단 재경이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속상하시겠지만 정확한 사안 파악을 한 뒤 다시 연락을 드리겠노라'**고 말씀드렸다. 그리고 교장선생님과 교감선생님께 사안에 대하여 협의드리고 학교폭력 신고접수 대장에 기록하였다. 사안의 앞뒤를 따져 두 학생의 격리조치는 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전담기구에서는 내일 바로 사안 조사에 착수하기로 하였다.



• 이렇게 해 보세요

- 학교폭력은 큰 사건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폭력이라 여겨지는 모든 사안은 원칙대로 처리하고 사안 조사는 가감 없이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소집은 전담기구에서 결정하며 사건의 경중을 따져 결정하고, 가벼운 사안에 대하여는 담임종결로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 학교폭력관련 사건 발생이 인지되면 신고접수 및 학교장에게 즉시 보고한 후 즉시조치가 필요하면 바로 시행해야 합니다. 학교의 전담기구 또는 소속교원은 사안을 조사하고 보호자 면담 후 사건을 교육청에 보고하고 자치위원회를 소집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에 따라 면담일지나 보고서는 직접적인 정보 공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민원이나 쟁송 발생 시 학교 및 교사의 사안처리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판단 근거가 되므로 조사 과정 및 결과를 면담일지에 기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위 이야기처럼 보호자가 감정적으로 격앙되어있을 경우, 동요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며 보호자의 심정을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며 경청해야 합니다. 자치위원회의 결정 전에는 가해 · 피해 학생을 단정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한 학생과 학부모에게 학교의 공정한 진행 절차에 대해 안내해 줍니다.

※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사안이 발생하면 교육부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을 찾아 활용하세요.

학교안전공제

+ 학교 내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 요령

• 겪게 되는 문제

학교생활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학생이 병원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난감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학생과 학생의 보호자가 입을 심신의 상처가 걱정되기 때문이지요. 학교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여 의무적으로 학교안전공제에 가입되어있으며 이를 통해 금전적인 보상이 가능한 제도가 마련 되어있답니다.

• 그렇다면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학교안전공제가입자(학교장)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제 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공제회에 통지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까지 받게 된다고 하니, 반드시 사고 통지를 하고 공제급여를 청구하여 지급받아야 하겠지요?

사고 통지	학교장(원장)	• 사고 발생 후 지체없이(7일) • 공제급여관리시스템 접속(www.schoolsafe.or.kr) • 사고통지, 사고 내용 입력 • 사고통지서 결제 • 통보버튼 클릭
공제 급여 청구	학교장(원장) 또는 학부모	• 공제급여청구 클릭 • 사고목록 청구서 작성 • 구비(청구)서류 • 공제급여청구서(인쇄하여 직인 날인 후 첨부) • 진료비계산서 · 영수증 원본 • 청구인 통장 사본 • 진료비 세부내역서 • 진단서(50만원 이상 시) • 주민등록등본(50만원 이상 시)
심사 · 지급	학교안전공제회	• 14일 내 지급(14일 연장 가능) • 서류 보완시 추가 연장 가능 • 공제급여 결정에 불복할 경우, 학교 안전공제 보상심사위원회 심사청구 가능(90일 이내)

- 학교안전사고 통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안전사고 통지를 위해서는 공제급여관리시스템 (www.schoolsafe.or.kr)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학교 아이디를 모를 경우 ‘아이디찾기’버튼을 눌러 아이디를 찾을 수 있으며 최초 설정 비밀번호는 1234입니다. 『학교 안전사고통지』메뉴를 클릭하여 ‘사고등록’버튼을 클릭하면 학교안전사고통지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작성 후 ‘통보’버튼을 눌러 학교안전사고통지서를 공제회로 전송함으로 사고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3월의 어느 날 체육시간에 준영이를 비롯한 우리반 20명의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축구경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비수를 맡고있던 준영이는 공을 힘껏 차려고 했지만 마음과는 다르게 큰 헛발질을 하고 말았고 그대로 운동장에 쓰러졌습니다. 친구들은 그 모습이 웃긴지 킁킁대며 웃고 있었지만, 그 모습을 바라보던 나는 가벼운 부상이 아님을 직관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준영이에게 뛰어가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물어보았지만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은 채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무릎만 잡고 고통을 호소하였습니다.



재빨리 119에 신고를 하였고 엠블런스에 준영이와 함께 올라타고 근처 종합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로 이동하는 중 준영이는 정신이 좀 돌아왔는지 넘어질 때 땅에 부딪히면서 무릎에서 ‘뚜둑’하는 소리가 났고 무릎을 움직일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병원에 가는 길에 준영이의 부모님께 연락을 드렸고, 병원에서 부모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MRI검사 결과 오른쪽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되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형편이 넉넉지 않은 준영이네 부모님은 병원비를 걱정하였으나, 일단 병원비를 지급하고 나면 대부분의 병원비와 약 조제비는 공제회에서 되 돌려 받을 수 있다고 안심시켜드렸습니다.

학교에 돌아온 나는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다음과 같이 사고통지서를 작성하였습니다.

3월 18일 14시 30분 00중학교 1학년 7반 체육시간에 사고학생이 운동장에서 축구경기를 하다가 공을 힘껏 차려는 순간 발이 헛나가면서 몸의 중심을 잃고 넘어지게 되었고 오른쪽 무릎을 운동장 바닥에 세게 부딪힘. 오른쪽 무릎에서 ‘뚜둑’하는 소리와 함께 사고 학생이 크게 고통을 호소하여 병원으로 이송함. 오른쪽 전방 십자인대파열 진단을 받음

• 이렇게 해 보세요

- 「학교안전법」 제44조제2항(피공제자 등에 대한 공제급여금의 청구 등) 공제가입자는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공제회에 통지하여야한다.
- 사고통지서를 작성할 때에는 발생한 사고 내용을 상세하게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정확한 내용으로 작성합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누구와), 무엇을, 어떻게, 왜, 부상부위(좌우), 부상정도(진단명)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사고통지서 작성 후 문서상태가 '접수'상태로 나타나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 학교안전공제회의 조직도

학교안전중앙공제회 산하에 각 지역별 학교안전공제회가 조직되어있는 구조입니다.

사고 통지는 중앙공제회로 하게 되지만 공제급여 지급은 지역별 공제회에서 하게 됩니다.

※ 유치원도 공제회 의무 가입 대상자입니다.

업무포털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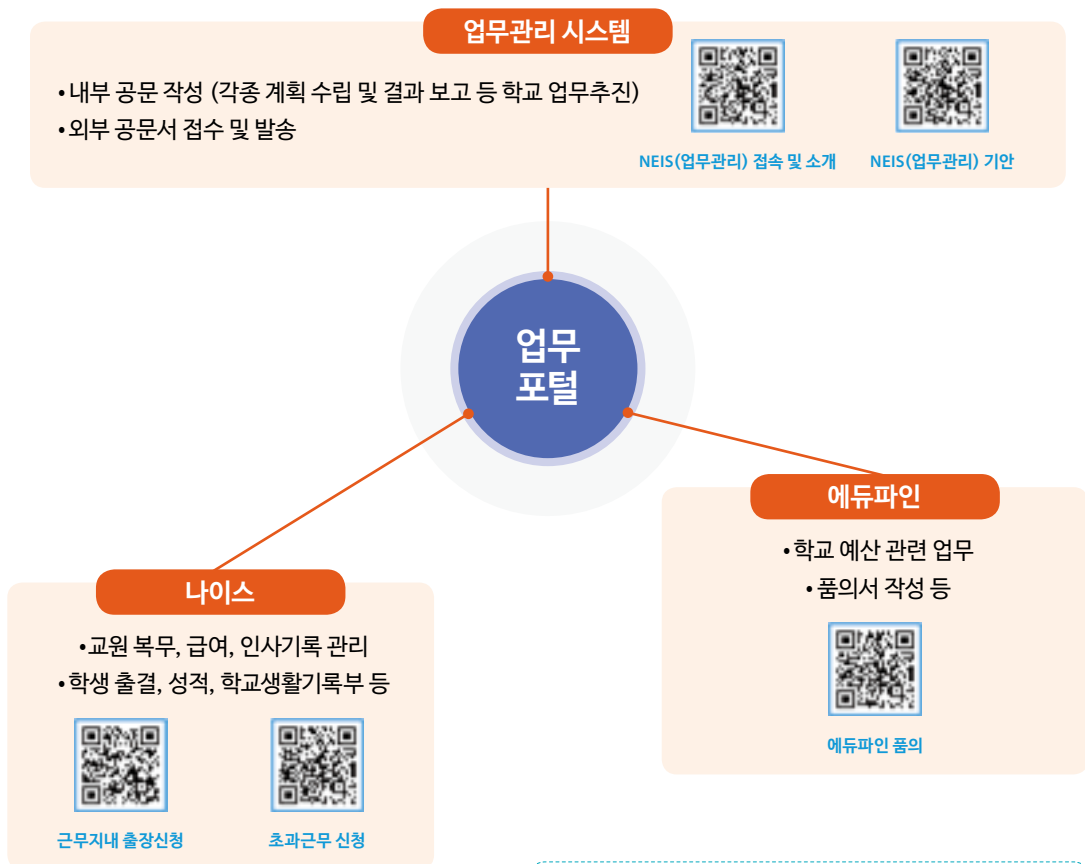
+ 일하면서 틈틈이 수업하는 교사?

교사의 고유 업무는 학생 수업입니다. 하지만 학생 수업 외 교육적 활동에 직 · 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다양한 역할과 의무 또한 교사의 부가적인 업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교육 활동과 관련성이 적은 업무나 단순 지원 업무는 행정실이나 행정실무사가 담당하거나 별도의 업무전담팀을 두어 교사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을 바꿔가고 있어요. 그러나 아직까지 적지 않은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 수업과 일반 업무를 병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 업무포털이란?

업무수행을 위하여 최초 접속하는 시스템으로 사용자 단일 로그인을 통하여 여러 시스템에 산재되어 있는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 QR코드를 확인해보세요.
신규발령 교사를 위한 '행정업무처리' 안내 동영상입니다.

꼭 알아야 할 김영란법

김영란 법이란?

정확한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공직자와 언론사, 교원, 사립학교 · 사립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원(회계연도당 300만원, 학교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 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법 적용 대상기관이 총 40,919개이고 그중 절반이 넘는 21,201개교가 학교입니다. 학교의 교직원뿐만이 아닌 기간제교원 등 학교에서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교육공무직, 행정실무원, 학교운동부코치, 급식보조원 등)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등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위원까지 다양한 직책의 사람들이 학교와 관련하여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또한 학생 · 학부모와 교원간의 직무관련성은 매우 엄격하게 해석됨에 따라 그동안 청탁이라는 인식조차 없던 통상의 행위까지도 법 위반사항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현장에서는 교육과정 운영상 많은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학부모의 나눔바자회, 지역사회시설 등 외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특화된 교육과정 운영에 극심한 위축을 겪는 등 그 피해가 학생에게까지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공직자가 배우자의 금품수수 사실을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을 시 처벌대상이 됩니다.

• 겪게 되는 문제

다음 중 김영란법을 위반한 교사는 누구일까요?

- 사례 1** A 교사는 같은 학교 교감선생님에게 청탁의 목적이 없이, 근무과정상 5만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하였다.
- 사례 2** B 교사는 예전에 같이 근무하던 선생님이 승진하여 교감 발령이 나자 축하의 의미로 10만원 상당의 화분을 선물로 보냈다.
- 사례 3** C 교사는 교무실 책상 위에 학생들이 놓고 간 것으로 짐작이 되는 음료수와 초콜렛을 받았다.

• 그렇다면

위 세 명의 교사 모두 김영란법을 위반하였습니다. 그동안 학교의 통상적인 행위까지도 법 위반사항에 포함될 수 있어서 학교 현장의 혼란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김영란법의 처벌 기준은 무엇일까요?



아하~!

2016년 9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즉 김영란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공직자와 언론인, 교원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금품 등을 수수하게 되면 형사처벌하는 제도입니다.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 가액범위(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5만원) 내에서 금품 등을 제공받을 수 있지만,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대가성이 없더라도(금액에 관계없이) 엄격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학생과 교사, 학부모와 교사 관계는 직무관련성이 매우 높습니다.

가액기준 내라도 직무관련자로부터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이나 선물을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 농축수산물물의 경우 선물가액 10만원까지, 경조사 화환만 선물할 경우 10만원까지 인정해주는 예외 조항 신설

• 이렇게 해 보세요

- 사례 1의 A 교사는 같은 학교 교감선생님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 목적이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호에 따라 3만원 범위 내에서 식사 대접이 가능합니다. 다만 인사 · 평가 등 기간 중에는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가액기준 내의 식사도 제공할 수 없습니다.
- 사례 2의 B 교사는 승진한 선생님에게 사교 · 의례 목적으로 5만원 이하의 선물만 보낼 수 있습니다. 결혼과 장례는 경조사에 해당되어 10만원의 가액범위 내에서 화환을 선물 할 수 있지만(※ 경조사 축 · 조의금과 화환 · 조화의 경우 합산 10만원 이내 허용), 승진의 경우는 경조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사례 3의 C 교사는 ‘지체 없이’ 해당 학생에게 음료를 돌려주어야 합니다. 만약 어떤 학생이 주었는지 알 수 없다면 청탁방지담당관(교감)에게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학생과 교사는 직무관련성이 매우 엄격하게 해석 되기 때문에 가액범위 내라도 어떤 금품이나 선물을 받을 수 없습니다.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2017.12.13)하였고, 2018.1.5까지 의견을 수렴하여 입법시행여부를 결정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입법예고안에 따른 변화는 다음과 같으니,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입법예고안과 같이 개정될 경우는 해당 내용에 유의하여 Q&A 사례 등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현행	입법예고안
• 경조사비 가액 : 10만원	• 경조사비 가액 - 축의금 · 조의금 5만원 - 화환 · 조화 10만원 ※ 축 · 조의금과 화환 · 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 합산 10만원 이내
• 선물 가액 : 5만원	• 선물 가액 - 5만원 ※ 농수산물(농수산물을 50% 넘게 사용해 가공한 제품 포함)은 10만원까지 허용 ※ 일반선물과 농수산물 선물을 함께 받은 경우 합산 10만원 이내 ※ 선물에서 유가증권(상품권 등) 제외
•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 장관급(50만원), 차관급(40만원), 4급이상(30만원), 5급이하(20만원)	•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 직급구분없이 40만원 - 공 · 사립 구분없이 각급학교의 장 및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 100만원

🌱 주요 Q&A

Q1 교직원등이 금품등을 수수하면 언제나 처벌되나요? 그리고 가액기준(식사 3만원/선물 5만원/경조사비 5만원) 이내면 무조건 괜찮은지?

- ▶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 의례 또는 부조 등의 목적”이라는 제한이 있으므로 가액범위 내라도 직무관련자로부터 수수하는 경우에는 제한받을 수 있음.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는 경우에는 가액기준 내라도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대상임.
- 교직원 등은 명목을 불문하고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회 100만원이하의 금품 등을 수수하는 행위가 금지됨. 다만, 제한범위 이내의 외부강의 사례금 또는 직무와 관련없는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 등이나 법 제8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8가지 예외사유에 해당하면 수수금지 금품 등에서 제외됨.

Q2 단체 인솔자 무료입장: 현장학습, 체험학습 등을 위한 시설에 학생 단체를 인솔하는 교사를 무료로 입장시키는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인가요?

▶ 학생 단체를 인솔하는 교사는 해당 시설의 이용이 목적이 아니라 학생의 지도·인솔이라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무료입장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사회상규상 허용됨.

Q3 직무와 관련된 교직원 등이 승진한 경우 10만원 상당의 난 선물이 가능한지?

▶ 경조사는 결혼, 장례의 경우에 한정되며, 승진의 경우 경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고·의례 목적으로 5만원이하의 선물만 수수 가능함.

Q4 학부모회 간부 등이 운동회, 현장체험학습 등에서 여러 교사를 대상으로 간식을 제공했을 경우 법 위반인지?

▶ 학부모와 교사는 평소에도 성적, 수행평가 등과 관련이 있는 사이이므로 학부모가 교사에게 주는 선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고·의례 등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허용될 수 없음.

Q5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책상에 놓고 가거나 택배로 발송 또는 배우자에게 전달하고 가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 금품 등 수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반환·인도하고 신고하면 처벌대상에서 제외됨.

Q6 교직원 등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하고 반환해야 하는데, 여기서 지체 없이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 ‘지체 없이’는 불필요한 지연 없이를 의미하고, 지체 없이 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를 의미함. 지체 없이의 판단은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사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함.

Q7 학교법인의 비상임 이사, 방과후과정 교사(강사), 퇴직교원, 기간제교사는 법적용 대상인지?

- ▶ 학교법인 비상임이사: 대상자에 해당함.
- ▶ 방과후과정 교사(강사):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 ▶ 퇴직교원: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 기간제교사: 적용대상에 해당함.



Q8 직무를 수행하는 교직원 등에 해당하는 교장이 부정청탁을 받고 담임교사에게 지시를 하여 직무를 처리한 경우 담임교사는 처벌받나요?

▶ 상급자인 교장은 담임교사에 대해 지시를 하여 직무를 처리하였으므로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고, 담임교사는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에 따른 것임을 안 경우 거절하는 의사를 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시에 따라 처리하였으므로 형사처벌 대상임.

Q9 미성년자인 학생을 위해 교사에게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도 제재대상인가요?

▶ 미성년자를 위한 부정청탁도 그 효과가 제3자인 미성년자의 자녀에게 귀속되므로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에 해당하여 제재대상임.

Q10 직무를 수행하는 교직원 등이 처음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어떠한 조치를 해야 하나요?

▶ 직무를 수행하는 교직원 등이 처음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함. 이 경우 청탁방지담당관(학교의 경우 교감)과 상담하여 사후 발생될 수 있는 논란을 차단해야 함.

Q11 월 정기 회비를 납부하는 같은 소속 직원들로 구성된 모임에서 회원의 경조사가 발생하여 회칙에 따라 50만원을 지급할 수 있는지?

▶ 교직원 등과 관련된 직원 상호회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은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예외사유(법 제8조제3항제5호)에 해당되어 지급 가능

Q12 직무관련자가 교직원 등에게 금지된 금품 등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교직원 등이 그 자리에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 직무와 관련된 교직원 등에게 금품 등 제공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도 청탁금지법 위반임. 이 경우 금품 등 가액에 따라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됨(다만, 교직원 등은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처벌대상에서 제외.)

Q13 학부모가 현재 자녀의 담임교사가 아닌 작년 담임교사에게 10만원 상당의 선물을 한 경우 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 작년 담임교사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지만, 성적이나 수행평가 등과 관련성이 있다면 학부모로부터 선물을 받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음.

Q14 교직원 등이 경조사비로 15만원을 받은 경우 가액한도를 초과한 부분(5만원)만 반환하면 되나요?

▶ •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경조사비를 수수한 경우 가액기준 초과부분만 정산하여 반환해야 함. 다만, 가액기준 초과 경조사비 전액이 수수금지 금품 등에 해당하므로 제공자는 경조사비 전액을 기준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됨.

- 공직자 등이 가액기준 초과부분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조사비 전액을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함.

Q15 결혼식에 참석한 하객에게 제공되는 가액범위를 초과하는 식사는 허용될 수 없는지?

- ▶ 경조사에 참석한 하객에게 접대하는 식사는 우리 사회의 전통 관습이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것이므로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도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함.

Q16 신입생 유치를 위한 대학 입시 설명회에 인근 고등학교 3학년 학생 및 선생님을 초청하여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나요?

- ▶ • 학생은 법 적용 대상자인 공직자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탁금지법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음.
- 신입생 유치를 위한 대학 입시 설명회가 공식적 행사에 해당할 경우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식사는 허용됨. 다만,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내의 식사는 허용됨.

Q17 공청회, 간담회 등의 회의에서 사회자 등의 역할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나요?

- ▶ 공청회, 간담회 등의 회의에서 사회자 등의 역할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 이므로 외부강의 등에 해당함.

Q18 법령(조례·규칙을 포함)에 근거한 위원회 등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 법 제10조의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나요?

- ▶ 각종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등의 위원으로 임명·위촉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법령에서 정한 위원회 위원으로서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지 않음.

Q19 공직자 등이 시험출제위원으로 위촉되어 시험출제업무를 하는 경우 출제위원으로 참석하는 행위가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나요?

- ▶ 시험출제는 응시자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문제를 내는 행위로서,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라거나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지 않음.

Q20 학생들이 교탁이나 교무실 책상에 음료수나 초콜렛 등을 놓아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받는

것도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

- ▶ 위반임. 해당 물품을 어떤 학생이 주었는지 알 수 있다면, ‘지체 없이’ 해당 학생에게 돌려주어야 함. 무기명으로 받은 경우라도 학생이 주었다는 의심이 든다면, 학생(학부모)과 교사 간 관계는 직무관련성을 엄격하게 해석함에 따라 받으면 안되고, 청탁방지담당관(교감)에게 신고하여야 함.
다만 반대의 경우, 즉 야간자율학습시간 등에 담임교사가 학생들에게 “고생 많다”며 피자나 음료수를 사는 것은 가능함.

Q21 야간자율학습 감독하는 선생님께 감독기간에 간식을 드시라고 특정 학부모 또는 학부모회에서 음식물을 주는 행위가 청탁금지법상 위반인가요?

- ▶ 위반임. 학생 · 학부모와 교사간의 관계는 직무관련성을 엄격하게 해석함에 따라 특정 학부모 또는 학부모회에서 교사에게 음식물 등 금품을 주는 것은 가액범위 이내이더라도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임.

Q22 같은 학교 교사가 교감에게, 또는 같은 학교 교감이 교장에게(직속의 상급자) 청탁의 목적이 없이, 근무과정상 식사를 대접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상 위반인가요?

- ▶ 위반이 아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 목적이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3만원 범위내에서 가능함.
다만, 인사 · 평가 등의 기간 중에는 당해 업무와 직접적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가액기준 내의 식사도 제공할 수 없음.

Q23 온라인으로 동영상 강의를 하는 경우도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나요?

- ▶ 온라인 강의의 경우 전달매체가 온라인 형식일 뿐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 · 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므로 외부강의 등에 해당함.

Q24 외부강의 등을 한 공직자 등에게 식비, 숙박비, 교통비를 제공하는 경우 외부강의 등 사례금에 포함되나요?

- ▶ 공직자 등이 소속기관에서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외부강의 등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음.

Q25 사전 신고 없이 외부강의를 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 또, 사례금을 받지 않고 외부강의를 하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는지?

- ▶ 외부강의 등의 사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징계대상에 해당됨. 또, 사례금을 받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직무와 관련한 외부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해야 함.

Q26 외부강의 등 사례금과 관련하여 교직원의 직급별 상한액은 얼마입니까?

- ▶ 1. 국·공립학교 교직원과, 교육청 등의 소속 공무원의 경우, 아래의 구분에 따른 상한액을 받음.

구분	장관급 이상	차관급	4급 이상	5급 이하
상한액	50만원	40만원	30만원	20만원

2.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에 근무하는 공직자의 경우, 아래의 구분에 따른 상한액을 받음.

구분	기관장	임원	그 외 직원
상한액	40만원	30만원	20만원

3. 사립학교장 및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의 경우, 상한액은 100만원임.

4. 국민권익위원회 고시 제2016-2호(2016. 9. 28)에 따른 교육계열의 직급 구분은 다음과 같음.

등급 기관유형	장관급 이상	차관급	4급 이상	5급 이하
대학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비교 제1호 다목을 적용받는 총장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비교 제1호 가목 및 나목을 적용 받는 총장	부교수 이상	조교수 이하
초·중·등	-	-	교장	교감이하
기타	-	교육감	교육연구관 장학관	교육연구사 장학사

5. 위의 상한액은 1시간(기과의 경우 1건당)당 상한액이며, 1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도 1회기준 150%를 초과하지 못함. 즉 4시간의 강의, 회의 등의 경우에도 직급별 상한액의 150%에 해당하는 사례금을 받을 수 있음.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2017.12.13)하였고, 2018.1.5까지 의견을 수렴하여 입법시행여부를 결정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 장관급(50만원), 차관급(40만원) 4급이상(30만원), 5급이하(20만원)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 직급구분없이 40만원 - 공·사립 구분없이 각급학교의 장 및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100만원
---	--



Q27 학부모가 학교운동부코치(정식 교사가 아님)에게 선물을 주는 것도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

▶ 위반임. 청탁금지법상 학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교육공무직, 행정실무원, 학교운동부코치, 급식보조원 등)도 역시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게 됨.

임원	· '사립학교법'에 따른 이사 및 감사등 상임·비상임을 모두 포함
교원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교원('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에 따라 교원으로 인정되는 기간제교원 포함)
직원	· 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및 조교 등 학교·학교법인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 (교육공무직, 행정실무원, 학교운동부코치, 급식보조원 등)

비적용대상

- '고등교육법'에서 교원으로 인정되지 않는 자(명예교수, 겸임교원, 시간강사 등)
 - 시간강사의 경우,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되는 2018. 1. 1.부터는 교원으로서의 지위를 부여받게 되므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포함 될 예정임.
- 학교·학교법인과 용역(도급)계약 등을 체결한 법인·단체 및 개인(건물관리(경비, 환경미화, 시설관리, 당직 등) 또는 구내식당(매점, 카페 등) 운영업체 종사자, 위탁 계약에 의한 방과 후 과정 담당자)
- 학교·학교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학생조교, 근로장학생, 자원봉사자(명예교사, 학교보안관) 등

Q28 학부모인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도 공직자와 같이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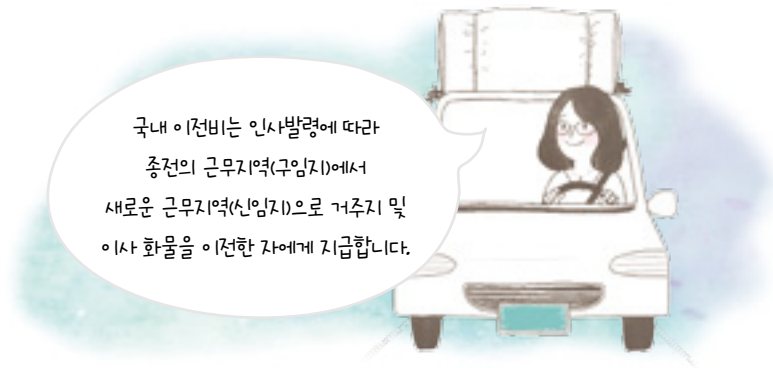
▶ 공직자는 아니지만, 청탁금지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받게 됨. 학교와 관련하여 '공무수행사인'이 되는 경우는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즉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고등교육법'에 따른 등록금심의위원회,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인사위원회 등의 위원일 경우 청탁금지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이 됨. '공무수행사인'인 경우, ▶해당되는 공무에 수행에 한정하여, ▶청탁금지법상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제6조(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제7조(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제8조(금품 등의 수수금지), 제9조(수수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의 적용을 받게 되고, 이는 외부강의 등 사례금의 제한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해당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직자 등과 동일하게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보시면 됨.

신임교사도 이전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 현재 광주에서 거주하고 있고, 서울에서 채용됐습니다.

신규 임용의 경우에도 이전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요?

A 채용 당시 거주지가 광주인 선생님께서 서울에 응시하여 합격하였다면 이전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이전비는 인사발령에 따라
종전의 근무지역(구임지)에서
새로운 근무지역(신임지)으로 거주지 및
이사 화물을 이전한 자에게 지급합니다.

• 신규 임용된 선생님의 경우, 구임지란 채용 당시의 거주지를 의미합니다.

+ 이전비 신청방법

이전비 신청방법은 이전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6월 이내에 거주지의 변경 및 이사 화물의 운송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구비하여 신 근무기관에 이전비 지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신청 절차 |

- 청구 기한: 이전한 날로부터 6월 이내
- 이전 기한: 부임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 구비 서류
 -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주민등록등(초)본 등)
 - 이사 화물의 이전 비용, 기타 소요 비용(이동구간, 이동거리, 운송비 및 기타 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 (이사 비용 계산서 등)

교권 · 교직과 관련해 의문이 생기면 한국교총 교권국으로 문의하세요!

전화: 02-570-5615

건강한 교직생활



... 교사의 직업병 예방과 치료법 ...

+ 성대결절 / 성대 물혹

| 성대결절이란? |

목에 힘을 주어 말할 경우 성대의 떨림이 잦아지고 마찰이 자주 일어나 성대의 국소적 출혈과 염증이 굳은살을 만든 것. (높은 톤을 사용하는 여교사에게 많다)

| 성대물혹이란? |

성대 점막아래 모세혈관 파열로 혈종이 생기고 결국 물혹이 생김. (낮은 톤을 사용하는 남교사에게 많다)



- **증상:** 일차적인 증상으로는 쉼 소리가 나고 목이 따끔거리며 아프다.
- **예방법:** 말을 가능한 적게 하고 분필 먼지 흡입 줄이며, 습도 조절. 수업중에도 따뜻한 물 충분 섭취

+ 하지정맥류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해 종아리 혈관에 머물러 생기는 질환(하루 8시간 서있는 직업 발생빈도 높음)



- **증상:** 종아리 부위의 혈관이 울퉁불퉁하게 튀어나오고 다리가 늘 무거우며 피곤하다.
다리가 쉽게 붓고 통증이 심하며 수면 시 쥐가 잘 난다. (장마철, 한겨울에 더 심함)
- **예방법**
 - ① 한자리에 오래 서있지 말고 교실 안을 걸어 다니며 수업한다.
 - ② 한자리에 서있을 경우 몸의 무게 중심을 발가락과 발꿈치로 번갈아 가며 옮긴다.
 - ③ 종아리 근육에 힘을 주었다 풀어주는 운동을 한다.(계단 오르내릴 때 발 끝에 체중 싣고 다리를 쭉쭉 펴)
 - ④ 의료용 압박스타킹을 착용한다.
 - ⑤ 일과 후에는 발목에서 무릎을 향해 쓸어 올리듯 마사지한다.

+ 어깨관절 오십견

판서 등 과도한 어깨관절 사용으로 염증 발생. 혈액순환 저하, 근육경직 동반



- **증상:** 단순 통증만이 있다가 활동 장애(단추 채우기, 머리 빗기, 물건 들기 등)를 동반하게 됨.
- **예방법:** 안정, 온열, 운동요법이 원칙이다.
 - ① 어깨 근육 강화 운동이 필수(철봉 매달리기가 특히 좋음)
 - ② 잠을 잘 때는 평소 많이 쓰는 어깨가 바닥에 눌리는 자세가 되지 않도록 한다.
 - ③ 팔 휘둘리기 운동, 벽에 손으로 최대한 큰 원 그리기 등 어깨 운동을 지속적으로 한다.
 - ④ 가벼운 아령(1kg정도)을 들고 자연스럽게 팔을 늘어뜨린 상태에서 흔들어주는 추 운동
 - ⑤ 운동전 반드시 온습포 등의 열찜질을 한 후에 실시한다.(관절주위의 인대나 근육의 이완효과)

● ● ● 담임

담임은 학생들에게 공부의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학습 안내를 하고,
학습활동을 통해 자신의 꿈을 찾을 수 있는 **이정표 역할**을 합니다.
학생들에게 바른 마음의 발을 일구어 많은 심성의 꽃을 피울수 있게 하는 **농부의 역할**을 합니다.
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민이나 문제를 함께 들어주고 생각해 주는 **상담자 역할**을 합니다.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부모의 역할**을 합니다.

첫 만남에서 아이들 사로잡기

순수한 마음에 아이들과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 친구처럼 허물없이 대하게 되면,
학생들이 교사를 대하는 태도가 너무 불성실하게 되기 쉽고, 대들기도 하며,
말대답을 하기도 합니다.
심하면 학생들에게 무시당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우선, 학습의 질서유지를 위한 교사의 통제력과 엄격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다정다감하게 다가갔을 때 무지 감동합니다.



● ● ● 담임교사 십계명

01 차별하지 마라

예쁜 학생도 있고, 미운 학생도 있더라도 선생님은 절대로 그 표시를 내면 안 된다. 어떤 경우라도 선생님은 편애하지 말아야 한다.

02 체벌은 절대 NO

체벌은 즉시 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보여 계속 사용하다 보면 중독되게 된다. 끝까지 체벌의 유혹을 참아내야 한다.

03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라

학생들이 어리다고 알고거나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 학생들의 마음이 상할 이야기나 행동에 주의해야 한다. 특히 공개적인 자리에서 인격에 반하는 말이나 행동으로 나무라면 절대 안 된다.

04 학생들과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라

학생들과 가능하면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하고,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사유를 설명하여 이해를 구해야 한다. 조레, 중레 시간을 지키는 것도 약속의 한 부분이다.

05 사제동행하라

선생님도 함께 동참하는 것이 좋다. 선생님은 지시하거나 감독하는 입장이고, 학생들은 그 지시에 따르는 입장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자. 청소, 환경관리, 체육대회 등에 함께 참여하면 학생들과 훨씬 가까워질 것이다.

06 칭찬을 아끼지 마라

학생은 선생님의 관심과 칭찬을 먹고 자란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다. 가능하면 꾸지람보다는 장점과 잘한 점을 칭찬 하자. 칭찬은 학생들을 밝고 긍정적인 사람으로 성장하게 한다.

07 학생들의 이름을 부르자

많은 학생들의 이름 외우기도 어렵고, 일일이 불러 주기도 쉽지 않다. 그러다 보면 수업시간엔 번호, 그 외 시간엔 ‘야!’, ‘너’로 부르기 쉽다. 이름을 기억하고 꼭 불러 주자. 이름은 가장 감미로운 음악이다.

08 하루에 몇 번이고 학생들과 인사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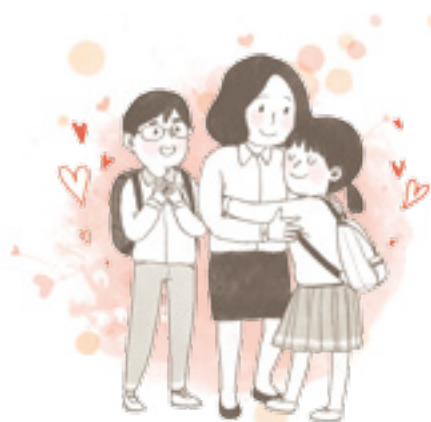
학생들은 하루에 몇 번을 보더라도 선생님에게 인사를 한다. 그런데 선생님들은 잦은 인사를 대개 못 본 척한다. 귀찮더라도 웃으며 인사 하자. 한 마디 인사가 스승과 제자 사이를 가깝게 한다.

09 유머를 아는 선생님이 되자

유머는 생활의 활력소다. 지루한 수업시간은 학생들에게 힘든 시간이다. 선생님은 학생들이 지루하다고 느낄 때쯤이면 준비한 유머를 사용하는 여유를 가져야 한다.

10 친절한 선생님이 되자

학생들이 좋아하는 선생님 조사에서 ‘친절한 선생님’이 상위에 오른다. 잘 가르치는 선생님, 잘생기고 예쁜 선생님이 아니라 친절한 선생님을 학생들은 좋아한다. 학생들에게 친절하라.



교직생활의 희로애락 _ 섭섭하지만 뿌듯하고 잔잔해서 더 행복한 ‘敎職’

새내기 선생님. 현직 선생님들에게 미리 듣는 허심탄회한 교직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 교사로서 보람칠 때

아이들과 함께 즐겁게 활동하는 '매 순간 순간'

- 평생을 추억하고 찾아오는 제자를 가질 수 있는 것. 오직 교사만이 가질 수 있는 보람이다.
- 가르쳐도, 가르쳐도 도무지 글눈을 뜰 것 같지 않아 암담했던 아이. 봄이 오자 앞눈을 틔우는 나무처럼 한해가 끝나가던 어느 날, 더듬더듬 받침 없는 글자부터 읽으면서 글눈을 떼을 때의 감동이란... 해마다 되풀이 되지만 늘 새로운 기쁨이다.
- 앞니 빠진 얼굴로 환한 미소를 지으며 수업시간에 배운 노래를 따라 부르는 것을 보았을 때
- 수업이 끝난 후 교실에 남아 아이들과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수업 외적인 만남의 시간을 보낼 때, 선생님과 학생이라는 관계에서 조금 벗어나 편하게 웃고 떠들며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나눌 수 있어 좋았다.
- 십수 년 전 9명의 순박한 시골 아이들을 2년간 맡으면서 연극을 했던 것이 가장 즐거웠다. 열악한 가정의 아이들이었지만 서로 다독이며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던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떨릴 정도로 즐거웠다. 지금도 우리는 만나면 공연 이야기를 한다. 그 때도 지금도 그들은 제자이면서 동시에 사랑하는 나의 배우들이다.
-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만들어 간다고 느껴질 때. 교사인 나보다 더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들의 눈빛을 보면 행복하다. 수업 시간에 열심히 집중해서 설명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귀여운 모습에 보람을 느낀다.
- 학생들과 함께 웃으며 활동하는 매 순간 순간이 행복하다.
- 우리 반 학생 모두와 학교 대항 축구경기를 응원하러 갔을 때
- 학생과 확실하게 소통이 된다고 느낄 때. 내 질문의 기저에 깔린 감정까지 읽어서 답변해 줄 때 정말 교사된 기쁨을 느꼈다.



+ 교사를 그만두고 싶을 때

겨우 지탱하는 자긍심마저 무너뜨리는 '사회'

- 가르치는 일이 중시되어야 하는데, 다양한 행사와 기타 업무 등으로 학생들을 제대로 지도하지 못하고, 수업에 충실하지 못한 나를 발견할 때
- 주변에서 교직에 대해 폄하하는 발언을 듣게 될 때
- 사회 통념상 이해하기 어려운 교육청의 협조(?)사항을 무조건 수행하라고 강요할 때
- 학부모와 학생이 교사에게 대들거나 교사의 권위에 도전할 때
- 별 의미없는 복잡한 서류(다른 학교에서는 하지 않는)를 작성하라고 해서 부적절함을 설명했지만 도저히 설득할 수 없을 때 정말 사표 던지고 싶었다.
- 과도한 행정업무로 수업보다 공문서 처리를 우선으로 해야 할 때

- 나름대로 일년 동안 열심히 가르쳤음에도 학부모 교원평가에서 어떤 항목에서는 보통으로 평가받았을때. 잘 모르기 때문에 '아주 잘함'이나 '잘함'이 아닌 '보통'에 체크했으리라 생각되지만 이런 방식의 평가는 부당하다는 생각이 든다.
- 학부모가 나의 학생 지도 방식을 존중해 주지 못할 때(생활태도, 진로지도 등)
- 교권은 존중하지 않으면서 교육 문제의 모든 책임을 교사에게 돌리는 현실을 만날 때



+ 교사로서 힘들 때

우리 아이는 절대 그럴 리 없다는 학부모의 '항의'

- 학생이 비행을 저질렀어도 '우리 아이는 절대 그럴 리 없다'며 항의하거나 '다른 아이 편만 든다'며 교사를 원망할 때
- 막무가내인 학생이 내 말은 죽어라 안 듣더니 무서운 남자 선생님 한 마디에 바로 태도가 달라졌을 때 허무했다.
- 사교육에 지쳐 아무 의욕이 없는 학생들을 매수업 시간마다 만날 때
- 수십번을 지도하고 타이르고 격려를 해도 수용하는 자세가 전혀 없는 학생들을 볼 때
- 교사인 나와 학생들 간 세대차이를 극복할 수 없다고 여겨질 때
- 아이들이 교사의 노력에 반응하지 않거나 반발하고 교사의 권위에 도전할 때
- 학교 통학버스 사고로 아이들 둘이 죽었다.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한 집 형제 둘이 죽었다. 그 중 작은 아이는 엄청 장난꾸러기였는데 신기하게도 책을 빨려들 듯이 보였다. 당시 도서 담당이었던 나에게 그 아이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았다. 사고 후 도서실에서 그 아이가 앉았던 자리를 볼 때마다 울었다. 현관에 걸린 사진을 볼 때마다 울었다. 이 글을 쓰는 지금도 운다. 손도 떨린다. 그 후 교육청에서 스쿨버스 도우미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지침이 내려왔다.



+ 교사로서 보람과 긍지를 느낄 때

사탕 한 알, 고추장, 참기름, 손편지.....그 안에 담긴 '진심'

- 첫 아이 낳고 휴직하고 있을 때 초임시절 학생들이 우리집까지 축하해주러 와줬을 때
- 첫 제자들이 어렵게 어렵게 나를 찾아서 연락이 왔을 때
- 졸업생 부모님이 직접 쓴 손편지를 전달하며 평소 자녀에게 좋은 가르침을 주어서 고맙다고 진심으로 말해줄 때
- 자신이 먹고 싶은 사탕이나 과자를 꼭 참고 나에게 건네 줄 때
- 수업 준비를 열심히 한 덕에 아이들과 환상적인 수업을 마쳤을 때 강력한 에너지가 쌓인다.
- 틈만 나면 아이들을 교묘하게 괴롭히는 학생을 만나 2년 동안 도 닦는 심정으로 생활했는데, 6학년 때 우연히 만난 학부모가 '선생님 덕분에 우리 애가 바르게 자랄 수 있었다'는 말을 들었다. 학년이 바뀌고 해가 몇 번 바뀌어도 스승의 날이면 어김없이 고추장, 참기름을 보내주신다.
- 잘 챙겨주지 못하는데 우리 애들이 엄마가 교사인 것을 아주 자랑스러워하고 좋아할 때
- 문제행동을 보였거나 정서적으로 불안해하던 학생이 마음을 열고 나의 진심을 받아들여 조금씩 변화가는 모습을 보일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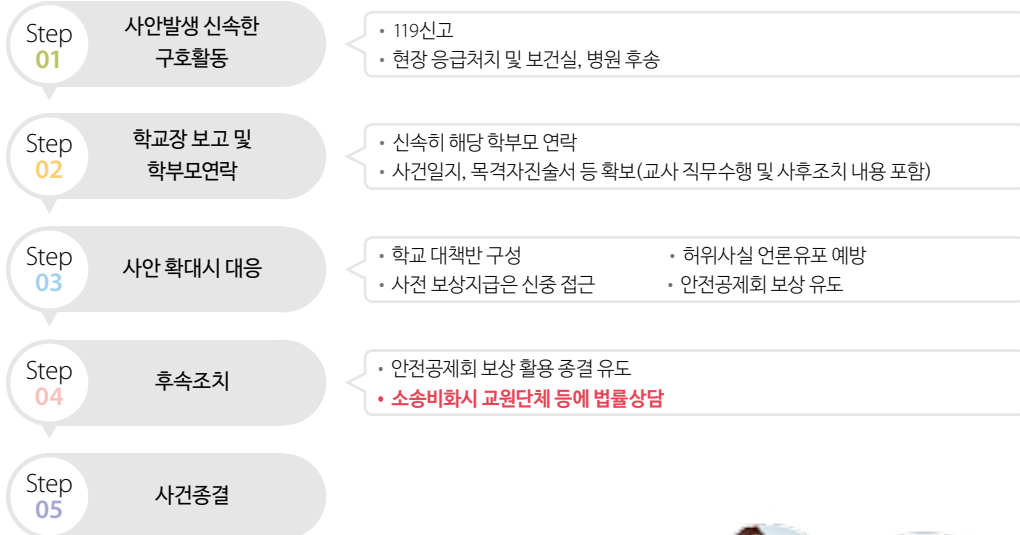


자주 발생하는 교권침해와 대응방법

+ 학교안전사고에서의 교권침해

가. 학교안전사고의 정의: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 · 교직원 또는 교육활동 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 · 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학생 · 교직원 또는 교육활동 참여자에게 발생하는 질병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나. 학교안전사고 처리과정에서 교권침해 대응절차



법원 판례를 종합해 볼 때, 학교나 교사가 학교 안전사고에 책임을 지는 경우는

- ▣ 학생에 대한 주의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거나
- ▣ 사고 예측이 가능했음에도 주의를 다하지 못했을 경우
- ▣ 사후 조치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 입증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대응 TIP

적자생존(적은 자가 살아남는다)

- 교사가 주의의무, 보호감독 의무 등 교사의 지도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중요한 기준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선생님의 기록입니다.(교무일지, 학급일지 등)
-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신속하게 사건일지, 사실확인서(목격자 진술서), CCTV 증거자료 등 가능한 모든 자료를 수합해 교사가 최대한 노력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학생 지도 시 있었던 여러 가지 사항들, 선생님의 지도내용 등을 꼼꼼히 기록으로 남겨두는 습관은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 학부모 부당행위로 인한 교권침해

가. 학부모의 부당행위란?

학부모의 부당한 간섭으로 교사의 교육권이 침해되는 경우

교원을 상대로 폭언, 폭행, 협박, 명예훼손 등의 행위를 수반

나. 학부모의 부당행위 사례와 사건처리 결과

학부모, 아들 머리 길다고 꾸중한 교사를 학생들 앞에서 폭행, 전치 4주 진단, 한 달간 입원, 근무 제대로 못해 승진에도 불이익	학부모 벌금형 처벌
교사의 지도에 불만 품은 학부모가 교사 얼굴에 뜨거운 녹차 뿌리고 주먹과 발로 머리 등 가격, 교사 전치 4주 진단	학부모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졸업생 학부모, 예전 담임 찾아가 학생들 앞에서 머리채 잡고 폭행, 교사 전치 2주 상해, 말리는 다른 교사 2명도 전치 10일/7일씩 진단	학부모 벌금형 처벌

다. 부당행위 발생후 교권침해 대응절차

Step 01 교권침해 사안발생	• 사고현장 탈피 및 도움요청 • 사고경위서, 목격자 진술서 등 증거확보 • 피해교사 보호조치
Step 02 상급기관 보고 또는 교원단체 지원요청	• 해당 상급기관에 유선보고 • 교원단체 등에 법적지원 요청
Step 03 중재 및 법적대응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학부모 사과 등 조치) • 피해교사 의견 존중하여 본인 및 학교 차원 고소·고발
Step 04 후속조치	• 피해교원 업무 복귀 행정적 지원 • 후유증 치료 지원(공무원연금공단 공무상 요양 신청) * 사립학교는 사학연금공단에 신청
Step 05 사건종결	

추가적인 대응 TIP

전화통화나 대화를 상대방 동의없이 녹음해도 되나요?

- 본인이 대화 당사자라면 동의 없이도 녹음이 가능합니다.
- 본인이 대화당사자가 아니라면 불법 도청에 해당하므로 녹음이 불가능합니다.

+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가.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란?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불응행위, 교원대상 고소, 고발 및 반항 행위, 면학분위기 저해 및 다른 학생의 학습권 침해 행위 등

나.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사례와 사건처리 결과

담임교사에게 압수당한 핸드폰을 찾으러 간 학생이 교사에게 훈계를 듣다가 교사를 폭행하여 전치 8주 진단	▶ 학생 타학교 전학
영어수업 도중 소란을 피운 학생에게 주의를 준 여교사를 밀어 넘어뜨림	▶ 학생 퇴학 처분
학생이 담임교사의 지도에 불만을 갖고 주먹으로 교사의 얼굴을 폭행함	▶ 학생 사과

※ 학교급별 및 사안에 대한 단위학교 학폭위 결정에 따라 사건처리 결과는 달라질 수 있음.

다.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대응 절차

Step 01 교권침해 사안발생	• 사고현장 탈피 및 동료교사 도움 요청 • 학교장 즉시 보고 • 응급처치 및 진단서, 목격자 등 증거확보 • 사건경위서 작성
Step 02 상급기관 보고 또는 교원단체 지원요청	• 심각한사안인 경우 상급기관 보고 • 상급기관 또는 교원단체 등 지원기관과 공조
Step 03 학생 상담 · 징계	• 가해학생 및 학부모 상담(반성 및 사과유도, 치료비 보상 요구 등)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 • 선도위원회 엄정 처리 및 WEE 센터 등 특별교육
Step 04 학생 및 학부모 반발시	• 반발시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한 해결 시도 • 교원단체 등을 통한 법적 대응 강구
Step 05 후속조치	• 피해교원 지원(수업 제외 등 임시 보호 및 공상처리, 공무상 재해 청구 등) • 재발방지를 위한 학생 관찰 및 상담 강화

추가적인 대응 TIP

교권침해 충격으로 병가를 내려합니다.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있습니다.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교육활동 중 교권침해 등으로 인해 병가를 내는 경우에는 공무수행과 밀접한 상관이 있으므로 당연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징계처분 및 신분피해

가. 징계처분에 의한 피해유형

- 직무 태만이나 품위손상, 금품 수수 등의 사유로 징계처분
- 부당전보나 권고사직, 재임용 거부, 관리직에서 평교사로의 강등 등 불리한 처분
- 수업시간 축소나 수업권 배제, 학부모의 부당 요구 등 교육권 침해

나. 징계처분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염두에 둘 사안	• 동료교사 등 사건내용을 아는 사람으로부터 유리한 증언을 확보하고, 관련 증거들을 수집합니다. - 동료교사의 확인가능 사항은 자필확인서를 받아둬 - 징계 사유에 반박할 수 있는 자료(업무일지, 출장일지, 출석부 사본 등)는 미리 준비해둬 • 동료교사, 학부모의 진정서 또는 탄원서를 받을 수 있으면 미리 받아둬둬. • 징계사유가 기재된 징계의결요구서 교부를 요구(내용증명 활용)합니다. • 징계위원회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하여도 1회 교부한 것이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감사 진행시 유의점	• 공손하게 대답하되 회피하지 않는 말투를 유지합니다. • 주눅이 들더라도 답변은 정확하게 하도록 합니다. • 서명할 때는 신중하게 끝까지 살펴보고, 자신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을 때는 정중하게 수정을 요청합니다.

한국교총 교권 회복 및 교직 상담 안내

한국교총은
선생님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한국교총 교권 보호활동
소개영상

+ 상담 활동

교권침해 영역	교직상담 영역
신분 피해	인사(임면, 승진, 전보, 징계 등)
학교 안전사고 피해	보수(호봉, 수당, 학·경력 인정 등)
폭행 피해	자격(취득, 변경, 연수 등)
명예훼손 피해	복무(휴가, 연가, 휴직, 복직 등)
교권소청 심사청구권	연금(공상, 퇴직금 등)
교직생활 중 고충사항	기타 교육 관련 사항

+ 상담 방법

- 인터넷 상담: 주소창에 kfta.or.kr 또는 한글로 '한국교총' 입력후 한국교총 홈페이지 [교권/교직상담] 클릭
- 전화 상담: (02) 570-5612~5 • 수신자 부담 전화 080-5155-119
- 팩스 상담: (02) 3461-0431

성희롱 · 성추행 문제 유형 및 대처 · 처리 절차

교내 성폭력 예방 및 근절로 행복한 학교문화를 만들어요!

+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이 간과하기 쉬운 성희롱 · 성추행 문제 유형

| 교원이 학생에게 하지 말아야 할 사항 |

행위	성희롱 예시
육체적 행위	① 교육 · 지도 과정에서 친근감의 표시로 머리, 손, 어깨, 배, 허리, 귓볼, 목, 허벅지, 얼굴 등을 만지는 행위 ② 복장을 지적하면서 지도봉으로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부위를 누르거나 의복의 일부를 들추는 행위 ③ 친근감으로 학생의 어깨나 팔, 다리 등을 안마하거나 안마를 요청하는 행위 등
언어적 행위	① 학생을 성적으로 연상되는 인물로 부르거나 외모에 대해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② 학생의 이성교제에 대해 '진도가 얼마나 나갔냐?' 등의 농담을 하는 행위 ③ 연인 사이에 부르는 호칭을 사용하는 행위 등
시각적 행위	① 칠판 등에 음란한 그림을 그리거나 음란한 문구를 쓰고, 지우기를 반복하는 행위 ② 컴퓨터 통신이나 SNS 등을 통해 음란한 사진 · 그림 · 영상물 등을 보여주는 행위 ③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등

| 교원이 교원에게 하지 말아야 할 사항 |

행위	성희롱 예시
육체적 행위	① 노래방 등에서 노래를 강요하며 신체접촉을 하고 껴안으면서 춤을 추거나 추근 대는 행위 ② 교직원 연수회 등에서 이성의 숙소에 불쑥 침입하는 행위 ③ '아들 같다, 딸 같다, 동생 같다' 등 가족 같이라며 안마를 요구하거나, 흰머리를 뽑아 달라고 하는 등 신체적 접촉을 유도하는 행위 등
언어적 행위	① 회식자리에서 '이리 와서 술 좀 따라봐' 등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② '어제 밤에 뭐했길래 피곤해 보여. 오랜만에 무리했나봐?' 등 성적인 내용을 연상시킬 수 있는 표현을 하는 행위 ③ '골반이 커서 애 쉽게 낳겠어', '섹시하게 생겨서 처녀 때 남자들이 장난 아니었겠어' 등 외모에 대해 평가를 하는 행위 등
시각적 행위	① 타인의 신체부위를 노골적으로 계속 쳐다보는 행위 ② 컴퓨터 통신이나 SNS 등을 통해 음란한 사진 · 그림 · 영상물 등을 보여주는 행위 ③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갖고 싶다, 같이 살자' 등의 지나친 애정표현이나 불륜을 제안하는 행위 등



❏ 학생이 교원에게 하지 말아야 할 사항 ❏

행위	성희롱 예시
육체적 행위	① 선생님에게 어깨동무나 팔짱을 끼는 등 과도하게 신체접촉을 하는 행위 ② 선생님에게 '사귀자', '나를 받아주지 않으면 죽겠다'는 등 지속적으로 쫓아다니거나 괴롭히는 행위 ③ 질문을 하는 척하면서 선생님의 신체 일부를 고의적으로 터치하는 행위
언어적 행위	① 선생님에게 '첫 키스 · 첫 경험에 대해 말해달라, 초경이 언제였냐'는 등 성적인 질문을 하는 행위 ② '얼굴은 별론데 몸매는 죽인다', '옷을 sexy하게 입는다'는 등 외모에 대해 평가를 하는 행위 ③ 교원의 성적 사생활 등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등
시각적 행위	① 벽면의 낙서나 대자보, 문건 등을 통해 선생님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행위 ② 휴대전화, 거울 등으로 선생님의 옷 속 등을 훑쳐보거나 촬영하는 행위 ③ 컴퓨터 통신이나 SNS 등을 통해 음란한 사진 · 그림 · 영상물 등을 보여주는 행위 등

❏ 학생이 학생에게 하지 말아야 할 사항 ❏

행위	성희롱 예시
육체적 행위	① 장난으로 입맞춤, 포옹 등의 신체적 접촉 행위 ② '뽀뽀하기', '여학생 눕혀 놓고 팔굽혀 펴기' 등 퇴폐적인 게임벌칙을 강요하는 행위 ③ 교제 중인 이성에게 스킨십을 시도했을 때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재시도 또는 역정을 내는 행위 등
언어적 행위	① 음담패설이나 야한 농담을 하는 등 불쾌감을 주는 성적 언행을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 ② '남자가 여자처럼 가슴이 나왔느냐', '여자가 가슴도 없느냐'는 등 외모에 대해 평가를 하는 행위 ③ '애인 있어? 어디까지 갔어?', '키스는 해봤어?' 등의 개인의 성적 경험에 대한 질문이나 'OO은 어디까지 가 봤대' 등의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등
시각적 행위	① 공개된 장소에서 음란사진이나 음란동영상 등을 보는 행위 ②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③ 컴퓨터 통신이나 SNS 등을 통해 음란한 사진 · 그림 · 영상물 등을 보여주는 행위 등

+ 학교 내 성희롱 · 성추행 대처법

| 피해자로 느껴질 경우 |

- 자신의 거부 의사를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의사표시하고 중단을 요구합니다.
- 서면이나 이메일,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으로 거부 의사와 피해자의 생각 · 느낌 · 영향 · 판단을 전달하고, 요구사항(사과, 재발방지 등)을 명확하게 표현합니다.
- 피해의 정황을 정확하게 기록해 보관합니다.
- 되도록 빨리 피해의 사실을 알리도록 합니다.
- 믿을 만한 친구, 가족에게 알리거나 학교 내 성고충상담원을 통해 공식적인 처리를 요구합니다.

| 가해자로 지목될 경우 |

- 상대가 자신의 언행에 거절하거나 거부감을 보일 때 즉시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입장에서 자신을 변호하거나 자신을 정당화하는 이야기를 해서 피해자를 더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 자신의 지위 등을 이용해서 보복하거나 더 크게 야단치거나 화내거나 하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 기억이 나지 않거나 변명을 하는 등으로 책임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즉각 이행하고 합당한 징계가 이뤄질 때는 이를 수용하도록 합니다.



+ 성폭력 사안 조사 및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절차

자치위원회 개최 여부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성폭력을 학교폭력의 유형에 포함하고있다. 따라서 피해자가 학생인 성폭력 사안의 경우 학교폭력에 해당된다.
- 각급학교 자치위원회는 성폭력 사안이 발생한 경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에 따라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를 심의하여야 하므로, 피해자가 학생인 성폭력 사안이 발생한 경우,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치를 심의·결정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 자세한 내용은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2014. 12)'을 참고하세요. 교원간 또는 교원-학생간 성폭력 사안 중 교원에 대한 처리는 여성가족부의 '2015 폭력예방 운영교육 안내(폭력예방교육과, 02-2100-6442)'의 내용에 따라 처리하시면 됩니다.

종례신문 활용하기 말이 필요 없는 효과 만점 '종례'

종례신문은 학생, 학부모와 신뢰를 쌓는 좋은 수단이다. 종례신문을 활용한 송형호 선생님의 사례(새교육 2013년 5월 호)를 통해 효율적인 학급운영을 해 보자.

+ 종례신문 만드는 법

- 전달 방과 후에 준비
- 평소에 좋은 글귀, 전하고 싶은 메시지 등을 틈날 때마다 모아 두었다가 필요시 검색해서 사용
- 주제별 속담도 시의적절하게 쓰면 효과적

+ 제작 관련 TIP

- 학교내 A4 크기 용지 이면지 활용(OMR 카드 이면지 등)
- 총 제작시간: 20분 내외

+ 종례신문의 효과

- 학생들의 자존감과 소속감을 향상시키는 도구
- 학부모와 자녀 간 소통의 으뜸 도구

+ 종례신문 참고자료: 즐거운학교 홈페이지(ket21.com)



1인 1역 종례팀장 학생의 소감문

종례신문을 처음 접했을 때 새로운 종례방법에 대해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종례신문은 그냥 선생님께서 말로 설명하시는 것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종이에 글로 써서 나눠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종례시간이 따로 필요 없어서 일석이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례신문을 읽으면 선생님의 진심을 알게 됩니다. 저희를 진심으로 아끼고 생각하시는 마음이 종례신문을 읽으면 저절로 느껴집니다. 선생님을 이렇게 가까이 느껴본 적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장점은 부모님과 대화시간이 늘었다는 것입니다. 종례신문이 생긴 후부터 제가 먼저 부모님께 다가가서 대화를 시작하고 종례신문에서 나온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이야기거리가 생기면서 대화 시간이 늘었고 늘어난 대화시간은 부모님과 거리를



좁혀주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저희 부모님께서도 저보다도 먼저 종례신문을 보시고 내용에 대해 물어보시며 저와 함께 상의하십니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부모님의 컴퓨터 실력도 높아가고 저와 부모님의 사이도 컴퓨터로 인해서 더욱 가까워지게 됐습니다. 저는 종례신문을 '저녁식사'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가족을 한자리에 모이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종례신문은 정말 대만족이고 앞으로 더 많은 선생님들께서 종례신문이라는 기가 막힌 의사소통을 함께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새내기 선생님!

선생님의 교직생활이
끝까지 보람차기를 함께 기원하며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새내기 선생님을 위한 교직생활안내

Contents

40 선배교사가 알려주는 교육활동 꿀팁

- 40 재미있는 수업 만들기
- 42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 44 서로 평가하고 배워요
- 45 학급 생활지도
- 47 안전한 학교 만들기
- 50 상담활동
- 53 체험학습
- 56 사랑받는 새내기교사 탐구
- 60 새내기 선생님의 자기계발

62 선배교사가 알려주는 학교급별 교직생활 적응 팁

- 62 유치원 - 새내기 교사의 빛나는 3월을 위하여
- 66 초등학교 ① - 두근두근 3월 '첫 출근'
- 69 초등학교 ② - 새내기 교사에게 알려주는 학교적응 꿀 tip!
- 74 중 · 고등학교 ① - 신규 교사로서의 마음 챙기기
- 78 중 · 고등학교 ② - 관리직, 선배교사에게 사랑받는 꿀 tip!



선배교사가 알려주는 교육활동 꿀팁 _ 재미있는 수업 만들기 1

+ 순간적인 몰입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연상퀴즈'

• 겪게 되는 문제

대학에서 전공 수업을 들으며 배웠던 내용을 떠올리며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내용으로 자료를 준비했다. 관련된 동영상도 찾고 교구도 준비해왔다. 수업이 시작되자 아이들이 반짝 반응을 보이는 것 같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집중력이 떨어지기 시작한다. 떠돌고 장난치는 아이, 엎드려 잠을 자는 아이... 어떻게든 수업을 해보려 하지만 그나마 수업을 듣고 있던 아이들도 나의 수업을 외면하기 시작한다.

• 그렇다면

수업을 성공적으로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이 갖춰져야 해요. 교육과정에 입각한 정확한 내용과 아이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자료들도 중요하죠. 하지만 무엇보다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아이들을 몰입시킬 수 있는 기법이 필요해요.

아하~!

수업 전 왁자지껄한 교실은 여느 교실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하지만 칠판에 동그라미 두 개를 그리는 순간 숨죽은 듯이 조용해진다. 제시어를 하나씩 적어갈 때마다 아이들은 더욱 몰입한다. ① 황금, ② 윌리엄 텔, ③ 잡아당김... 이때 여기저기에서 손을 든다, '화살'이라는 답이 나오자 자신이 맞추지 못했다는 아쉬움에서 나오는 탄식이 흘러나 오기도 한다. '땡~'이라는 선생님의 판정에 웃음이 터진다. ④ 백설공주라는 힌트가 나오자 '사과'를 정답으로 찾는다. 특별한 장치가 있었던 것도 아니지만 어떤 단어일지 연상하며 자 연스럽게 몰입하고 수업 속으로 빠져들게 된다.



• 이렇게 해 보세요

- 어떻게 진행되나요?

- 1) 우선 수업과 관련된 내용 중 핵심어를 단어로 추출
ex) 사회 시간에 배우는 '섬'을 단어로 골랐어요.
- 2) 단어와 관련된 내용들을 제시어로 미리 준비
ex) '섬'과 관련된 내용들을 찾아요. 동음이의어들에서 찾으면 더 재미있어요. (지층의 용기/단위/지하수의 유무/남해안에 많음/제주도)
- 3) 제시어를 순차적으로 노출
ex) 칠판에 동그라미를 하나 그려 1음절 단어임을 알려주고, 순서대로 제시어를 적어요.
- 4) 정답이 나오지 않을 때마다 점수 상향
- 5) 정답을 맞추면 각 제시어를 연결하여 설명

- 너무 쉽거나, 어렵지 않나요?

이 연상퀴즈는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중고등학교는 물론 성인들에게도 폭넓게 적용할 수 있어요. 특히 교원 연수 때도 인기가 높을 만큼 운영 방식 자체가 순간적인 몰입을 유도할 수 있어요. 어떤 단어를 어떤 제시어로 풀어주는냐에 따라 난이도의 변별이 가능하죠.

※ PPT 형식으로 만들어 갖고 계시면 어디서든 활용하실 수 있어요.

(panda0324@naver.com으로 연락주시면 개발된 문항을 자유롭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

선배교사가 알려주는 교육활동 꿀팁 _ 재미있는 수업 만들기 2

+ 매 시간이 기다려지는 '모둠수업'

• 겪게 되는 문제

아이들의 역동적인 상호활동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기에 모둠 수업을 준비하였다. 아이들이 함께 풀어갈 수 있는 과제를 부여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도 제시하였다. 활동을 하는가 싶었는데 서로 잡담을 하고 과제는 소수의 아이들만 고군분투하며 겨우겨우 끝내고 있다. 아무 도움도 주지 못한 아이들도 동일한 점수를 받아 아이들 사이의 불만이 커진다. 모둠 수업 자체를 노는 시간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다.

• 그렇다면

수업의 운영 형태는 교과목의 성격과 아이들 특성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아직은 미성숙한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모둠 수업을 성공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재미를 더하고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방식의 모둠수업을 적용해보면 어떨까요?

아하~!

학기 초 여섯 명의 팀장을 뽑는다. 팀장의 조건은 성적도 재능도 아니다. 팀을 잘 경영할 수 있는 포용력만 갖추면 된다. 학기가 시작하고 2주 정도 후에 드래프트 방식으로 팀장이 팀원들을 뽑는다. 구성된 팀으로 모둠 수업을 진행하며 포인트를 부여하여 관리하게 한다. 정기적으로 다른 학생을 영입하거나 팀에서 방출할 수 있다. 이때 포인트를 활용한다. 선수 교체보다는 팀워크를 높일 수 있는 활동을 주로 편성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팀은 구성원끼리 끈끈하게 한 학기를 보낸다.



• 이렇게 해 보세요

- 어떻게 진행되나요? (아이들이 많은 흥미를 갖고 있는 유럽축구 게임의 방식을 차용)

- 1) 모둠의 구성
 - 팀장들이 전체 학생 중에서 지명방식으로 뽑아 균등하게 편성
 - 후순위로 선발되는 학생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유의
- 2) 모둠 운영 방법
 - 기본 포인트 부여, 포인트의 누적 관리(가산과 차감 모두 가능)
 - 영입과 방출: 우수한 친구나 불성실한 친구를 팀 내에서 결정
- 3) 각종 활동
 - 모둠별로 경쟁할 수 있는 활동들에 포인트를 부여
 -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하면 수업의 흥미와 적극적인 참여를 높임
- 4) 우수 모둠 포상 및 반별 우수 팀 대항전

-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이 수업 방식을 적용한 지 10여 년이 넘는 것 같습니다. 수업에 흥미를 더하기 위해 시도하면서 차츰 발전시켜 나갔고, 2016년 코엑스에서 열린 '학교박람회'에서도 소개되었고 시도교육청 연수 내용으로도 활용된 바 있어요. 분명히 아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속적인 동기의 유지가 가능했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아이들 사이의 관계가 좋지 못한 경우에 피해를 받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죠.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 아이들의 관계가 개선될 수도 있고 학급 내에 숨겨진 문제를 찾을 수도 있어요.

※ 자세한 모둠 운영 방법은 한국교육정책연구소 자료실 2016 제 3차 교육과정 현장 포럼 자료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선배교사가 알려주는 교육활동 꿀팁 _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 교육과정의 재구성

• 겪게 되는 문제

임용을 보기 위해 공부했던 교육과정은 어느 새 지나가 버린 교육과정이었어. 수시로 바뀌는 교육과정 속에서 지금 아이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혼란스럽다. 다른 선생님들과 통합수업을 진행해보고 싶지만 이 역시 만만치 않다. 무엇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몰라 막막하고 수업 시간이 다가오는 것 자체가 두렵다. 어떻게 해야 할까?

• 그렇다면

예전의 교육과정은 어떤 내용을 어떠한 방법으로 가르쳐야 하는지 까지 구체적으로 밝혀놨었죠.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지만 2015 개정교육과정은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고, 교과 내는 물론 교과 간 융합도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어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 교육과정을 구성해간다면 수업도 즐거워질 거예요.

아하~!

환경을 주제로 수업을 디자인하기 위해 각 교과 선생님이 함께 모였다. (초등은 동학년 선생님) 환경 파괴의 심각성을 이해하는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 어떤 수업을 할 수 있는지 설계하였다. 우선 국어 교과 시간에 환경 파괴와 관련된 소설과 시를 찾아 함께 읽고, 도서관에서 환경 문제를 다룬 책을 모둠별로 찾아 정리할 수 있게 했다. 사회 교과시간에는 환경 파괴의 실태를 각 지역별로 조사하는 활동을 진행하기로 했다. 과학 교과시간에는 산성비가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실험과 수질정화기 만들기를 계획했다. 그리고 동아리 시간에는 함께 우리 지역의 환경지도를 그리기로 했다.



• 이렇게 해 보세요

- 교육과정의 재구성은 어떻게 하나요

- 1) 학기 시작 전 교육과정에서 필수 학습 요소 추출
- 2) 주제별로 유목화 및 정리
- 3) 동료 선생님들과 교육과정 구성 협의
- 4) 공동 자료 개발 및 수업 디자인

※ 학교에 수석교사님이 계시면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세요.

※ 단위 학교 내에서 준비가 어렵다면 지역단위 지원단, 교과연구회의 도움을 받으세요.

- 주제 통합 수업

미국의 학교를 중심으로 시작된 수업 형태로 주제를 정해 일정 기간 동안 여러 교과의 내용을 집중적으로 지도하는 방법이에요. 총체적 언어교육(Whole Language)이라고도 해요.

ex)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이 '벌'에 대해 학습하기로 했다. 문학 시간에 벌이 등장하는 동화 세 편을 읽고, 과학 시간에는 벌의 생물학적 특성에 대해 배운다. 사회시간에 집단생활에 대해 배우고 진로시간에 마을의 양봉업자를 초대해 이야기를 듣는다. 음악 시간엔 '꿀벌의 비행'을 합주하고 체육시간에 벌춤을 통해 의사소통을 시도한다. 가정시간에는 벌꿀로 만든 쿠키를 만들어 나누어 먹고, 다음 주에 지역 유치원을 찾아가 벌에 대해 설명하는 교육 봉사활동을 진행한다.

출처: Long Island Univ(1996), Whole Language

※ 주제 통합 자료와 관련하여 환경교육을 자유학기제의 시스템에 연결한 자료(2015 환경교육 대상)를 원하시면 메일(panda0324@naver.com) 주세요. 활용하실 수 있게 공유해드립니다.

선배교사가 알려주는 교육활동 꿀팁 _ 서로 평가하고 배워요

+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상호평가의 방법

• 겪게 되는 문제

아이들이 수업의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평가하기 위해 퀴즈도 준비하고 다양한 문항들을 만들어왔지만 아이들의 시큰둥하게 반응한다. 몇몇 아이들만 겨우 대답을 하여 실망이 크다. 수행평가에 들어가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하자 그나마 관심을 갖지 않아 한 번 더 상처를 받는다. 아이들끼리 서로 평가를 해보게 시키지만 친한 아이들에게 점수를 몰아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 턱없이 낮은 점수를 줘서 감정의 골만 깊어간다.

• 그렇다면

평가는 교수-학습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죠. 정규 교사가 점점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서열을 가늠하는 목적이 아닌 교육 본연의 가치가 훨씬 크다고 할 수 있죠. 어떤 부분의 보완이 필요하고 환류가 이루어져야 할지 중요한 정보를 얻는 것이 평가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평가자나 피평가자 모두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아이들에게 익숙한 스마트 환경을 활용하여 서로를 평가하는 방법을 써보면 어떨까요?

아하~!

모듬 수업이 진행되는 교실. 수업이 시작되기 전 모듬별 상호 평가지를 나누어준다. 평가지에는 어떤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는지 상세히 적혀 있다. 그 내용을 함께 읽어보며 방법을 숙지하고 수업에 참여하다보니 수업에 더 몰입할 수 있다. 수업이 끝난 후에도 온라인에서 활발한 상호평가가 이루어진다. 아이들은 더 이상 평가를 두려움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 이렇게 해 보세요

- 상호 평가의 방법과 원리

- 1) 평가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세요.
- 2) 사전에 충분히 숙지할 수 있게 해주세요.
- 3) 일회적인 평가가 아니라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익숙하게 해주세요.
- 4) 평가 결과를 아이들 스스로 환류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 평가의 객관성을 위해 최상점과 최하점은 제외하고, 평가 결과의 구체적 이유를 쓸 수 있게 해요.
※ 홈페이지를 이용해 온라인 평가를 해보세요. 댓글과 답글의 방식을 통해 상호평가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 결과가 아닌 과정을 평가해서 적어주세요

에세이 평가라고도 하는데요. 아이들이 에세이를 쓰는 것이 아니라 활동 전반에 대해 수필식으로 적어주세요. 성취도의 도달 여부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의 성장 과정에 초점을 맞춰 쓰도록 해요.

- 발산적 사고를 위한 열린 질문

아이들을 평가하기 위해 질문을 할 때 정해진 답을 찾아가게 하는 방법을 보통 많이 쓰게 됩니다. 내용을 얼마나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으로는 가능하지만 아이들의 창의적인 생각을 발전시켜나가기 위해서는 정해진 답보다는 열린 질문으로 다양한 답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중요해요.

※ 중등의 경우 평가에 있어 객관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매력적이면서도 합리적인 문항 출제를 위한 연습이 필요해요.

...

선배교사가 알려주는 교육활동 꿀팁 _ 학급 생활지도

+ 건전한 우리 반 문화 만들기

• 겪게 되는 문제

1년간 나와 함께 생활할 '우리반'이 생겼습니다. 아이들에게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지만 그렇다고 인기만 높은 선생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아이들이 나를 좋아하고 따르면서도 한편으로는 권위가 서고 때론 엄격한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 그렇다면

국가, 지역사회, 회사, 학교, 학급, 가정과 심지어는 작은 모임에서도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기 때문에 규칙과 절차가 있어 그 집단의 질서가 유지되고 공통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학급 운영을 위해서는 우리 학급만의 규칙과 절차가 필요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들이 가장 가깝게 접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규칙과 절차는 '법'입니다. 우리 반 학생들에게는 하루 중 많은 시간을 보내는 교실에서의 규칙을 제정하여 학생들의 생활에 통제력을 가지고 더불어 '담임교사'의 제제가 아닌 '학생 스스로가 제정한 규칙'의 제제가 되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사는 학급 규칙을 학생들과 함께 개발하는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할 것이며 교사가 의도적으로 학생이 따라야 할 행동절차를 개발하고 제반 학급활동을 전개하면서 이를 학생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학급규칙의 영역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학교 실정이나 학급 실태에 따라 가감하면 될 것입니다.

가. 학생들의 생활시간 중심

- 등교시간, 수업시간, 전 · 조례시간, 수업시간, 쉬는시간, 점심시간, 종례시간, 청소시간, 하교시간

나. 학급 활동 내용 중심

- 교실생활, 학교생활, 전체학급활동, 소집단활동, 기타

다. 교사의 학급 업무 영역 중심

- 학습지도 관련, 생활지도 관련, 학급(학교)행사 관련, 학급관리 관련

라. 학생의 활동 공간 중심

- 교실 생활, 복도나 운동장 생활, 특별교실 생활, 가정 생활, 사회 생활

아하~!

처음으로 담임을 맡게 된 우리 반. 내일이면 학생들이 함께 지켜야 할 『우리규칙』을 다같이 제정하기로 하였다. 물론 학생들의 자치활동시간에 학생 중심으로 제정하겠지만 그래도 1년간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적당부분 담임인 내가 개입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너무 많은 부분에서 내 목소리를 내게 된다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스스로 만든 규칙이라는



의미가 퇴색하게 될테니, 오늘 저녁에는 학급 규칙 제정 시 담임의 역할을 미리 생각해봐야겠다.

먼저 학급 규칙 제정에 앞서 우리 학교와 우리 반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작업이 필요하겠다. 그래야 우리 실정에 맞는 규칙이 만들어질테니.

먼저 고려할 점을 생각해보았다.

우리가 만드는 규칙은 벌을 주기 위하여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자신과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면서 학생들의 행동을 점검하도록 도와주는 지침 또는 기준으로 제공해야 할 것이다. 또 학생들의 인격적·학업적인 욕구들이 충족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수전략과 연계되어 개발 방향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학생에게 규칙의 준수만을 요구하고 학습과정이 학생 자신과 흥미에 대한 존중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우리가 만든 규칙은 그 의미가 퇴색하고 지켜지지 않을 것이니 유의해야겠다.

다음으로 『우리규칙』이 갖추어야 할 요건에 대하여 고려해보았다.

일단 모든 학생들이 규칙 설정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가능한 규칙들은 명확하게 진술되어야 할 것이며 그 가지 수가 많으면 안 될 것이다. 또한 학생들에게 합의된 규칙들에 대한 수락의사를 분명히 받아야 할 것이며 제정된 규칙을 학부모들에게 알려주어 학생들이 만든 규칙이 타인(외부)에게 인정되고 있음을 알려주어야겠다.

마지막으로 규칙을 제정한 이후 운영상의 유의점도 생각해보았다.

제정된 학급규칙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알리고 교실에 게시하는 것은 물론 모든 학급활동에 학급 규칙을 일관성있게 적용해야 그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교사인 나도 학급 규칙을 지키려는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며 모든 학생에게 똑같이 적용해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학급 규칙 준수에 대한 평가(체크리스트, 평가기록부 등)가 지속적으로 이루어 져야 할 것이며, 불합리한 학급 규칙이 발견 될 경우 학생들의 민주적 의사소통 절차를 통해 개정될 수 있음을 알리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

• **이렇게 해 보세요**

-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교사가 직접 학급규칙을 만들고 그 규칙의 필요성과 내용을 학생들에게 설명하는 과정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학급회의에서 학급의 실정을 고려하여 학급 규칙을 만들 때에는 규칙을 만들기 위한 대표를 구성하여 대표와 교사가 규칙(안)을 만들고 학급회의에서 통과시키는 절차로 제정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 학급 규칙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가정과의 연계지도도 중요합니다. 학부모도 학급 규칙과 관련된 규칙을 지켜 모범을 보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선배교사가 알려주는 교육활동 꿀팁 _ **안전한 학교 만들기**

+ 위기 순간의 동아줄 안전교육!

• **겪게 되는 문제**

대한민국의 가슴 아픈 사건 몇 가지를 꼽으라면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대형 사고를 빼 놓을 수 없지요. 세월호 사건 이후로 교육부에서는 연간 51차시 이상의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것도 체험위주의 수업을 진행하라고 합니다. 더군다나 안전의 영역이 7가지로 나누어져있으니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7대 영역을 체험위주의 안전교육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 **그렇다면**

百聞不如一見 百見不如一行

중국 한나라 선제가 서북방 강(羌)족을 평정하기 위하여 한 말이지만 안전교육에 더없이 어울리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체험위주의 안전교육이 필요하다고 줄기차게 외치는 것이지요. 안전교육 7대표준안에 따르면 안전교육의 영역을 7개의 대영역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생활안전, 교통안전, 폭력 및 신변안전, 약물 및 사이버중독, 재난안전, 직업안전, 응급처치가 바로 그것입니다.

체험위주의 안전교육은 수업의 주체가 학생일 때 이루어지는 수업입니다. 학생들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기회가 생긴다면 그것이 바로 백 번 듣는 수업이 아닌 한 번 행동하는 수업이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체험위주의 안전교육을 통해서 우리는 학생들에게 '안전의식'과 '위기대응능력'을 심어주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 할 수 있습니다.

아하하~!

영훈이는 숨이 막히도록 심장이 쿵쾅거린다. 여느 때와 같이 고장으로 올린 화재 경보벨 인줄 알았는데 벌써 교실예까지 검은 연기가 스멀스멀 스며든다. 진짜 불이다. 불현 듯 지난달 학교에서 실시한 화재대피훈련이 생각났다. '자세를 낮추고, 입과 코를 막고서 중앙계단과 동쪽 출입구를 통해 건물 밖으로 탈출한다면 무사할 수 있어!'



같은 반 학생들은 이미 이성을 잃고 허둥지둥 댕다. 밖으로 무턱대고 뛰어나가려는 석현이를 보고 큰소리로 외친다!

"석현아, 아직 문을 열면 안돼! 문에 절대 손대지마!"

우리 반에서는 문 밖의 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함부로 문을 열었다가 화염에 휩싸일 수도 있다는 지난시간의 화재안전교육이 떠올랐다.

가방을 뒤져보니 물티슈가 나왔다. 급한 대로 두 장씩 친구들에게 나누어주고 입과 코를 막게 하였다. 문의 온도를 체크, 뜨겁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조심스레 문을 열었다. 이미 천장은 검은 연기로 가득 찼다. 왜 자세를 낮추라고 하는지 알 것 같았다. 실내는 정전이 되어 무척 어두웠다. 영훈이는 탈출유도등을 따라 침착하게 낮은 자세로 동쪽 출입구를 향했고 같은 반 모든 친구들은 영훈이를 따라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었다.

• 이렇게 해 보세요

- 학교안전정보센터 자료 활용 수업

학교안전정보센터(<http://schoolsafekr>)의 안전교육자료실에는 현장의 선생님들이 수월하게 수업할 수 있도록 수업자료를 개발, 탑재하고 있습니다.



- 모든 안전교육을 체험위주로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요?

물론 모든 안전교육을 체험위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체험위주의 안전교육을 권장한다는 이야기이지요. 현장 체험학습이나 학교에서 실시하는 갖가지 실험, 실습들도 체험위주의 안전교육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행사 전에는 안전교육을 실시하기 때문이죠. 교육과정을 짤 때 교과분석을 통해 안전교육이 가능한 교과 및 단원을 안전교육을 편성해 놓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 주변의 교구 활용, 지역사회 연계 안전교육

조금만 둘러보면 안전교육을 지원해주는 지역사회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단위 소방서에서는 학생 초청 안전교육 및 이동안전체험차량을 지원하고 있으며, 가스안전공사, 도로교통공단 등 조금만 살펴보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들이 있어요.



선배교사가 알려주는 교육활동 꿀팁 _ 상담활동

+ 상담으로 이해하기

• 겪게 되는 문제

학기 초 학부모 상담기간은 교사에게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아직은 학생 파악도 어려운 짧은 기간 함께 지냈는데, 학생에 대하여 무슨 이야기를 부모님과 나눌 수 있을까요?

학생들과 생활을 하다보면 상담이 필요한 경우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인성이나 학업, 진로 등의 영역에서 학생들이 혼란스러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내가 학생들에게 정확한 답을 쥐어줄 수 있을까요?

• 그렇다면

교실에서의 상담은 크게 학생 상담과 학부모 상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상담의 기본은 내담자의 생각과 가치관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생상담은 기본적으로 모든 학생은 다 잘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임해야 합니다. 상담은 그들과의 만남의 관계를 형성하고 잃어버린 마음을 찾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내담자에게 긴장감이나 불안감을 주지 않고 친근감을 가지고 이야기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형성해야 합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다고 말해주기 보다는 학생 스스로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깨닫도록 도와주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상담자의 입장보다는 내담자의 입장에서 문제를 보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이므로 비판하거나 억압하거나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으로 상담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학부모상담이 필요한 이유는 학생에게 있어 부모라는 존재는 과거뿐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청소년기 부모-자녀 관계는 갈등이 증가하는 시기이니 만큼 학부모와 교사의 긴밀한 협조관계가 필요합니다. 가정교육과 학교교육은 확연히 구분될 수 없이 긴밀하게 얽혀있으며 서로 영향을 주고 받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학부모와 교사는 학생의 성장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할 팀이며 동료라는 의식을 가지고 상담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부모의 불편한 심경이 보인다면 이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며 학부모의 유형에 따라 접근을 달리하려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성공적인 학부모 상담을 위해 '준비'과정도 필요합니다.

아하~!

학부모 상담기간이 다가왔다. 학생들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되었는데, 과연 부모님들은 어떠한 분들이 상담을 신청하고 오실지 긴장이 된다. 나름대로 성공적인 상담을 위해 학부모의 유형을 나누어 대비책을 마련해보았다.

자녀의 성장을 위한 상담을 원하는 일반적인 학부모님께서는 부모님의 열의에 대한 지지를 보내며 학생 교육에 대한 의견을 나누자고 하면 될 것이다.

학생에 성취도에 대한 불평을 늘어놓는 학부모님께서는 최대한 공감적으로 이해하는 태도와 함께 학생의 변화를 위해 교사와 학부모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찾아보려는 시도를 하면 좋을 것이다.



자녀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는 형식적 방문자 유형의 학부모님께서는 자녀에 대한 작은 노력이라도 찾아 부모님에 대한 칭찬과 인정을 통해 학부모님의 관심을 키우는데 포커스를 두면 좋을 것이다.

상담일자가 다가왔다. 대비책을 세워놓아 마음이 한결 편안하다. 미주 어머니님께서 처음으로 들어 오셨다.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았다. 첫 마디가 그러하였다. '작년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교사의 경력이 짧고 연령이 낮아서 그런지...', '청소년기에는 다 그렇겠지만...'

미주의 잘못된 행동습관을 인정하기 보다는 주변 환경이 미주를 좋지 않게 만들어 간다는 누앙스의 이야기였다.

일단은 미주 어머니님의 불편한 심경을 공감한다는 표현으로 상담을 시작하였다. 사실 미주 때문에 속상했던 일들을 생각하면 한 시간을 이야기해도 끝나지 않지만, 최대한 미주 때문에 힘들다거나 골치가 아프다는 표현을 자제하였다. 미주의 긍정적 변화를 위해 가정과 학교에서 함께 노력하자고 하였고 추후 상담을 통해 더 이야기 하자고 말씀드렸다. 그리고 다음상담까지 미주에 대한 관찰기록이나 성취를 보여주는 다양하고 구체적 자료를 준비하겠다는 '메모'를 남겼다.

이어서 동현이의 어머니께서 도착하셨다. 미주 어머니와의 상담이 길어져 5분여를 기다리신 어머니께 먼저 죄송하다 말씀드렸다. 동현이 어머니는 자리에 앉자마자 동현이의 수업태도, 학교에서의 행동, 교우 관계에 대해 물으셨다. 또 어머니는 평소 동현이와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 편인데, 우리반 희주와 준영과는 사이가 좋아 항상 잘 지내는 편이고, 현서는 이기심이 많아 친구들이 멀리하는 스타일이라 좀 거리를 두고 지내라고 훈육하였다고 하였다. 그러고 보니 지난주에도 동현이가 현서와 함께 자리에 앉게 된 것이 싫다고 하였으며 자리를 교체해 줄 수 있는지 전화를 하셨던 기억이 떠올랐다.

뭔가 동현에게 지나친 간섭과 집착을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러한 어머니의 에너지가 동현이의 성장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방법을 고려해보았다. 동현 어머니의 양육방식이 약간은 부정적일 하게 느껴졌지만 절대 내색하지 않았으며, '학급일지'를 꺼내어 들고 지난 1개월간의 동현이의 학교생활 과정을 설명드렸다. 긍정적인 일도 있었지만 현서와의 관계에서 동현이의 문제행동도 나타났기에 동현 어머니의 표정이 썩 좋아보이지는 않았다. 아무래도 동현이와의 대화가 학교에서의 모든 사실이 드러나지는 않았던 것으로 생각되었다. 어머니께 어떤 생각과 느낌을 받았는지에 대해 묻고 학부모의 심정에 대해 이해하려고 노력하였다. 앞으로 동현이 관련해서 문제행동이 보이면 연락을 취해달라고 부탁해오셨다. 알겠다는 대답과 함께 오늘의 상담이 모두 끝이 났다.

내일 오실 학부모님은 과연 어떤 유형을 가지고 오실지 또 긴장이 몰려온다.

• 이렇게 해 보세요

- 학생 상담의 영역

상담의 영역	내 용
인성-사회성 영역	• 학생의 신체적, 정서적, 지적 성장과 발달을 이해함 • 자기개념과 사회적 개념을 개발함 • 또래관계를 이해하고 발달시킴 • 학교, 가족,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함 • 부모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익힘
학업영역	• 내적학습동기를 개발함 • 효율적인 학습기술을 개발함 • 미래에 대한 목적의식과 그것을 달성하는 방법을 개발함 • 자신의 강점과 능력을 기반으로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을 익힘
진로발달 영역	• 직업의 차이와 변화하는 남녀의 역할에 관하여 이해함 • 개인적인 흥미와 기호를 인지함 • 일과 놀이에서 타인들과 협동하고 공존하는 법을 배움 • 일을 한다는 것의 의미와 학교활동이 미래의 계획과 관련 있음을 이해함

- 개인(집단)상담, 부적응 학생 상담 등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여 상담부장(인성인권부장)과 긴밀한 협조체제 하에 Wee클래스(Wee센터)전문 상담교사와의 상담활동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학교에서 또래상담(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이를 활용하는 것도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 학업중단 숙려제 시행

「초·중등교육법」

제28조 ⑥ 학교의 장은 학업 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 중단의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학업 중단에 대하여 숙려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그 숙려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6.12.20.>

⑦ 제6항에 따른 학생에 대한 판단기준, 숙려기간, 숙려기간 동안의 출석일수 인정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신설 2016.12.20.>

학업중단 위기 학생에게 일정 기간 숙려 기회를 부여하고 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신중한 고민 없이 이루어 지는 학업중단을 예방하는 제도로 Wee센터, Wee클래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의 전문상담기관과의 상담을 통해 숙려기간을 진행하고 출석인정 할 수 있습니다.

...

선배교사가 알려주는 교육활동 꿀팁 _ 체험학습

+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다양한 체험학습

• 겪게 되는 문제

체험학습이라고 하면 어릴 적 우리가 도시락 싸들고 떠났던 ‘소풍’의 개념을 떠올리기 쉬운데요. 막상 교직의 문을 두드려보니 현장체험학습의 종류가 생각보다 많아서 당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다양한 체험학습의 종류와 대처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시다.

• 그렇다면

체험학습은 크게 ‘학교 간 교류 체험학습’, ‘가족 동반 현장 체험학습’, ‘주제별 학년 단체 체험학습’, ‘수학여행 · 야영 수련활동’, ‘야외 탐사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종류별로 알아보까요?

학교 간 교류 체험학습

- ① 학교별 자체 운영 계획 수립
 - 기간 : **연간 1개월 이내**
 - 내용 : 타학교와의 교류학습(위탁교육)
- ② 학교 간 교류체험학습 절차
 - 교류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수업운영방법 등) 제5항
 - 관련 학교장 상호 협의
 - 위탁 교육 의뢰서 송부
 - 협의 사항 학부모에게 통보
 - 교류 학습 실시
 - 위탁 교육 결과 통지서 송부

가족 동반 현장 체험학습

- ① 현장 체험학습 절차
 - 현장 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 현장 체험학습 신청서 승인(학교장)
 - 기간 : **연간 7일 이내**(천재지변이나 현지교통사정으로 인한 초과일은 출석인정 가능)
 - 내용 : 고적 답사, 향토 행사 참가, 친 · 인척 방문, 견학 등
 - 현장 체험학습 실시
 - 현장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주제별 학년 단체 체험학습

- ① 체험학습 절차
 - 계획수립→체험학습 장소에 공문 발송→계획에 따른 지도안 및 학습지 작성→체험학습 실시→개별학습지 작성 및 제출
 - 주제별 학년 단체 체험학습 관련 각종 양식
- ② 현장학습 및 수련활동 안전대책

수학여행·야영수련활동

- ① 기본 계획 수립 (수학여행계획) (야영 수련활동 계획)
 - 학교 교육과정에 대상 기간 명시
- ② 학부모 동의 : 70% 이상의 동의가 있을시 추진, 그 이하일 경우 계획을 변경하거나 취소함
- ③ 사전답사
 - 사전 답사 및 수학여행지 선정(숙박업소 후보 업체를 복수 선정하여 기준에 의거 실시)
- ④ 수학여행·수련활동 활성화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⑤ 계약 및 집행
 - 교통 (행정실에서 처리함)
(운전자 경력 최소 4년 이상, 재생타이어 사용여부, 정비기록부 확인,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의뢰 안전교육 실시 여부 확인 등)
(학생 현장교육 차량보호 표지 부착)
- ⑥ 유관기관 협조
 - 차량 호송신청(관할경찰서)
- ⑦ 사전 교육
 - 참가 인원 파악 및 모둠 편성 및 방 배정
 - 개인 준비물 및 사전 교육 실시(현장 학습지에 대한 사전 학습 활동지)
 - 전체 준비물 및 담당 교사 사전 안내
- ⑧ 사고 예방 및 대응
 - 준비물 확인 (개인 및 전체 준비물)
 - 출발 전 안전 교육 (승차질서 및 교통안전)
 - 현장 견학에서의 시간, 관람, 숙박 질서 지키기
 - 사안 발생시 보고 철저
- ⑨ 평가 및 사후 조치
 - 현장학습 공개방 공개 : 사전/사후 2차례 실시, 현장학습 종료 후 15일 이내에 평가하여 보고
 - 자체 평가 및 만족도 조사 : 활동 종료 후 5일 이내, 학생, 교사 대상 만족도 조사
 - 활동비 정산 및 결산 안내(10일 이내에 정산)

주제별 학년 단체 체험학습

- ① 기본 계획 수립
 - 야외 탐사활동의 목적 · 관련 교과, 탐사 장소 및 일정
 - 학생 이동 계획 · 예산 내역
- ② 사전 준비 내용
 - 탐사지 사전 답사 (학생들의 이동 경로 파악)
 - 개인 준비물 및 사전 안전 교육 실시
 - 탐사활동을 위한 모둠 편성
 - 모둠별 활동 범위 지정
- ③ 활동 내용
 - 현장에서의 학습 활동 안내
 - 탐사 범위 및 활동 시간에 대한 안내
 - 모둠별 또는 전체 탐사 활동 및 야외 탐사 기록장 기록
 - 질서 및 환경 보호 지도
- ④ 활동 후
 - 안전 귀가 지도
 - 활동 소감문 작성

아하~!

담임을 맡은 지도 4개월이 지났다. 우리반 아이들과 현장체험학습과 1박2일의 야영도 다녀왔더니 부쩍 친해진 느낌이다. 방학까지는 이제 3주가 남았다. 7월의 어느 날 아침 교무선생님께서 한 아이를 소개 해주셨다. 타 지역의 학교에서 교류체험학습을 신청하여 2주간 우리학교를 다녀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위탁교육 의뢰서를 공문으로 받았으니 2주 후에 '위탁 교육 결과 통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달라고 하셨다. 처음 듣는 소리에 어리둥절하였지만 학생을 그냥 세워둘 수 없어 알겠다고 대답하고 교실로 돌아왔다. 우리 반 반장 수아가 서류 한 장을 내민다. '가족 동반 현장 체험학습 신청서'였다. 앞으로 2일간 가족여행을 떠나 학교에 나올 수 없다는 말도 들었다. 나는 신청서를 교무, 교감, 교장선생님께 수기 결재 받아 스캔하여 보관해두었다.

이틀 후 수아가 학교에 돌아오는 날 '현장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나는 이 문서를 스캔하여 '현장 체험학습 신청서'와 함께 '출석인정결석'을 위한 내부기안을 해 두었다. 그리고 '현장 체험학습 신청서'와 '현장체험학습 보고서' 원본은 결석계에 첨부하기 위해 잘 보관하였다.

2주 후 타 지역에서 2주간의 교류체험을 마친 학생이 원래 학교로 복귀하였다. 나는 '위탁 교육 결과 통지서' 서식을 다운 받아 작성하여 교무선생님께 제출하였고, 이를 원 소속학교로 공문발송하였다는 말을 전해들을 수 있었다.



• 이렇게 해 보세요

- 학교마다 서식과 체험학습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약간씩 다를 수 있습니다. 체험활동의 활동 유형, 운영 방안, 연간 실시 목표, 당해 학교 이외의 기관(단체) 행사 참가 방법, 학생 개인 활동 방법, 인정 절차, 인정 범위 등은 시·도 교육청의 계획에 따라 학교별로 체험학습 규정을 학교장이 정하기 때문입니다.
- 대규모 학생이 숙박을 포함하는 현장체험학습에는 지켜야 할 수칙들이 매우 많고 복잡합니다. 교사가 처리해야 할 일과 행정실에서 처리해야 하는 일을 잘 구분하여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 관련 서식은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 업무편람이나 교무학사 매뉴얼로 작업되어 게시할 수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선배교사가 알려주는 교육활동 꿀팁

사랑받는 새내기교사 탐구-(1)인물탐구편

+ 복잡한 교직의 인간관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 겪게 되는 문제

신규교사가 학교에 들어선 첫걸음, 아이들보다 먼저 마주하게 되는 사람은 교직원들입니다.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수석교사, 선배교사, 부장교사, 동학년교사, 행정실, 실무사 등등 너무 많은 직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이 맡은 일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유지 발전시켜나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복잡하고 머리아픈데 그냥 대학때처럼 편하게 동학년 선생님하고만 친하고 아이들하고만 잘 지내면 되지 않을까요?

• 그렇다면

직장인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일이 힘들게 아니라 사람이 힘들다'. 학교생활도 마찬가지로 일이 아무리 재미있어도 오랜 시간 같은 공간에서 교류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편하지 않다면 생활의 질이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구성원들의 위치와 역할을 정확히 이해하고 대한다면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학교사회 구성원 중 특히 교사와의 상호작용 빈도가 높은 교직원의 역할과 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 이렇게 해 보세요

- 교장선생님과의 관계

교장 선생님은 학교 경영의 총책임자입니다. 교직경력으로도 선배이고 나이로도 높은 연배이므로 웃은 인상과 인사예절은 각별히 지켜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과할 정도로 친근하게 대하는 것도 동료에게 눈총을 살 수 있고 지나치게 경직되는 모습도 좋지 않습니다. 교장선생님의 경영철학과 성향을 잘 파악하여 적절한 수준의 래포(신뢰 및 친근감)형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선배교사들로부터 교장선생님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알아두는 것도 교직생활에 유용한 하나의 팁이 될 수 있습니다.

- 교감선생님과의 관계

교감선생님은 학교장과 교사사이에 교량적 역할을 수행하는 중간관리자입니다. 교사들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잔소리를 하는 경우가 많지만 직책상의 역할 수행으로 인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이해하면 마음이 편해지겠네요. 직책의 특성상 일이 많고 스트레스도 많을 수 있으니 웃는 얼굴로 먼저 인사를 드리는 것 만으로도 교직생활이 한결 편해질 것입니다.

- 수석교사와의 관계

수석교사는 교사가 교장, 교감들의 보직을 맡지 않으면서 동료교사를 지도하거나 교육청의 장학활동을 지원합니다.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으시니 수석선생님들께 수업, 교육과정등과 관련된 의문사항을 상담할 수 있습니다.

- 선배교사와의 관계

선배교사는 출신과 나이를 떠나, 교직선배로서의 예의를 갖추는 편이 좋습니다. 젊은 또래의 선생님들끼리 어울리다가도 선배교사가 오면 밝은 모습으로 웃으면서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여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선배교사를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나에게 좋은 일입니다. 선배교사들로부터 인정받는 교사들은 모든 일이 수월하게 잘 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에는 승진을 포기한 선배교사들이 있는데 흔히 교포(교감포기)교사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들만의 소신

있는 교육철학과 학급경영관을 가진 선생님들이 많이 있으니 여쭙어보고 배우기를 권합니다.

부장교사는 계급은 아니지만 학교경영의 중요한 축입니다. 보통 학년, 부서별 업무를 총괄하시는 분입니다. 호칭은 (○○○)선생님 보다는 “○○○부장님”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 동학년 교사와의 관계

학교에서 가장 많이 소통하고 교류하는 집단은 동학년 선생님들입니다. 새내기 교사이니 만큼 먼저 다가가서 인사 하고, 먼저 나서서 다과나 음료를 준비하고,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키며 정리까지 도와주면 사랑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학급특색활동을 하거나 교육과정을 재구성 할 때 학년부장님을 중심으로 한 동학년 선생님들과 상의하여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도 하나의 지혜입니다. 동학년에서 얻어진 인간적 평가는 곧 금세 학교전체로 퍼져 나가게 되니 늘 긍정적인 마음과 태도를 가지시고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 학교내 비공식 조직

학교 내의 비공식조직에는 같은 출신대학의 동문회, 미혼 교사들의 모임인 처총회, 기타 동아리 모임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비공식조직에는 반드시 소외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비공식 모임에서의 일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티를 내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비공식모임에서는 친함 정도에 따라 편한 호칭과 반말 등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근무시간 내 또는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는 경어를 사용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으니 주의하는 편이 좋습니다.

...

선배교사가 알려주는 교육활동 꿀팁

사랑받는 새내기교사 탐구-(2)처세편

+ 달콤살벌한 학교생활, 지혜롭게 살아남기!

• 경계 되는 문제

사례 1 동학년 분위기가 뒤숭숭합니다. 한 선생님은 학년 결정에 자꾸 태클을 걸고 결정에 따르지 않습니다. 학년 부장님이 기분이 상하시고 단합이 전혀 안되네요. 회의때마다 불편합니다.

사례 2 운동회가 끝났습니다. 선생님들이 다 함께 정리하러 나오라는데 솔직히 피곤하고 귀찮습니다. 저 혼자 들어가려니 눈치보이는데 학년부장님을 따라 조용히 들어가야겠네요.

사례 3 선배님이 본인의 일을 저에게 떠넘깁니다. 제가 신규라서 뭘 모른다고 생각하셔서 그런걸까요? 아니면 저에게 무언가를 가져주시기 위해 그런걸까요? 친한 선배셔서 거절하기도 그렇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그렇다면

교직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보니 불합리한 상황과 사람간의 갈등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한 상황은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는데요, 신규들이 마주할 가능성이 높은 불합리 및 갈등상황을 알아보고 어떤 마인드로 교직생활에 임해야 할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 이렇게 해 보세요

- 사례 1 '폭탄'이 되지 않기

학교에는 대개 1명씩은 사고방식이 보통사람과는 다른 선생님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선생님이 학교내에서 문제시 되는 것은 공동체 생활에 피해를 주거나 학년·학교 단합에 큰 장애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학교 또는 학년의 합의사항을 자의적 판단에 따라 뒤집거나, 의도적으로 따르지 않으려하기 때문에 학년의 분위기를 일거에 싸늘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주변 교사의 '휴직' 또는 '명퇴'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보통 그런 교사를 현장에서서는 '폭탄' 또는 '트러블메이커'라고 부릅니다. 당연히 신학기 새 학년을 결정할 시기에 기피대상 1호가 됩니다. 그런 교사는 대부분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소신대로 일을 했으며 자랑스러워하고 자신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동료를 원망하는 사례를 많이 보아왔습니다. 자신을 객관화 시키려는 의지와 능력도 교사가 갖추어야 할 중요한 소양입니다. 학교생활에서 자신의 개성을 찾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런 중에도 공동체 생활에서는 가능한 온화하고 유한 분위기를 만들어갈 줄 알아야 하며, 단 한 사람과도 적의 없이 지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글을 읽는 새내기 선생님들은 단 한명도 '폭탄'으로 성장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 사례 2 꿈수부리는 교사에 대한 시선

사례 2는 꿈수를 부리는 교사의 예입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꿈수를 부리는 사람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꿈수라는 것은 사실 아무리 감추려고 노력해도 결국은 눈에 띄기 마련입니다. 특히 신규교사에게는 모든 이의 관심이 집중되기 때문에 더 눈에 띄며, 자칫 첫인상이 나쁜 이미지로 각인될 수 있습니다. 교직에는 누군가는 꼭 해야 하지만 아무도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아주 많습니다. 크고 작은 행사의 준비와 뒷정리가 대표적입니다. 우리나라 포퓰러적인 정서상 선배들이 일을 할 때 후배가 핑계를 대거나 은근슬쩍 도망다가는 모습에 대한 시선은 절대 곱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 '누가 뭐라든 신경쓰지 않겠다'라고 마음먹을 수 있지만, 따가운 시선과 낙인, 뒷담화등을 온몸으로 견디어 내야 합니다. 행복한 학교생활을 원한다면, 선배, 동료, 후배들로부터 사랑받는 새내기 교사가 되고 싶다면 늘 협조적이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 사례 3 나에게 일을 떠넘긴다는 생각이 들 때

신규교사가 현장에 오면 선배님들이 이것 저것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가끔 선배의 부탁이 합리적이지 않고 '떠넘기는 것이다'라는 인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이것을 도와드려야 할지, 거절한다면 어떤방법이 현명한 것인지 잘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판단이 쉽지 않은 이유는 업무의 성격, 업무분장, 선배교사가 처한 상황, 선배와의 관계 등이 다각적으로 얽혀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선 선배교사의 업무분장에 있는 일을 '떠 넘기는' 것인지, 아니면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의해 '부탁하는' 것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후자의 상황이라면 좋은 일 한다는 마음으로 기분 좋게 도와드리는 편이 좋습니다. 하지만 전자의 경우는 명백히 부당한 상황으로 느껴지지만,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고 얼굴을 마주치는 선배이니 만큼 딱 잘라서 거절하기는 부담스럽습니다. 한 두 번 정도는 일을 배운다는 마음으로, 좋은 일 한다는 마음으로 도와드릴 수 있지만, 같은 상황이 반복된다면 본인의 솔직한 의사를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업무가 어느 부서 관할인지 확인한 후 완곡한 표현이지만 핵심을 담아 선배교사에게 직접적으로 의사를 전달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규교사라고 해서 선배의 불합리한 부탁을 수락해야 할 이유는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각적으로 생각해보지 않고 무조건 '내 일도 아닌데 왜 내가 이 일을 해야하지?'라고 생각하고 접근한다면 자칫 오해가 생길 수 있고 관계가 틀어지는 나쁜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충분한 사고와 고민을 거쳐 최선의 방법을 찾아낸 후에 언행에 옮기는 지혜로운 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 그래서 우리는

신입교사 시절에 만난 학년부장님이 해주시던 말씀이 떠오릅니다. '먼곳을 내다보라. 무슨 일을 하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해라. 부정적인 마음은 너를 괴롭힐 뿐이다'.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도 전하고 싶습니다. 순간의 편함과 눈앞의 이익 추구한다면 훗날 중요한 것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긍정과 협조적 마인드는 나에게 더 많은 것을 가져다준다는 사실을 이 글을 읽는 새내기 선생님의 꼭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 ● ●

선배교사가 알려주는 교육활동 꿀팁

사랑받는 새내기교사 탐구-(3)관계의 기술 편

+ 사랑받는 새내기교사 되기! 어렵지~ 않아요~

• 겪게 되는 문제

발령 동기 친구는 원치 않게 빠릿빠릿 움직이고 눈치도 빠른 것 같습니다. 친구에 대한 칭찬이 학교에 자자한게 제 귀에도 들리네요. 그에 반해 저는 내성적이라서 그런지 뭘 어떻게 해야할지도 모르겠고 눈치도 없는 것 같아서 위축이 됩니다. 사람들은 왠지 발령동기 친구와 저를 비교하는 것 같고 저는 한없이 작아지지만 하네요. 저도 이쁨 받고 사랑받고 싶어요. 도대체 친구와 저의 차이가 뭔지, 꼭 알아두어야 할 인간관계의 기술은 어떤 것인지 알려주실 수 없나요?

• 그렇다면

새내기교사는 발령과 동시에 학교 전체의 관심대상입니다. 그래서 원하던 원치않든 새내기교사의 일거수 일투족은 동료교사들의 눈에 띄게 되고 평가되고 비교되기 마련인데요. 그 대상이 단순히 '수업기술'과 '업무능력'뿐인 것은 아닙니다. 사랑받는 새내기 교사에게는 분명 눈에 보이지 않는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아니, '기본적인 것'이 잘 갖추어져있다고 해야할까요? 사랑받는 새내기교사가 되기 위한 6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립니다.

• 이렇게 해 보세요

1. 먼저 다가가기

새내기 교사는 적극적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선배들이 먼저 다가오기를 바라는 것은 옳은 순서가 아닙니다. 마주쳤을 때 먼저 인사하기, 모르는 것이 생겼을 때 먼저 가서 물어보기, 장점을 발견했을 때 먼저 칭찬하기 등 새내기 교사가 '먼저' 다가가야 할 일은 많습니다. 그래야 상대방도 따뜻한 마음으로 가슴을 열게 되겠죠?

2. 미소짓고 인사하기

미국의 저명한 소설가 마크 트웨인은 '인류에게는 정말로 효과적인 무기가 하나 있다. 바로 웃음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웃는 얼굴로 인사를 하면 첫인상이 좋게 심어질 수가 있고 친밀감이나 호감도 신뢰도 상승에 큰 기여를 합니다. 웃으면서 예의 바르게 인사 잘 하는 사람은 좋은 인상으로 기억에 잘 남는 법입니다. 여러분은 미소짓고 인사하고 있나요?

3. 물어보고 경청하기

모르는 것이 있어도 선배교사에게 물어보기가 민망하거나 일에 방해가 될까봐 혼자서 일을 처리하려고 하다보면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선배들은 무조건 혼자서, 알아서 하기를 바라지만은 않습니다. 먼저가서 물어보고 경청하세요. 묻는다는 것은 자신을 발전시키려고 노력한다는 뜻입니다. 선배의 실력과 경험을 인정하다는 뜻이기도 하지요. 경청한다는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표시입니다. 입장바뀌어서 생각해봅시다. 누군가 나에게 물어보고 내 대답을 경청해준다면 호감이 가지 않나요?

4. 험담하지 않기

학교생활을 하다보면 누군가에 대한 불만이 나옵니다. 그 대상이 관리자일 수도 있고 동료교사일 수도 있고 학부 모임수도 있고 학생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학년모임 등 비공식적 모임에서 타인에 대한 험담은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조하지 않기를 권합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한 이야기가 일시적인 심적 안정감을 줄 수는 있을

지연정 그러한 인간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히려 부메랑이 되어 돌아와 자신을 해치기도 합니다.
사람은 불완전한 동물입니다. 누구나 실수를 하게 되지요. 험담을 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처지를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 사람만이 가진 장점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자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5. 도움주기

학교에서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특히 큰 행사에는 많은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일을 추진하는 선생님의 입장에서 먼저 부탁하기는 부담스럽습니다. 그 와중에 신규교사가 먼저나서서 도움의 손길을 내민다면 그 보다 더 감사한 일은 없습니다. 먼저나서서 도와준다는 것, 인간관계도 돈독해지고, 평판도 좋아지고, 업무경험도 쌓이고, 일석삼조 아닌가요?

6. 칭찬하기

많은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칭찬' 교육을 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할 긍정적인 에너지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 뿐만 아니라 선생님들도 칭찬에 목말라 합니다. 옷차림, 장신구등을 비롯한 외모, 성격, 수업 기술, 업무능력, 인간미 등 칭찬의 대상은 무궁무진 합니다. 매일 아침 동료선생님을 칭찬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어떨까요?

선배교사가 알려주는 교육활동 꿀팁 _ 새내기 선생님의 자기계발

+ 끊임없이 스스로를 업그레이드하는 교사되기!

• 겪게 되는 문제

- A교사** 6학년을 맡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생활지도와 학급경영에 너무 취약한 것 같아요 어떻게 더 배워야 할까요?
- B교사** 저는 아카펠라를 매우 잘 합니다. 저의 재능을 살려 아카펠라를 좋아하시는 선생님과 함께 공연도 하고 수업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 C교사** 저는 대학교 졸업하고 더 공부하고 싶은 분야가 생겼습니다. 학위취득과 함께 더 넓은 안목을 갖추고 싶어요.

• 그렇다면

교육에서 가르치는 일과 배우는 일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는 말처럼 교사 개인의 능력은 교육의 성패를 좌우하게 되기 때문에 교사는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갈고 닦아야 합니다. 자기계발의 이유와 목적은 A교사, B교사, C교사처럼 각기 다릅니다. 이번 장에서 선생님들의 역량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 이렇게 해 보세요

- **A교사** 교사연수 (직무연수, 자율연수)
A교사는 고학년을 맡으며 생활지도와 학급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각각의 주제에 맞는 직무

연수과정에 참여함으로써 고민에 대한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직무연수는 교사의 자발적 필요에 의해 수시로 연수활동에 참여하여 교직수행능력 향상에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배양하기 위한 연수입니다. 연수과정은 학습지도, 학급경영, 생활지도, ICT · 스마트, 인문 · 교양, 어학, 자격증 등 매우 다양합니다. 직무연수는 NEIS 인사기록에 등재되어 시간 수에 따른 학점(15시간당 1학점)을 인정합니다. 연수시행기관은 교육부 인가를 받은 기관으로 2017년을 기준으로 원격교육연수원(38개), 시도교육연수원, 대학 부설연수원, 지역교육청 연수원등이 있습니다. 연수형태는 연수는 100%출석으로 진행되는 집합연수, 100%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원격연수, 두 연수의 혼합형태인 집합연수가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소프트웨어 교육, 스마트교육, 아카펠라, 스킨스쿠버, 스키, 댄스, 골프, 배드민턴’ 등 다양한 분야의 능력개발을 위한 활동중심의 연수과정이 다수 개설되고 있으니 꼭 챙겨보기를 바랍니다.

- **B교사** 교과교육연구회(전문적학습공동체) 참여

B선생님처럼 자신이 강점을 지닌 분야, 자신이 흥미와 관심이 있는 분야의 전문성을 함께 키워나가고자 하는 선생님이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지역교육청별로 조직된 교과교육연구회(전문적학습공동체)에 참여하기를 권유합니다.

• 교과교육연구회(전문적학습공동체)란?

교과교육연구회는 각 지역교육청별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학교내에서도 전문적학습공동체를 조직하여 운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교외 교과연구회는 매년, 수시로 회원들을 모집하며 각종 연수 및 세미나를 열고 교과와 학습지도에 대한 정보를 교류합니다. 교과교육연구회를 통해서 새로운 학습방법이나 효과적인 교수법 등을 배우고, 선배들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하며 관심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을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 교과교육연구회(전문적학습공동체)의 종류는?

교과교육연구회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국어, 수학, 사회, 미술 음악, 체육등 교과중심 연구회 뿐만 아니라 배드민턴, 아카펠라, 놀이수업, SW교육, 연극 · 뮤지컬 특정분야 중심의 교과교육연구회도 있습니다. 다만 연구회가 ‘진짜 연구를 위한’ 모임인지, 아니면 이름만 연구회이고 ‘단순 친목도모를 위한’ 모임인지 성격을 잘 파악해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교과교육연구회(전문적학습공동체)의 일원이 되려면?

기존연구회 활동을 하고 있는 교사의 소개, 공문을 보고 신청하는 방법, 연구회 담당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C교사** 대학원 진학

C교사와 같이 학위 취득과 함께 학문을 더 깊이 탐구하여 전문성있는 진로를 개척하고자 하는 선생님은 대학원에 진학합니다.

대학원에는 일반대학원과 교육대학원이 있습니다. 교직을 유지하면서 대학원을 다니기 위해 야간대학원이나 계절제 대학원을 진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간대학원의 경우는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학교장의 허가하에 조퇴, 출장 등의 합당한 사유를 통해서만 진학이 가능합니다. 또한 석 · 박사위는 승진 연구점수의 혜택도 주어지기 때문에 많은 선생님들이 진학하여 학위를 취득하고 있습니다. 석사 및 박사를 취득하면 교직내에서도 전문성을 발휘할 다양한 기회가 생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 외에 전문기관으로 파견,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도 합니다.

선배교사가 알려주는 학교급별 교직생활 적응 팁

유치원

새내기 교사의 빛나는 3월을 위하여

이선희 서울 성산초병설유치원 교사

선생님들께 맡겨진 아이들의 얼굴을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오르지만 또 한편으로는 수업, 생활지도, 부모상담, 행정업무 등의 제반 관련 업무 중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가장 반짝이어야 할 3월을 위해 몇 가지 안내하고자 합니다.

I. 새내기 교사의 빛나는 3월을 위하여

1. 수업 시 교사의 효과적인 상호작용

• 유아의 요구와 질문에 민감하게 대응하기

- 유아의 발달과 행동특성 이해, 유아의 언어적 · 비언어적 행동 인식
- 긍정적인 방법으로 행동 지도하기(자존감을 키우는 데에 필수적)
- 또래간의 상호작용을 긍정적으로 격려하기
- 자유선택 놀이시간에 교사가 적극적으로 참여(관찰, 개입)하기
- 교사와 유아의 상호성 발전시기: 유아의 생각과 표현을 먼저 이해하고 행동하며 대화 하듯이 의사소통을 주고받는 것이 중요

Ⅱ. 각 발달 영역에 따른 수업 시 교사의 발문

• 언어발달에 적절한 발문

- 보다 완전한 문장으로 재 진술 하기(예: 사과가 되었어요→사과 씨가 자라서 사과가 되었구나)
- 의미를 확장시켜 재 진술 하기(예: 눈사람을 보고 숫자 '8' 이라고 하는 유아 → 눈사람의 모양이 숫자 '8'과 비슷하게 보이는 구나)

• 인지발달에 적절한 발문

- 유아가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에서 이탈 되지 않도록 발문
- 지시적 문장보다 유아의 사고를 촉진시키는 발문
- 개념을 확장하는 발문(색연필과 크레파스의 같은 점은? 다른점은?)
- 교사가 발문 후 유아가 답을 하도록 충분히 기다리기
- 유아의 틀린 답을 이용하여 의미있는 학습 활동으로 전개

• 신체발달에 적절한 발문

- 동작의 표현에 대해 발문하기(신체표현 수업시 “○○이는 다리를 움직여서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구나”)
- 지시적 문장보다 유아의 사고를 촉진 시키는 발문하기(“공을 던지기 시작할 때 다리는 어떻게 하고 있니?”)
- 방금 일어난 일을 회상하기
- 말하면서 동작하기(효율적 학습이 됨)

• 사회 · 정서 발달에 적절한 발문(수용적 언어)

- 정서의 언어화: 언어로 감정 표현 및 이해하기
- 조용히 들어주기, 인식에 반응(“그랬니? 아 그렇구나”)
- 적극적 경청하기(“정말 속상했겠구나, 아주 신났겠다”)

2. 분리불안 장애 대처법 및 여러 유형의 학부모 대처법

- 분리불안장애에서 유아들이 흔히 나타나는 불안증세는 유아가 부모와 떨어지는 것을 분리불안으로 느끼는 것이다. 유아가 유치원을 처음 갔을 때 입구에서 엄마와 떨어지는 걸 거부하는 증상이다. 이럴 때는 처음엔 엄마와 유아가 함께 수업을 하다가, 며칠 뒤에는 엄마가 교실 밖이나 떨어진 공간에서 지켜보고 있고, 그 이후에는 유치원 밖이나 다른 방에 가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엄마와 점차 떨어지는 훈련을 하는 것이 좋다. 분리불안은 유아의 성장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으니 부모와 교사가 먼저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한다.

• 자기 자식에게만 신경 써줄 것을 요구하는 부모

-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수용한 후, “하지만, 모든 아이들이 부모들에게는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모든 유아들에게 고루 관심을 둘 수 밖에 없다.”고 부드럽게 이야기한다.
- 다른 사람의 관심을 나누어 갖고, 서로 부딪치는 과정에서 유아의 사회성과 정서가 발달한다는 것을 알려준다.

• 경험이 적은 교사를 아랫사람 대하듯 하는 부모

- 아무리 경험이 적고 나이가 어리다고 해도 교사는 교사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라도 교사의 권위를 인정해야 한다. 만일 그렇지 않는다면 그 유아는 학급에서 교사의 말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점을 부모에게 알려준다.
- 교사와 부모는 서로 협조해야 하는 관계이며, 서로 존중하여야 한다. 위아래가 있을 수 없다. 만일 부모가 교사를 무시하거나 아랫사람 대하듯 한다면, 분명한 어조로 “저는 ○○를 책임진 선생님입니다. 저를 아랫사람 대하듯 행동하시니 불쾌합니다.”라고 이야기한다.
- 기관장의 행동이 매우 중요하다. 교사가 경험이 적다고는 하지만 유아교육을 전공했고 경험 많은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아에 관해서는 부모보다 더 잘 알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스승임을 상기시켜 주어야 한다.
- 유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평가 내용을 부모에게 자세히 설명해 준다면 교사에 대한 신뢰가 생긴다.

• 빠른 변화를 원하는 부모

- 부모가 바란다고 해서 유아가 금세 변하고 발달하는 것은 아니다. 변화와 성장은 생물학적, 인지적, 환경적 조건이 갖춰졌을 때 일어나는 것이다. 교사는 부모의 조급함에 동조해서는 안된다. 교사는 부모의 성급함 속에 깔려있는 기대와 소망을 수용하면서 변화의 때가 있고 그 시기를 준비하면서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차분히 설명해 주어야 한다.
- 유아의 성장과 발달, 그리고 변화하는 때가 있다는 것을 설명한다.
- 유아의 변화는 기관뿐만 아니라 부모의 협조와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준다.
- 유아가 준비되었을 때 자극을 주고 끌어주는 것이 아이에게 최상의 결과를 안겨 준다는 것을 설명한다.
- 부모의 조급함이 오히려 유아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것이 좋다.

• 자녀를 객관적으로 파악하지 못하는 부모

- 어떤 경우이든 부모가 자녀를 객관적으로 보지 못할 때, 교사의 관찰만 가지고 이야기 하게 되면 교사-부모 관계가 깨질 위험성이 있다. 이럴 때에는 반드시 검사와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해서 객관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 특히 부모들은 자기 자녀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한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마치 자신이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 이럴 때 우선 유아의 장점에 대해 충분히 인정해 주고 난 후 검사 결과와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면서 조심스럽게 몇몇가지 부족한 점을 조금 노력한다면 더 좋을 것 같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
- 갑작스럽게 한꺼번에 유아의 문제 행동을 알리기보다는 자주 전화통화를 한다든지, 메모를 자주 주고 받는 등 학부모와 어느정도 친밀감을 쌓은 후(이유는 부모가 교사의



이야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차근차근 하루일과를 평이하게 이야기하듯 조금씩 유아의 상황을 인식시켜 주는 것이 좋다.

- 유아의 문제점이나 단점을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장점을 함께 이야기한다.
- 교사 자신의 경험과 인상에 의지하기보다는 심리검사나 전문가의 평가와 같은 권위에 의지해서 유아의 문제를 부모에게 알려준다.
- 유아의 문제와 관련된 소책자나 책을 읽어보라고 알려주거나 직접 건네준다.
- 전문가를 초빙해서 유아와 아동기 발달 장애, 행동 장애 등에 관한 강좌를 여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II. 미리 알아두면 필요시 요긴한 업무들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구성되며, 교육활동 중 각종 분쟁 사안을 조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심의·자문기구입니다.

※ 유치원의 경우 교권보호위원회 구성은 유치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성함.

①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설치 규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 ①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유치원을 제외한 각급 학교에 교권보호위원회를 두며, 유치원에는 유치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교권보호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2.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선도 등의 조치
3.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4. 그 밖에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 학생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시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역할

- 긴급 조치(긴급을 요하는 경우 피해교원 보호 및 경찰 신고)
- 보고 및 조치
 - 사건 발생 시기, 내용 등 정황과 경중을 파악하여 학교장에게 즉시 보고
 - 필요한 경우 피해교원의 수업 · 담임 · 행정 업무 일시적 제외 및 대체
- 조사 및 중재
 - 사고 경위서 작성, 목격자 진술 확인, 증거 자료 확보 등 사실관계 조사
 - 피해교원 및 침해 학생 · 학부모 면담 등 갈등 중재
- 심의 및 통보
 - 사건 처리에 관한 선도위원회 회부 및 학교장 결정 요청
- 상급기관(교육청) 지원 요청
- 해결 확인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③ 학부모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시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역할

- 긴급 조치(긴급을 요하는 경우 피해교원 보호 및 경찰 신고)
- 보고 및 조치
 - 사건 발생 시기, 내용 등 정황과 경중을 파악하여 학교장에게 즉시 보고
 - 필요한 경우 피해교원의 수업 · 담임 · 행정 업무 일시적 제외 및 대체
- 조사 및 중재
 - 사고 경위서 작성, 목격자 진술 확인, 증거 자료 확보 등 사실관계 조사
 - 피해교원 및 침해 학부모 면담 등 갈등 중재
- 상급기관(교육청) 지원 요청
- 해결 확인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 **저작권 관리:** 저작권 관련 법제와 올바른 저작물 이용 방법에 대한 인식을 통해 저작권 침해를 예방하고 교사의 직무능력 향상을 높이하고자 합니다.

업무흐름도

용어의 정의

| 관련근거 |

- 저작권법
- 저작권법 시행규칙

저작권 이해

| 참고자료 |

- 저작권 용어 사전
- 홈페이지 운영자를 위한 저작권 해설

업무 단계별 처리 방법

① 저작물 정의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함.

② 저작자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하며, 저작권법은 저작자를 자연인(개인)에 한정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업무상 저작물에 한하여 법인·단체 및 사용자를 저작자로 인정

③ 저작권의 발생

• 무상식주의.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방식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이런 점에서 특허청에 출원하여 등록이 되지 않으면 권리가 발생하지 않는 산업재산권과 다르다.

① 학교교육 목적 이용의 저작권 제한 사유(저작권법 제25조)

- 유아교육법 제정('04.1)에 따라 유아교육법에 따른 학교와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에서도 수업 또는 지원 목적상 필요한 경우 저작권 제한 사유가 적용됨.

② 올바른 저작물 이용방법

- 저작권 바로 알기(문화체육관광부)

③ 올바른 저작물 이용단계(출처 :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교실)

- 어떤 저작물을 이용할 것인지를 결정
- 저작물이 보호받는 것인지 확인
 - 보호기간 확인
 - 저작권법에서 정하고 있는 저작물인지 확인
- 저작물 이용방식이 저작권법상 허용되는 방식인지 확인
- 저작권자에게 저작물 제목과 이용하려는 방법을 알리고 허락 받기
- 허락을 받은 범위 내에서만 이용
 - 저작자 표시, 출처 표시를 명확히 하고 사용

④ 매월 26일은 '저작권 보호의 날'

⑤ 관련 사이트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2017년 3월 2일 수요일 날씨: 봄바람 타고 내 마음도 솔솔

오늘은 첫 출근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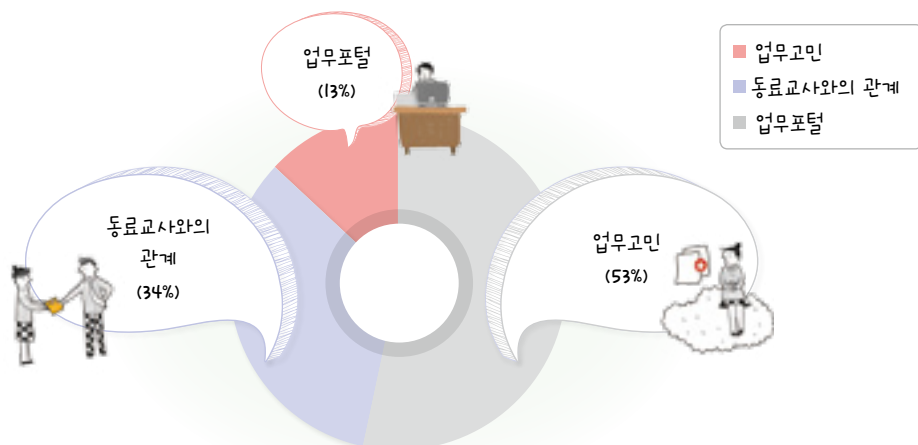
첫 출근을 맞아 새로 산 예쁜 정장을 입고 등교했다. 내가 올해 맡은 아이들은 6학년 3반. 신규 교사에게는 무조건 6학년을 맡긴다는 선배들의 말은 사실이었나 보다. 업무는 모두가 기피한다는 방송. 우리반 아이들에게 인사도 못하고 당장 첫 출근부터 개학식 방송 때문에 정신없는 아침을 보냈다. 마치고 교실로 가보니 이런! 아이들이 첫날부터 싸우고 교실은 쑥대밭이다. 개학식 첫날부터 아이들에게 잔소리 폭풍을 쏟아내고 나니 마음은 편치 않다. 갈아놓은 학교 메신저에 메시지는 또 왜 이리 많은지. 수업 다 마치고 메시지를 읽어보는데 무슨 일을 먼저 처리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휴~ 앞으로 일 년, 정말 어떡하지?

-신규 교사 윤00의 일기-

치열하던 임용고시를 끝내고 설레는 마음으로 첫 출근을 하는 신규 교사라면 누구나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느낄 것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업무량, 실습 때 봤던 귀여운 아이들과 우리 반 아이들의 차이, 학부모 상담할 때의 어려움, 선배 교사와의 관계 등 신규 교사들은 직장 생활이라는 측면에서 학교에서의 어려움에 부딪히게 됩니다.

신규교사들이 3월 한 달 동안 겪는 어려움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업무, 동료 교사와의 관계, 업무포털 사용 방법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신규교사의 고민 top 3 |



·부산시 00교육청 소속 신규교사 대상 설문(2016. 11. 2.)

3월 한 달 설레는 마음으로 출근하는 신규 교사들이 조금 덜 헤매길 바라는 마음으로
3월달에 꼭 챙겨야 하는 것을 'Q&A' 형식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업무,
이것만은 꼭 기억해요!

Q1. 학교에 출근하니 이미 저에게 업무가 배당되어 있더군요. 전년도에 그 업무를 맡았던 선생님은 이미 다른 학교로 가서서 물어볼 곳이 없어요. 어떡하죠?

A1. 전년도 업무 담당자가 없을 때가 제일 난감한 상황이죠. 제일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전년도 업무 담당자가 남겨놓은 파일이나 기록물이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이것은 교무 보조 선생님(교무 실무원)의 도움을 받으세요. 파일이나 기록물은 문서나 혹은 전자 문서의 형태로 보관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걸 보면서 학기 초부터 학기말까지 어떤 순서로 업무들을 처리해야 하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Q2. 하루에도 업무 관련해서 수십 통의 메신저가 오는데 무엇을 먼저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A2. 휴대폰의 카○ 기능과 마찬가지로 학교에서는 편하게 업무 사항을 교환하기 위해서 메신저를 씁니다. 보통 선생님들께서 언제까지 업무를 처리해달라고 안내하시는 메시지가 많이 올 텐데요. 이때 필요한 것이 수첩과 책상달력입니다. 수첩이나 책상달력에 제출 기한을 정해 놓아야 놓치는 일 없이 업무 처리가 가능하답니다. 그리고 대체로 중요하게 추진해야 하는 업무는 교무부장님께서 '주간 업무 추진계획' 파일을 만들어 메신저로 보내 주시니까 그걸 인쇄해서 미리미리 체크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Q3. 3월에 각 학교에서 공통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업무가 있나요?

A3. 네. 개학식 첫날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할 것이 각반의 아동들 명단인데요. 뒤에 설명할 것이지만 업무포털 '나이스'의 학적 부분을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간혹 반 아이의 이름이 누락되거나 다른 반 아이가 들어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다음으로 기초시간표를 등록하셔야 해요. 이건 나중에 보결 배당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꼭 등록하셔야 됩니다.

동료 교사와의 관계,
이것만은 꼭 기억해요!

Q1. 학교에 가보니 정말 선생님들의 연령대가 다양합니다. 동학년 선생님들 나이가 다들 많으신데요. 거의 피동갑 뵈는 나이 많으신 선배님들과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A1.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인의 기본예절인 '인사'를 잘 하는 것입니다. 먼저 밝은 표정으로 인사를 하는 것이 관계의 시작입니다. 출근과 퇴근 시간 모두 인사를 하면 좋지만 출근 시작에는 바쁠 수도 있으니 퇴근 시간이라도 인사를 하면 좋지 않을까요?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하는 여러분에게 선배들은 조금이라도 더 많은 것을 알려주고 싶어 할 것입니다.

Q2. 동학년 선생님들이 다들 좋으신데 유독 저와 맞지 않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학교에 계시는 다른 선생님께 이야기하면 소문이 날 것 같고..... 동료 선생님과의 갈등,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A2. 교직 사회는 좁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 나쁘게 말을 하면 본인의 평판만 안 좋아집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갈등이 있는 선생님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너무 어렵다구요? 알다시피 개개인은 개성이 저마다 다른 존재입니다. 동료 중에서도 나와 유독 잘 맞는 교사가 있는 반면, 유독 불편한 교사가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는 비단 교직 사회뿐 아니라 모든 직장 사회에서 새내기들이 당면한 과제이기도 하죠. 그럼 갈등을 겪고 있는 선생님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바꿀 수 있냐구요? 그 선생님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선생님이 상대방에 대해 적대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상대방도 눈치 채기 마련입니다. 먼저 마음을 열고 우호적으로 대해보세요. 환하게 웃으면서 먼저 인사하고 다가가 보세요. 당장은 힘들겠지만 선생님을 대하는 상대방의 태도가 조금씩 변화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업무포털,
이것만은 꼭 기억해요!

Q1. 업무관리시스템에서 공문 작성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A1. 업무관리시스템은 행정기관이 업무처리의 전 과정을 과제관리카드 및 문서관리카드 등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보통 표준서식(결재4인, 협조4인)을 이용하여 공문을 작성하게 됩니다. 표준서식을 클릭하면 문서관리카드기안 화면이 나오는데요. 제목, 과제카드, 업무유형, 대국민공개여부, 목록공개여부, 직원열람제한, 결재경로를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 작성은 상대방이 이해하기 쉽게 간결하고 짧은 문장을 사용해서 적습니다.

| 본문 작성 요령 |

1. 관련: ^V유초등교육지원과-1234(2017. ^V3. ^V4)
2. _____ 제출/보고/추진/(하고자) 합니다. ^{VV}끝.

Q2. 나이스? 그게 뭔가요?

A2. 나이스의 세계로 입문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성적 처리, 출결 등 학교에서 상당 부분의 업무를 나이스(NEIS)로 처리하는데요. 신규 선생님들은 아직 나이스 권한이 없기 때문에 본인 학교에 나이스 담당자 선생님에게 말씀드리면 권한을 받을 수 있어요. 3월에 우선적으로 체크해야 하는 나이스의 중요한 메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 <학적>탭 - '기본신상관리'에서 반 아이들의 기본신상, 주소, 가족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결'에서는 아이들이 결석, 출석인정결석 등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 <교육과정>탭 - '시간표관리'탭에서 기초시간표 검증 및 반영을 할 수 있어요.

▶〈학생생활〉탭 - 학기말 아동들의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상황을 기록할 때 이용합니다.

Q3. 반 아이 한 명이 결석을 하게 되었는데 가족체험학습을 신청해도 되냐고 묻네요. 그런 어떻게 하는 건가요?

A3. 가족체험학습은 출석인정결석이에요. 나이스 〈학적〉탭의 출결에서 △표시를 합니다. 보통 가족체험학습일 경우에는 학교에서 신청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관하게끔 되어 있어요. 출석인정결석은 출석이 인정되지만 학기말 성적 처리할 때는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결석한 날을 빼서 시수를 계산해 주어야 합니다.

▶참고문헌▶

2016년 유·초등학교 신규교사 직무연수(부산광역시교육연구원)

초등학교 2

새내기 교사에게 알려주는 학교적응 꿀 tip!

남정미 경남 증산초등학교 교사

학년과 반이 결정되고 내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1년 동안 학급이 아무런 탈 없이 운영되기를 바라고 또 바라는 것이다. ‘아무런 탈이 없다’는 말에는 학생과의 소통, 안전사고, 학교폭력, 학업 성취도, 학부모님과의 관계 등 다양한 것들이 포함된다. 그 다음으로 하는 것이 1년간의 학급경영 방법을 표로 작성하여 내 자리에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는 일이다.

학급경영의 질은 담임교사의 역할이나 자질에 의해서 결정된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학급경영은 교과지도나 인정지도를 포함한 포괄적이면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려면 학급경영을 구상하고 전개하는데 있어서 학급을 어떠한 원칙에 입각하여 어떠한 방향으로 운영하겠다고 하는 학급경영의 지침 내지 원리가 필요하며, 체계성 있는 목표 설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학급경영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교사로서의 지속적인 발전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한다.

첫째, 우리 반만의 학급 경영 계획을 세워요!

초등학교의 교육목표는 아동의 학습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능력 배양 및 기본생활 습관을 형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한 학급의 학급경영은 학교경영목표를 기초로 하여 학년경영목표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학급이 개성을 충분히 나타내면서 학년경영 방침을 인정하고 상생하는 상태에서 학급경영은 성공을 이룰 수 있다. 매일 학급경영일지를 쓰면서 내 교육철학과 학급경영 방법을 점검하는 것도 필요하다. 학기 초에 내 나름의 학급경영일지를 스프링노트 형태로 만들거나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교무수첩을 활용하면 좋다. 경영일지를 쓰면서 수업을 미리 설계하고 수업을 통한

반성도 할 수 있으며, 1년간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갈 학급의 모습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수시로 체크할 수 있다.

| 학급 경영 목표의 예시 |

몸과 마음이 건강한 어린이, 함께하는 즐거움을 아는 배려하는 어린이
자신감이 가득한 긍정적인 어린이, 독서로 생각을 쏙쏙 키우는 어린이

둘째, 학생들과 마음을
나눌 방법을 찾아요!

• 일기 쓰기와 댓글 달기

아이들의 인권침해 문제로 일기검사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지만 일기 댓글 달아주기가 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임은 부인할 수 없다. 아이들은 일기를 통해 선생님과 함께 고민을 이야기하고 해소함으로써 몸도 마음도 건강한 아이로 거듭날 수 있다. 주제일기(내가 투명인간이라면, 하루 동안 부모님과 역할 바꾸기를 한 후의 느낌 쓰기 등)를 교사가 다양하게 제시하여 일기의 내용을 풍부하게 할 수 있다. 일기를 통해 아이들의 개성 있는 생각을 엿볼 수도 있고, 학교에서와는 다른 가정에서의 모습을 파악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 레크리에이션을 통한 놀이를 수업 적용하기

학교는 즐거워야 한다. 교사가 다양한 레크리에이션 방법을 습득하여 교과 및 생활지도에 활용하면 아이들은 수업 시간을 즐겁게 인식한다. 예를 들어 과학이나 통합교과의 '동물의 한 살이'를 학습할 경우 '알, 병아리, 닭, 왕' 레크리에이션을 활용하여 놀면서 배우고 배우면서 노는 것 같은 느낌을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간단한 박수(하나 더하기 박수, 하나 빼기 박수 등)도 수업 중간에 활용함으로써 집중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한다.

- '알, 병아리, 닭, 왕' 놀이: 전체 아이들이 앞에서부터 시작하기, 각 단계의 몸동작(알은 머리위로 둥근 알 모양 만들기, 병아리는 빼악 소리를 내며 날개짓 하기, 닭은 꼬꼬덕 소리를 내며 닭벼슬 모양을 손으로 만들기)을 함께 정해서 몸동작만 보고 나와 같은 단계의 친구들을 찾아감, 같은 단계(알은 알끼리, 병아리는 병아리끼리, 닭은 닭끼리)의 아이들끼리만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사람은 다음 단계로 진화하기, 진 사람은 전 단계로 퇴화하기, 닭과 닭이 만나서 이긴 사람은 '나는 왕이다'를 크게 외치며 자리에 앉아 친구들의 놀이과정을 지켜보기(본 놀이는 물의 증발 등 변화의 단계를 거치는 교과 및 수업 내용에 활용 가능함)
- 하나 더하기 박수, 하나 빼기 박수: 교사가 말 또는 손으로 표현하는 숫자보다 하나 많이 박수를 치거나 적게 치게 하여 집중도를 높임(저학년 수의 크기 비교 수업 시 활용 가능)

셋째, 좋은 수업을
설계해요!

• 수업 설계 시 고려할 점

교수 · 학습목적 확인(학습을 마친 후 학생들의 도달점), 교수 · 학습내용 분석(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학습), 학습자의 특성 분석(학년별 특성 고려), 수행목표 기술(학습될 성취행동과 그 실행조건), 평가도구 개발, 수업전략 개발, 수업자료 개발, 평가와 피드백 방법 설계, 교수 · 학습 단계 수정, 학습효과 측정 등을 고려하여 수업을 설계한다.

흥미 있고 의미 있는 수업, 학생을 존중하는 수업, 쉬운 수업, 학생의 배움이 스스로 일어나는 수업, 자기 주도적 능력을 키워주는 수업, 발문을 잘 하는 수업, 경청을 잘해주는 수업이 되도록 고민한다. 스스로 수업 모습을 촬영해서 스스로 교수방법의 장 · 단점을 파악하고 수정해 나가는 방법도 많은 도움이 된다. 동학년 교사들 또는 수업에 대해 생각을 나누고 싶은 교사들끼리 서로의 수업 촬영내용을 보고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다.

넷째, 좋은 수업 기술을
키워요!

• 좋은 수업 기술을 가진 선생님

좋은 수업을 위해서 교사는 학생들과 마음으로 만나야한다. 우선 긍정적이고 허용적인 수업 분위기를 통해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다. 교사는 수업 중에 높임말을 사용하며 부드럽고 따뜻한 표정을 지어야 한다. 또한 칭찬을 많이 하는 교사, 꾸중을 제대로 하는 교사의 모습을 보여야한다. 다양한 발표 방법(전체 발표, 물레방아 발표, 빙고 발표, 모둠대표 발표, 짝 발표 등)을 통해 수업을 효과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다. 초등교사는 전과목을 지도해야하므로 지도서를 참고하여 각 과목의 목표, 수업모형, 핵심성취기준에 따른 수업을 설계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 전체 발표: 파도타기처럼 모든 아이들이 한명씩 이어가며 발표하기
- 물레방아 발표: 모둠활동 시 모둠(4명)안에서 서로 돌아가면서 발표를 하고 경청하기
- 빙고 발표: 전체가 일어섰다가 한 명이 먼저 발표를 한 후 내가 생각한 발표 내용과 발표한 친구의 발표 내용이 유사하면 빙고라고 외치면서 자리에 앉기
- 모둠대표 발표: 모둠구성원 중 모둠의 해당 번호(모둠 구성원이 4명일 경우 모둠원 각자에게 1~4번까지의 번호를 부여함)의 학생이 임의로 발표하기
- 짝 발표: 짝끼리 서로 발표를 하고 경청하기

다섯째, 학교폭력 없는
학급을 만들어요!

• 모둠활동을 통한 상호 작용하기

협동학습, 배움중심학습의 여러 가지 모둠 구성 방법을 활용한다. 이끔이(모둠의 리더 및 활동 진행), 기록이(모둠칠판 기록 및 활동 기록), 깔끔이(모둠 자리 정리 및 교과서 준비확인), 정돈이(모둠 바구니 담당) 등의 모둠구성원의 이름과 역할을 정한 후(모둠 구성원의 명칭 및 역할은 변화 가능함)에 각자의 역할에 맞게 활동한다. 모둠 바구니에는 모둠 활동에 활용하는 각종 학습 자료들을 비치하고 모둠 활동 시

가져와서 활용한다. 고학년을 지도할 때는 모둠통장제도를 운영하여 모둠 간 선의의 경쟁 및 자발적 모둠운영이 되도록 한다. 모둠은 짝교체와 연결해서 월별, 계절별로 학년 및 학급의 특성(학급인원수도 고려)에 따라 바꾼다.

학생생활지도는 모둠활동과 연결 지어 자신의 역할에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연계한다. 모둠 구성원 간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강한 소속감을 조성하여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다.

- 모둠통장제도: 은행 통장에 입금, 출금을 하는 방법처럼 학급 회의를 통해 학급공동 규칙(입금, 출금의 행동 내용)을 정한 후 모둠활동을 하면서 모둠원끼리 점수를 관리하는 방법, 교사는 모둠통장의 입금과 출금 상태를 지속적으로 체크하면서 지나친 경쟁, 무임승차, 책임 떠넘기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해야함

여섯째, 아이들이 주인 의식을 갖도록 해요!

• 1인 1역할과 환경정리

학기 초, 1인 1역할을 나눌 때 아이들이 자신의 역할을 선택할 수 있게 한다. 스스로 역할을 선택하면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다. 1인 1역할은 아주 세세하게 구분(불고기 도우미, 우유 도우미 등)하여 아이들이 1개의 역할을 꼭 맡을 수 있도록 하며 그 역할의 도우미가 되어 학급에 큰 도움을 주고 있음을 강조한다. 교실은 교사만의 공간도 아니며 아이들만의 공간도 아니다. 교사와 함께 아이들이 각자의 1인 1역할에 최선을 다하면서 교실 환경정리도 같이 해나갈 수 있다.

일곱째, 학부모님과 소통 하고 공유해요!

• 알림장으로 소통하기

알림장은 학급경영의 결정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알림장을 잘 활용하면 학습적인 면, 인성적인 면, 가정과의 연계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안전교육으로 강조하는 내용을 항상 알림장 1번 항목으로 고정적으로 적도록 하는 것도 좋다.(차조심, 불조심, 낯선 사람 조심 등) 알림장 내용이 많거나 학부모님들과의 소통이 필요한 경우는 교사가 일괄적으로 작성하여 아이들이 알림장에 붙여갈 수 있도록 하며 아닌 경우는 아이들이 바른 글씨로 직접 쓴다. 또한 저, 고학년 구분 없이 학부모들의 사인이나 확인을 받아오도록 하는데 학부모님들은 알림장 내용을 통해 학습내용 및 학교의 중요한 전달사항을 알 수 있다. 알림장 내용은 학급홈페이지에 함께 탑재하여 사이버상으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클래스팅(classting) 어플, 투데이 알림장 등(각 교육청별로 명칭은 상이함)을 이용하면 휴대폰으로 바로 알림장 공지 및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용하다.

• 가정통신문으로 공유하기

학교에서는 다양한 학교 활동 및 행사 안내를 가정통신문 형태로 발송한다.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보내는 안내장 외에도 교사가 부모교육에 도움이 되는 자료(신문기사,

책 내용 등)을 월별로 준비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후 안내장으로 배부할 수 있다. 학부모님은 교사의 학급경영철학 및 부모교육 방법을 알 수 있어 교사와 지속적으로 소통이 가능하다. 교사가 안내한 교육방법 및 부모교육, 훈계방법 등의 안내장 내용을 냉장고 문에 딱 붙여두고 챙겨본다는 학부모님도 있다.

여덟째, 지속적으로 자기계발을 해요!

• 연수 참여하기

평소, 방학 중 다양한 연수를 통해 자기계발에 힘쓴다. 각 교육청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연수는 공문을 통해 정보를 접할 수 있다. 또한 근무하는 지역 외의 타지역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연수를 듣고 연수 이수 학점 인정을 받을 수도 있다. 특히 교사는 교과 내용 및 수업 기술과 관련된 연수를 통해 폭넓은 지식과 기능을 성장시킬 수 있다.

• 연구대회 참가하기

교육부, 교육청, 한국교총에서는 매년 다양한 연구대회를 안내하고 있다. 이는 공문이나 각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한다. 교사는 개인 또는 팀을 이루어 전문성 신장을 위해 교실수업개선실천사례 연구대회, 수업연구교사 발표대회, 현장교육연구대회, 교육자료전 등에 참가할 수 있다. 교실 현장에서 안고 있는 문제에서 출발하여 주제를 선정하고 그 문제점을 학급경영 및 수업을 통해 해결하고자 노력한다. 연구대회 참가 후 수상하면 나이스 연구실적에 기록되며 승진점수도 받을 수 있다.

나는 아직도 매일 교실로 출근하는 일이 즐겁고 설레고 감사하다. 하지만 이런 감정을 지금까지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은 학급경영에 대해 고민했던 시간들이 있었기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나는 아이들의 연예인이 되고 싶다. 가장 멋진 모습으로, 가장 신나는 수업으로, 가장 소통을 잘 하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 혹시 신규 선생님들이 우리 반을 위해, 교사로서의 발전을 위해 뭔가 해볼까 고민하고 있다면 '지금, 바로' 시작하라고 권하고 싶다. 다음으로 미루고 있기에 1년간 우리는 반 아이들에게 못해주고 가는 것들이 참 많다.

▶ 참고자료 ◀

1. 황순희(2009). 다중지능 학급경영. 시그마프레스.
2. 가위바위보(2010). 놀이로 하는 학급경영. 우리교육.
3. 박진환(2008). 아이들 삶의 리듬을 잇는 학급 운영. 우리 교육.
4. 박병량(1997). 학급경영. 서울:학지사.
5. 최수중(2004). 실습을 위한 지도강화자료. 서울교육대학교부설초등학교.
6. 경남양산교육지원청(2012). 초등 신규 교사 교직생활 길잡이.

• 신규 교사로서의 마음 챙기기 •

가. 조금씩 많이 해주려는 마음보단 서로를 '이해하기'부터

교사가 되면 하고 싶었던 일들이 얼마나 많았나요? 여러분은 이미 넘치는 열정을 갖고 있으실 테니 보다 침착하고 현명해지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교사로서 꿈을 펼칠 날들이 30여 년 넘게 남았으니, 올해는 학교와 학생들이 어떤 곳인지 주로 겸손히 배워야 할 시기이지요. 학생에게 설부른 충고와 지도보다는, 일단 경청의 자세로 이해하고, 학생들로부터도 많이 배우려는 노력을 보이세요.

'이유를 알기 전까진 혼내지 않는다. 이유를 알고 나면 혼낼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 선생님께서 학생들에게 화내는 걸 본 사람은 그 이후로 아무도 없답니다. 아이들의 이상한 성격이나 행동들도, 따지고 보면 자연스럽게 찾아왔다 사라지는 '성장통'이거나, 자라온 환경 혹은 신체 · 정신적 건강의 문제이니깐요. 교사를 '정원사', 혹은 '산파'라던 교육학의 지식들이 괜히 강조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으실 겁니다. 담임이 신규라서 많이 가르쳐주고 도와주지 못한다고 자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학생들은 어차피 스스로 성장하는데, 여러분은 '먼저 태어나고 배워서 깨달은 사람'으로서 여러 가능성과 방법을 안내하고 도와줄 뿐입니다.

2017 신규교사: 전 올해 배운 게 있다면 아이들이 이상하고 힘든 것은 그런 나이이기 때문이라는 거였어요. 때가 되면 알아서 바뀌더군요. 물론 그 사이에 여러 영향을 받았겠지만, 뭔가 교사가 되면 아이들이 나를 만나서 드라마처럼은 아니지만 전보다 좋아졌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건 오만이고 면봉의 근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그래도 막상 힘든 아이들을 보면 열폭하지만요. 잘 데리고 있다가 잘 보내주기! 요정도의 목표? 애들보다는 제가 변해야 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연수 때 신규 쌤 만나서 정말 끝도 없이 고충을 토로했거든요.

숨기지 않고 저는 일이 생기면 무조건 어떻게 해야 할지 주변에 이야기해서 도움 받았거든요. 저보다 경험 많은 동료 쌤에게 물어봐서 그 대사 그대로 다 외워서 이야기할 때도 있었어요. 저처럼 임기응변 없고 말 못하는 사람에게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물론 <돌봄치유교실>의 신규카톡방(http://cafe.naver.com/ket21/10000)도 좋았고요!

올해 신규교사들에게 절대 일벌이지 말라고 얘기해주세요.

일이나 신경써야 할 모토는 무조건 하나만! (물론 능력이 되면 다 하셔도 되지만) 의욕으로나 기분 내서 이것저것 하면 힘만 들고 성의 없고 신뢰만 잃어요.

전 배운 걸 다 실현해 보려했다가 인력도 못하고 칭찬도 못하고 캠핑도 못하고 급훈도 잘

안 되고 인사도 잘 못하고 단합도 잘 안 되고 그랬습니다. 수행평가도 망했어요.

수행은 무조건 1년차에는 내가 검토하기 쉬운 거 그때그때 체크해서,

나중에 쌓아놓고 검사하지 않을 것을 추천합니다!



나. 중요한 건 마음이야!

사회에서의 성공과 개인의 행복 성취는 ‘학교에서 배운 지식의 양’보다는 GRIT(Growth Mindset, Resilience, Intrinsic Motivation, Tenacity의 약자로 대인관계력, 자기동기력, 그리고 자기조절력을 통한 성장을 의미함)에 의해 결정된답니다. 〈인성이 실력이다(조벽)〉, 〈노는 만큼 성공한다(김정운)〉 등의 책에도 정리되어 있듯이, 이제는 지식암기 위주의 공부에서 벗어나 미래 역량을 기르기 위한 교육혁신의 흐름이 뚜렷합니다.

공부 더 하라고 학생을 다그치거나, 학생이 잘못하는 것을 지적하고 혼내는 것이 교육적으로 효과가 적다는 건 이제 상식이지요. 성적과 과잉 경쟁 스트레스로 인한 만성 우울과 학교폭력, 자살 등이 훨씬 심각한 문제입니다. 학생이 잘 되길 바라며 했던 말들을 학부모가 심지어는 녹음까지 해서 교사를 언어폭력 인격모독의 학폭 가해자로 징계요구하기도 합니다. 앞으로는 교사부터 즐겁고 긍정적인 마음을 개발하여 학생들에게 전파하고, 학생 스스로 배우고 익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야말로 교사에게 요구되는 덕목이며 현명함이라 하겠습니다.

다. 담임의 교육철학 정립 - 경청, 신뢰, 협력

“어릴 때부터 난, 아주 약하고 울보여서 참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었는데,
그때마다 우리 선생님이 날 믿고 항상 내 편이 되어 주셨어. 내가 너희들 편인 것처럼 말이야.
난 무조건 너희들 믿는다. 배신하지 마라.”
-영화, 〈반지점프를 하다〉 중에서

임용시험 면접 대비를 위해 고심했던 여러분의 교육철학을, 이제 현장에 펼칠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교육철학은 여러분과 학생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줄 겁니다.

저의 기본적인 원칙은 ‘경청, 신뢰, 협력(서로 잘 듣기, 믿기, 돕기)’입니다. 아래와 같이 대원칙을 제시하며 학생들에게 이해를 구합니다. “나도 너희 말에 귀 기울일 테니, 너희도 내 말에 귀 기울여줘.” “너희를 무조건 믿는 게 나에게 가장 쉬운 일이야. 그래도 거짓말하고 배신하는 사람은 언제나 있지만, 그건 아직 깨닫지 못해서, 나쁜 습관을 아직 고치지 못해서라고 믿을게.” “정의를 서로 돕는 멋진 사나이. 이게 우리반 급훈이다.”

〈왕국어 선생님의 수업 및 학급 규칙〉

- 교사가 말하면 집중(여러분이 말할 때 교사도 집중)
 - 말하기 전 종 치면 일단 무조건 집중
 - 잘못된 생각도 솔직히 말하면, 고칠 수 있지만 서로 말하고 들을 수 없다면, 아무것도 안 됨.
- 서로의 생각을 나누며 함께 발전하는 교실
 - 특이한 생각이 모두를 구한다. 남의 의견 존중!

라. 대화 전략: 사회적 인간관계의 기본 - ‘학부모, 학생, 동료교사’를 대할 때

가장 큰 조력자가 될 수도, 가장 힘들게 할 수도 있는 분들이지요. 이론적으로는 잘 알지만 수많은 연습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늘 반가운 인사, 달콤한 음료나 간식 건네기(생물은 먹을 것을 가장 좋아합니다. 영양 공급되고 기분 좋아지면 무슨 일든 잘 풀리지요. 단, 흥분시키는 커피, 홍차는 주의!), 뭐라도 칭찬이나 가벼운 유머, 늘 경청, 존중, 배우려는 자세를 습관으로 만드세요. 이들과 소통하고 신뢰를 쌓아놓지 않으면, 재앙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 비언어 전략 SOFTEN(부드럽게 하다) |

	의미	권장 행동	반대 행동
S	Smile	미소와 웃음	무표정 혹은 찡그린 표정
O	Open gesture	열린 몸짓	팔짱 끼기, 허리에 손 얹기
F	Forward leaning	앞으로 기울이기	뒤로 젖히기, 뻘뻘하게 세우기
T	Touch	가벼운 접촉	방어적인 자세와 거리
E	Eye contact	눈 맞춤	다른 곳 쳐다보기
N	Nodding	고개 끄덕임	고개 가우뉘거리기

• 학습 자치 경영의 실제 •

가. 민주 학습 자치 경영의 대원칙

자칫하면 여러분은 ‘많은 일, 야근을 할수록 좋은 교사’라는 환상에 빠지기 쉽습니다. 현직 교사들도 3월, 아니 첫째 주에 몸살 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일찍 소진되면 멀리 가지 못합니다. 따라서 ‘평범한 체제, 훌륭한 사람’보다는, ‘훌륭한 체제, 평범한 사람’이 대안입니다. 학생들 모두가 서로를 돕고 챙겨주는 체제를 3월에 구축하면, 1년이 편하게 돌아갑니다. 자잘한 일들에 신경 쓰거나 감정 상할 일도 훨씬 줄어듭니다.

교사는 ‘법령에 따라 학생을 교육’합니다. 민원 시 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발령 학교의 <규정집>과 <교육계획서>는 반드시 다운받아 바탕화면과 휴대폰에 저장해 수시로 보시길 권합니다. 현직교사들도 법규와 학칙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에는 법규를 잘 몰라도 교육에 큰 문제가 없었지만, 앞으로의 교직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나. 학생들 스스로 운영하고 책임지는 <학습 자치 운영 절차>

- 1) 담임교사가 학칙이나 학년담임 협의 내용 등의 원칙과 사례 설명
- 2) 학습회장 주도로 회의와 토론을 통해 충분히 학습 의견 수렴
- 3) 상위법이나 교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다수결 등 민주적으로 규칙 정립
- 4) 규칙에 의해 운영 및 처리 / 회의를 통해 규칙 보완

<신규 선생님들의 고민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곳 - 고충상담 무상 제공>

네이버 카페 <돌봄치유교실>에서는 특정 단체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학교생활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더 좋은 수업을 만들기 위한 경험과 정보를 교육청 연수강사 중심으로 아낌없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수천 명이 소통하며 정보를 나누는 카카오톡 단체방이 궁금하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 해당 과목/업무 운영진들에게 초대를 요청해 주세요.

돌봄치유교실 (대부분 전체공개, 가입이나 로그인하지 않아도 됩니다.)

카톡방 참여 신청 안내 링크 <http://cafe.naver.com/ket21/11000>

신규교사 학교 적응 매뉴얼 <http://cafe.naver.com/ket21/1000>

낮선 행동 예방 및 대응법 <http://cafe.naver.com/ket21/119>

•신규교사 고충 상담 사례 일부 발췌•

자세한 내용은 링크에 들어가서 보세요.

Q1. 첫월급 탄 기념으로 동료교사 쌤들에게 선물을 돌리기도 한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게 좋을까요?
<http://cafe.naver.com/kef21/9554>

A1. 교직사회에서 공식적인 예산편성 이외의 금품이 오가는 것을 삼가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평소에 도와주신 부모님이나 가족 친지, 은인들에게 선물하면 될 뿐, 인사발령 후 떡·화분 보내는 관행 개선에 대한 교육청의 강조가 계속되고 있어요.

Q2. 다른 선생님들이 저한테, 애들한테 절대 웃어주지 말고 무섭게 해야 한다는데. 아이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할 거라고요. <http://cafe.naver.com/kef21/9555>

A2. 내가 어떤 교장 & 교감 & 부장 선생님을 원하는지를 생각하면, 아이들이 원하는 교사상과 가깝지 않을까 합니다. 선배 교사들끼리 “신규 선생님들께는 강하고 무섭게 하세요.”라고 조언한다면? 정말 그런 일이 있을까 싶지만, 신규교사들에게 무어라도 꼬투리 잡아서 혼내는 방법으로 미리 군기 잡아야 한다는 기성 교사들이 여전히 존재해요.

Q3. 3월 첫째 주에 담임반에 도난사건이 발생했네요. 열자리 선생님이 작년에도 꽤 많았다고 알려주시네요. <http://cafe.naver.com/kef21/9471>

A3. 범인 찾기에 혈안이 되면 불필요한 오해로 피해 받는 학생이 생길 뿐만 아니라 법률, 학칙, 학생인권조례 등에 어긋난 소지품검사 등으로 교사가 오히려 민원감사 징계 처분의 대상이 되기도 하니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이들의 사고는 준비 안 된 선생님의 허점을 이용하기도 하지요. 모든 사건은 교육의 기회이고 교육의 의무가 있을 뿐, 교사는 교실 내 도난사건에 법규적 책임이나 수사할 권리도 의무도 없습니다.

Q4. 선생님π 제가 현장 경험이 하나도 없이 공부만 하다가 온 줄게 합격한 신규이다 보니 수업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나 큼니다π
<http://cafe.naver.com/kef21/10558>

A4. 처음부터 현장 경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연수 강사분들도 다 엄청난 실패를 경험한 분들인데, 연수 와서는 완벽하게 성공한 것 위주로 알려 주고 가시니, 신규교사가 당장 수업을 시작하기엔 참고하기에 어려운 경우가 많지요.



관리직, 선배교사에게
사랑받는 꿀 tip!

1. 인사하기.

모든 관계의 시작은 인사에서 비롯된다. 교직사회도 마찬가지다. 첫 발령으로 학교에 출근하면 모르는 사람 투성이다. 이 때 주의할 점!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냥 지나치지 말자. 교문에 들어서면 처음 보이는 배움터 지킴이 분들부터 학교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는 건 어떨까? 분명 여러분은 어느새 일을 못해도 칭찬받는 교사가 돼있을 것이다.

2. 물어보기.

전공 지식, 교육학 지식 등 모든 부분에 있어 자신감이 가득한 상태로 출근했을 때 돌아오는 것은 좌절감이다. NEIS 가 무엇인지부터 결재, 초과근무, 인새 맡기는 것 등등 신규 교사에게 너무나 어려운 일이다. 이 때 눈치 보지 말고 당당하게 선배교사에게 물어보자. 오히려 선배교사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 그들에게 여러분은 귀찮은 존재가 아니라 귀여운 후배다. 이 핑계, 저 핑계로 선배교사들에게 말 한번 걸어보는 것은 어떨까?

3. 인정하기.

신규 교사는 모든 면에서 실수투성이다. 이 때 자칫하면 내가 정말 교사가 될 자격이 부족한지 등등 수많은 고민으로 시간을 보내기 일쑤다. 신규는 실수가 많은 것이 당연하다. 자기 자신의 실수에 자책하지 말고 겸허히 받아들이자. 오히려 실수가 많을수록 더 빨리 교직생활에 적응할 수 있다. 인정하는 모습은 신규교사에게 아름다운 모습이다.

3월 주요 업무

초, 중, 고 모두에게 바쁜 3월. 고등학교에선 어떤 일들이 여러분을 맞이하고 있을까. 간단하게 몇 가지 적어본다.

1. 수업공개다.

개학하자마자 학급 운영으로 정신없을 때에 대부분 학교는 수업 공개를 요구한다. 학부모 대상, 동료교사 대상으로 수업공개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를 대비하여 미리 수업 모형 등을 구성해놓으면 훨씬 수월할 수 있다.

2. 고등학교가 갖는 특수한 일정은 모의고사다.

개학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 3월 모의고사가 진행되는데 담임으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볼 수 있는 시험이므로 매우 중요하다. 만약 2학년이나 3학년 학급 담임을 하게 된다면 이 성적을 기반으로 진로 관련 상담을 진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3. 첫 시험 문제 출제는 1학기 1회고사다.

보통 4월 달에 시행되지만 3월부터 천천히 준비하지 않으면 당황하기 일쑤다. 처음 교사가 되어 시험문제를 출제하는 것 인 만큼 긴장도 되고 어려움도 많을 것이다. 이 때 가능하다면 동교과 선배 교사의 시험문제 자료를 받아 난이도 등을 결정하는 것이 선행되면 매우 편하게 출제할 수 있다.

4. 학기 초 학생 상담과 함께 학부모 상담 주간이 운영된다.

학생 상담은 교사가 학급 운영을 하면서 유동적으로 할 수 있지만 학부모 상담의 경우 학교 전체에서 정한 시기에 맞춰야 한다. 따라서 공강 시간과 일과 후 시간을 계획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부 업무는
이렇게 해보세요!

1. 나이스? NEIS!

NEIS 란 1만여개 초·중·고·특수학교, 178개 교육지원청, 17개 시·도교육청 및 교육부가 모든 교육행정 정보를 전자적으로 연계 처리하며, 국민의 편의증진을 위해 행정자치부(G4C), 대법원 등 유관기관의 행정정보를 이용하는 종합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다.

쉽게 말해 학생-학부모-교사를 연동하는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NEIS에 관한 연수는 따로 해주지 않고 교사 스스로 익혀야하는 것이 현실이다. 신규 연수 때 NEIS 업무포털 활용에 대해 배우긴 하지만 이 때는 정작 NEIS를 제대로 맞닥뜨리기 전이기 때문에 별로 효용성이 없다. 아이러니하게도 편의 증진을 위한 시스템이 신규교사에게는 가장 어려운 업무가 돼버린다. 업무포털 사이트에 들어가면 자세히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 있으니 틈날 때 익히는 것이 가장 유용하다.

2. 평가기준안 제출

각 교과는 학기 초 평가기준안을 제출해야 한다. 경력 교사의 경우 평가기준안을 작성해본 적이 있고 여러 교과서 사이트를 활용하면서 많은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지만 신규교사에게는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 될 수 있다. 이 때 ‘학교 알리미’ 사이트를 활용하자. 학교 알리미 사이트에 들어가면 학교 자료에 각 교과마다 평가기준안이 존재하므로 본인이 취사 선택하여 참고할 수 있다.

3. 결재 시 주의할 점!

결재라 함은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련의 공적 활동을 허가받는 것을 말한다. 교사의 근무상황부터 담당 업무 공문 처리까지 모든 부분은 항상 학교장의 결재를 득해야 한다. 이 때 주의할 점은 결재라인이다. 지금 이렇게 글을 쓰는 사람도 신규 때 결재라인을 반대로 올려 어이없는 실수를 한 적이 있다. 항상 결재는 본인-담당부장-교감-교장 순임을 기억하자.

또한 붙임 파일을 첨부하지 않고 그대로 결재를 올리는 실수도 많이 하므로 항상 상신 전 첨부파일을 확인하는 것도 팁이다.

4. 첫 수업 두근두근

교사에게도 첫 수업이 설레듯 학생들에게도 첫 수업은 설레는 시작이다. 신규 교사에게 첫 수업은 특히나 중요하기에 어떤 점들을 준비해야하는지 살펴보자.

일단 고등학생들의 수업 태도는 중학교보다 사뭇 진지하다. 하지만 모든 학생들이 그런 것은 아니기에 너무 큰 기대를 갖고 수업에 임하지 않도록 한다. 첫 시간에는 학생들에게 수업 규칙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때 주의할 점은 아이들에게 휘둘리면 안 된다. 학생들이 신규 교사라서 무시하는 것보다 우유부단한 교사의 모습을 보고 무시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적절한 단호함과 친절함으로 학생들을 이끄는 모습이 중요하다.

5. 학급 운영

전체적인 학급 경영 방법: 어쩌면 신규교사에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 학급 운영일 것이다. 필자가 근무하는 지역 학교의 경우 학급당 평균 34명으로 구성되어있다. 담임 한명이 담당해야 하는 학생이 34명이란 얘기는 그만큼 관심을 쏟아야 하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단 이야기이다. 따라서 학급 경영은 본인의 스타일대로 하되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고등학교 학급 운영은 학생들과의 협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 학생들도 충분히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기본 자질을 갖추고 있기에 학급 규율을 정하는 과정을 교사와 학생이 평등한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학급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 -

(필수) 실장, 부실장선출, 역할부여(유인물배부, 좌석배치시 고문역할), 급식당번정하기(책임감필수), 출석부 담당자 지정, 교실구역별 청소당번, 특별구역 청소당번 정하기, 휴대폰 수거당번 정하기, 생활기록부 작성 및 보관 안내-어떤 행동과 활동이 기록되며 몇 년간 보관되는지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안내(출결사항, 자치, 적응, 계발, 행사, 봉사활동, 진로희망, 독서상황, 교과활동, 행동발달사항 등), 학급규칙 정하기
(권장/선택사항) 생일 챙기기(마음 챙기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 사탕으로 응원하기, 학급달력으로 행사공유하기(구글달력)

6. 휴대폰 사용

경험 상 가장 힘든 생활지도는 휴대폰 사용 부분이다. 휴대폰을 수거하는 과정 중에서 아이들과 갈등이 가장 많이 일어난다. 휴대폰을 집에 두고 왔다면 학교에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수업 시간에 발각되어 담임교사에게 인수되었을 때 그 배신감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다. 또한 본인이 사용하는 휴대폰 외에 가짜로 공기계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 교사는 자괴감에 빠지며 이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해야 할지 고민에 빠진다. 이러한 상황이 만들어지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가장 최선의 예방책은 경험상 학생 휴대폰 목록을 휴대폰 가방 앞에 붙여 놓는 것이다. 번호와 이름 휴대폰 기종을 적은 명단을 휴대폰 가방 앞에 붙여 놓으면 친구들끼리 서로 공기계를 내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휴대폰 수거 가방의 빈 자리가 누구 것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교사마다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고 본인만의 방법을 찾아보자!

참고) 학교에서 일과중 휴대폰을 걷는데, 몰래 쓴다고 신고 들어온 학생에게 어떻게 조치할까요?

신규 선생님 3월 고충 상담 내용: <http://cafe.naver.com/ket21/9557>

7. 학생 상담

학급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학생과의 개별적인 관계형성이다. 모든 갈등은 관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학생 개인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면 어려운 상황에서도 생각보다 쉽게 빠져 나갈 수 있다. 상담은 이러한 관계를 형성하는 첫 단추이다. 학기 초 교사는 빠른 시간 내에 계획적으로 상담 계획을 짜서 학생들에게



공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생들과의 개별적인 만남이 빠를수록 생활지도가 순탄하게 이뤄질 것이다.

8. 단체 채팅방

요즘 거의 모든 학생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어 학기 초 학생들이 만든 단체 채팅방에 교사가 초대되는 경우가 많다. 이 때 교사는 단체 채팅방에서 아이들과 채팅을 시작하는 경우 너무 친구처럼 아이들이 대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설 것이다. 채팅방에 들어갈 경우 절대 학생들이 개인적인 것을 질문하는 것들에 답변하지 말고 공지할 사항들을 전달하는 곳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좋다. 채팅방은 문자로 기록이 남는 곳이다. 교사의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하기 때문에 절대 채팅방에서 필요 없는 말은 하지 않길 바란다.

9. 클리어 파일 활용하기

다양한 활동이 많은 고등학교 시기에 학생들의 활동 하나하나를 모두 기억하기 힘들고 그때마다 NEIS 상에 입력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학급 인원수에 맞는 클리어 파일을 구매하여 학생들의 번호를 한 장씩 붙여 놓는다. '봉사', '개인정보', '진로 프로그램 후기' 등 여러 주제의 클리어 파일을 만들어 놓고 학생 개인의 자료를 모아 놓으면 나중에 생활기록부 작성 시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10. 학부모 상담

고등학교에서 학부모 상담은 많은 부분이 대입과 연결된다. 거의 모든 학부모님들이 학생의 성적 관련한 상담을 요구하기 때문에 교사가 학생의 성적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진로 관련 내용을 알지 못할 경우 전문성이 떨어져 보일 수 있다. 따라서 대면 상담의 경우 학생의 생활기록부를 인쇄해 놓고 학부모님을 보여 드리며 상담에 임하는 것이 적절하다.

보통 학부모 상담의 경우 학기 초 상담 기간을 정하여 진행되므로 그 전에 학생 상담을 미리 마쳐놓을 필요가 있다.

학부모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학교에서 요청하는 크고 작은 일들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다(학부모 참여 예시: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 시 학부모명예감독요원, 급식검수요원, 학부모설문활동/교원능력평가, 교당 몇 명씩 학부모님 초대 강연참석 등). 그리고 부모님께 항상 응원 및 지지, 격려하기, 학생에 대한 정보 제공하기, 학교행사 알리기 것도 필요하다.

11. 업무처리

업무포털을 통해 업무가 진행되는 만큼 매일 아침 업무포털을 확인하여 당일 처리해야 하는 업무에 순서를 매기는 것이 중요하다. 업무 순서를 정한 뒤 교무수첩이나 컴퓨터 메모장에 기록을 해두고 하루 일과 계획에 맞춰 처리해 나가도록 한다.

12. 교과 교수 자료

수업 자료는 무궁무진하다. 그것을 얼마나 자신의 필요에 맞게 선별하고 구성하느냐에 따라 수업의 질이 달라진다. 그렇다면 그러한 자료들은 어디에 많이 있을까. 바로 교과서 출판사 사이트다. 요즘은 교과서 출판사가 교사를 위한 별도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여기서 언급하기 힘들지만 모든 교과서 출판사는 교과서

관련 자료를 탑재해 놓고 있고 그 외에도 교사에게 유용한 자료를 탑재해 놓는다. 하지만 의외로 이러한 사이트를 시험 출제 기간에만 사용하는 교사들이 많다. 여유 있을 때 다양한 출판사 사이트를 찾아 본인 교과 자료를 수집해 놓는 것도 유용할 것이다.

EBS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비공식적으로 한 축이 되었다. 수능에서 EBS교재를 반영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교사는 EBS자료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다. EBSi 사이트에 보면 '교사지원센터'라는 카테고리가 존재한다. 이는 학교 교사들을 위한 사이트로 EBS 교재 PPT 자료, 학교 교사가 제작한 자료 등이 탑재되어 있다.

13. 업무포털의 문서함을 확인하자

공람이 되어있는 문서는 각 학교의 필요에 의해 선별된 공문들이다. 문서함의 문서등록대장은 그 학교에서 수발신되는 모든 공문이 게시되어 있는 곳이다. 이를 확인하다보면 학교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으며 또 자신이 관심 가질 수 있는 공문들을 확인할 수 있다. 가끔 선착순으로 연수를 신청 받는 경우 누구보다 빠르게 공문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것은 덤!

자기계발은
이렇게 해보세요!

선배님의 조언이나 저명한 학자의 책을 참고해도 좋겠지만, 하루하루 학교생활을 하다보면 이런저런 일이나 업무에 시달리다 보면 마음을 다칠 때도 있고, 우울해지기도 한다. 욕심을 내어서 학생을 지도하다보면 서로 기대수준에 맞지 않으면 속상한 일도 발생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한다. 그리고 선입견이 생겨서 학생을 대할 때나 학부모님을 대할 때 걸림돌이 되기도 하는데 이럴 때를 대비하여 마음을 깨끗하고 맑게 정화할 필요가 있다.

- Tip 1.** 각 시·도별 교육청 및 교육연수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1년치 연수과정 정보를 탑재해둔다. 그것을 잘 활용하면 저렴하면서 유익한 연수를 들을 수 있고 내가 몰랐던 정보도 얻는 재미를 더할 수 있다.
- Tip 2.** <http://www.eduict.org> 교사커뮤니티라는 사이트를 통해 각종 수업자료나 학습경영자료를 얻을 수 있고 쪽지보내기를 통해 선배선생님들의 의견을 얻을 수 있다.
- Tip 3.** 각 시도별 교육정보원에는 원격 및 집합으로 실시하는 실생활에 필요한 연수가 있다. 엑셀(성적표 산출), 한글(학습지, 이름표 작성), SNS활용(페이스북, 블로그, 카페, 구글 설문지 등) 여러 가지 미디어 활용 팁을 전수하고 있다.

교직은 전문직입니다!

전문직으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전문직교원단체’ 한국교총이
선생님과 함께 합니다.

전문직교원단체 한국교총 NEW KFTA

Contents

- 84 전문직교원단체 한국교총
- 86 한국교총 · 한국교육 70년의 기록
- 90 2017년 한국교총 전국의 50만 교원과 함께
이렇게 활동했습니다.
- 94 대한민국 선생님의 노래 ‘스승의 길’
- 96 교원이 감동하는 복지교총



전문직교원단체 한국교총



교직은 전문직입니다. 아무나 할 수도 없고, 아무나 해서도 안 되며, 엄격하고도 계속적인 연구를 통해 습득 유지되는 전문적 지식과 전문화된 기술을 필요로 하는 공공적 직무입니다.

- UNESCO/ILO 교원의 지위에 관한 권고

“

- ☑ 지금도 교직을 개방하려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을 이겨내려면 교원 스스로가 전문성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 ☑ 선생님 스스로 엄격하고도 계속적인 연구로 전문적 지식을 습득하고, 그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 ☑ 한국교총은 연구하는 선생님들의 노력을 응원하며,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

+ 전문성 향상을 위한 한국교총 콘텐츠 소개



한국교총 홈페이지

(kftaedu.or.kr)

각종 교육이슈에 대한 교총입장, 보도자료, 정책자료, 교총활동 소개



교원/교직 온라인상당

교원침해, 인사, 보수, 복무, 자격 등 교직생활 중 당면하는 모든 교총에 대한 상담



교육연구대회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 전국교육자대전)

자신의 교육활동을 탐구하는 과정을 통해 보다 나은 교육자로서의 성장과 학교교육 개선 도모



한국교총 종합교육연수원

(kftaedu.or.kr)

직무연수, 자격연수, 특별연수, 교과연구회 및 학교단위 자율연수 지원 등 모든 영역의 연수과정 운영



한국교총 원격교육연수원 사제동행

(education.or.kr)

다양한 원격교육연수를 비롯한 다양한 교육서비스 제공
최신 IT기술 기반으로 편리한 사용환경 지원



한국교총 모바일 회원가입

교총회원가입 안내

단체연혁 및 활동 / 회원혜택 소개 등 간편한 회원가입 절차



교총복지플러스

(kftaplus.com)

회원이 감동하는 복지!

교총회원만을 위한 다양한 혜택 외식/문화/여행/건강/보험/쇼핑몰 등





한국교총 · 한국교육 70년의 기록

1947~2017

한국교총은 1945년 일본의 압제로부터 해방된 우리 민족의 지상과업인 새로운 민주적 독립국가 건설을 위해 교육발전과 개혁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인식한 교육선각자들이 정부수립 전인

1947년 11월 23일 자주적으로 설립한 전문직 교원단체입니다.

한국교총은 교권을 수호하고, 교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향상하고, 교원의 전문성과 자질을 함양하고, 교육정책 개선에의 참여를 통해 지난 70년간 학교교육의 개선과 교직의 안정에 기여해 왔습니다.

1980

- 80 교직수당 신설 실현
- 81 『교육세법』 제정 실현
- 82 '스승의 날' 부활 성취
- 83 초·중등교원 단일호봉제 실현
- 84 교원장기근속수당 신설 실현
- 88 원로교사수당 신설 실현
- 89 '대한교육연합회'에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로 명칭변경



교원지위법 제정촉구를 위한 전국 학교분회장 및 시도, 시군대표자 회의(1990)



스승의 날 기념식 부활 성취(1982)



재무부장관 방문, 교육세 신설 건의(1980)



1947

- 47 조선교육연합회(現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창립(11.23)
- 48 '조선교육연합회'에서 대한교육연합회로 명칭 변경
교육전문지 『새교육』 창간, 『방학책』 발간
- 49 초등수업연구지 『새교실』 창간
- 51 학제개편 실현
- 52 전국교육연구대회(現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 창시
WCOTP(세계교직단체총연합) 창립단체로 가입
- 53 『교육공무원법』 제정 실현
- 54 『교육공무원보수규정』 제정 실현
- 56 대한교원공제조합 설립



최초의 교총회관(1949)



한국전쟁중 부산 피난지에서의 새교육 편집좌담회(1952)



제1회 전국교육연구대회(1952)



1970

- 70 전국교육자료전 창시
- 71 대한교원공제회 설립(現 한국교직원공제회)
- 73 교원승급기간 단축 및 한계호봉제 폐지 실현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정 실현



중학교 교육과정 개정시안에 관한 공청회(1973)



교육발전과 교육재정에 관한 세미나(1976)



1960

- 61 『새한신문』(現한국교육신문) 창간
- 65 도서벽지수당 신설 실현
- 66 초·중등교원 동일호봉 동일봉급제 실현
제15차 WCOTP(세계교직단체총연합) 총회 서울 개최
- 68 중학교 무시험전형제 실현
- 69 새한장학회(現 한국교총장학회) 설립



WCOTP총회 서울개회(1966)



임시지육과 학교차이 없애기 서명운동(1967)

1990

- 91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정 실현
교수재임명제 폐지 실현
- 92 한국교총-교육부 첫 정기교섭 · 협의
보직교사수당 신설 실현
- 93 티(국제교원단체) 창립단체로 가입
- 95 교육재정 GNP대비 5%확보 실현
- 96 담임교사수당 신설 실현
- 98 교원정년단축 저지 여의도 총궐기대회 개최



교육혁신과 교직안정을 위한 전국교육자대회(1995)



교총-교육부 첫 정기교섭 협의(1992)



교원정년단축 반대 전국교육자 총궐기대회(1998)

2017

- 17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 폐기실현
기간제교원 채용 관련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폐기 실현
교권침해 처벌강화 교권보호법 발의 실현
교원지방직화 시도 저지
교원차등성과급 폐지 추진
사서교사수당 신설 실현
기간제교사 및 강사 정규직화 저지



국회 여야3당 방문 활동(2017)



▶ 한국교총 연혁·성과
소개영상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교육의 끈을 놓지 않았던 우리 선생님 그 교육의 힘이 대한민국을 성장 시켰습니다.
한국교총의 70년은 대한민국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입니다.
희망을 찾아 볼 수 없었던 폐허의 땅, 그 위로 작은 꿈이 뿌리를 내리고 미래를 꿈 꿀 수 있도록 용기를 실어주신 선생님
급변하는 사회에서 뒷 처짐 없이 바르게 걸어 왔던 이유, 바로 교단을 지켜온 선생님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제는 우리들이 한국교총과 함께 하겠습니다!



2000

- 02 보건교사수당 신설 실현
- 03 한국교총 회장 전화원 직선제 도입
- 04 『유아교육법』 제정 실현
- 05 ‘교직윤리현장’ 제정·보급
- 06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 제정 실현
- 07 병설유치원겸임수당 신설 실현
- 08 학교시험문제 저작권 인정 대법원 판결 실현



유아교육법 제정 촉구 집회(2004)



역사 애국 및 독도 침탈행위 규탄대회(2006)



교원지방직화 반대 총력 결의대회(2003)



2010

- 10 독도의날 선포식
- 11 주5일 수업제 실현
- 수석교사제 법제화 실현
- 학교배상책임공제 도입 실현
- 12 교권보호종합대책안 실현
- 교대박사과정 설치 실현
- 13 ‘교권보호법안’ 국회 제출 실현
- 중학교원연구비 미지급 사태 해결
- 14 공무원 연금개악 저지 ‘100만 교원공무원 총결기대회’ 개최
- 영양교사수당 신설 실현
- 15 담임수당 2만원 인상
- 학교성과급제도 폐지
-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특별법(교권보호법안)’ 관철
- 16 자율연수휴직제도 도입
- 학교전기로 20% 인하 실현
- 제32회 한·아세안 교육자대회(ACT+1)개최



공무원 연금개악 저지 총력 투쟁 결의대회(2014)



한-아세안 교육자대회(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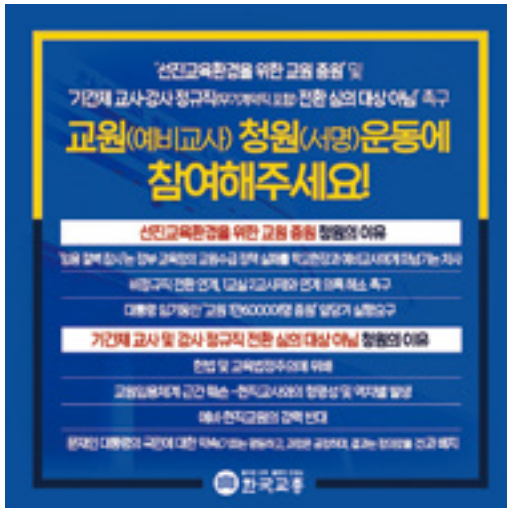


성과연봉제 도입저지 투쟁(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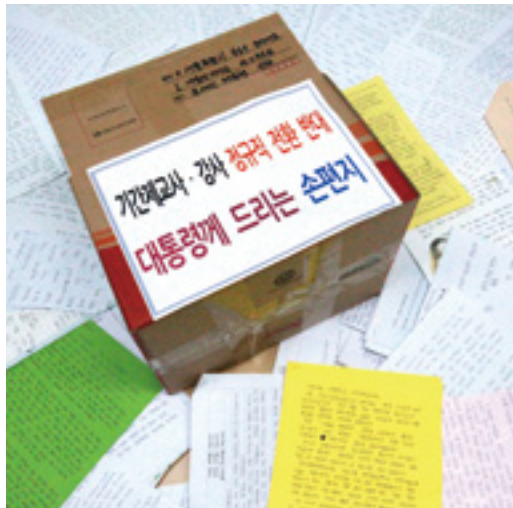
2017년 한국교총

전국의 50만 교원과 함께 이렇게 활동했습니다!

1. 기간제교사 및 강사 정규직(무기계약직포함) 전환저지



‘기간제교사 및 강사 정규직 전환 대상 아님’
10만 5228명 청원(서명)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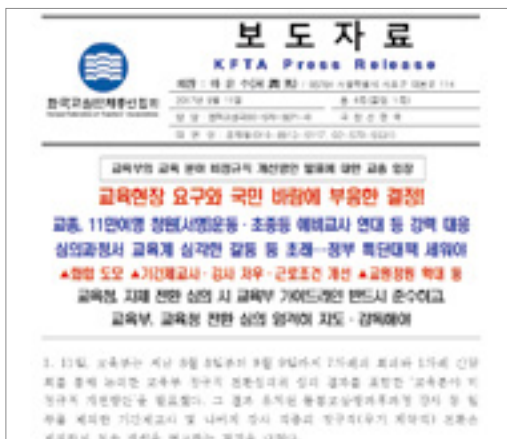
정규직 전환반대 손편지
한국교총-현직교사 1천여명 청와대 전달

- 교총의 입장

- “공정한 임용시험 및 전문성을 훼손하는 기간제·강사 정규직 전환 강력반대”

- 교육공무원법 제10조 ‘균등한 임용의 기회보장’ 위배
- 헌법 제11조 평등권,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권, 제25조 공무원임권 침해로 위헌소지

- 교총활동 및 성과



한국교총 보도자료(9.11)
교육부의 교육 분야 비정규직 개선방안 발표에 대한 입장



한국교육신문 기사(9.18)
기간제교사·강사 정규직 제외 관련

2. 2018년 초 · 중등교사 선발인원 확대 관철

- 각 시 · 도교육청 발표(8.3) '2018년도 공립 초 · 중등교원 임용시험 선발 인원' 대폭 감축으로 인한 임용절벽 사태
- 예비교사 단체(전국교육대학생연합, 전국 중등예비교사들의 외침)의 선발정원 증원 촉구 및 항의 집회



전국교육대학생 총결기(8.11)



전국중등예비교사들의외침 집회(8.12/8.26)

- 교총의 입장

- 정부의 교원수급 정책실패를 예비교사에게 떠넘기는 비정상적 처사
-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1교실 2교사제 연계반대
- 교육공약 실천 및 선진교육환경 조성 위한 증원이 해결책

- 교총활동 및 성과



한국교총 보도자료(8.4)
공립 초 · 중등교원 임용시험 선발인원 대폭감축에 대한 입장

- 2018년도 초 · 중등교원 임용시험 선발인원 대폭감축에 대한 보도자료 배포(8.4)
- 예비교원단체 집회 지원, 청원운동 추진(~8.30)
- 시 · 도교육청 대상 건의서 제출(9.12) 등

9.14 유 · 초등 선발인원 35.6%(1,611명)

확대 4,524명 → 6,135명

10.13 중등 선발인원 52.4%(2,431명)

확대 4,637명 → 7,068명

3. 교원지위법 발의 실현

- “교권침해 근본적 해결”

-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개정안 발의

- 교총활동 및 성과

-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 유성엽 교문위원장 간담(4.11)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담(4.14)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주요위원, 교원지위법 개정 협의(6.1~12)
- 교문위 4당 간사(염동열, 김세연, 유은혜, 송기석) 면담, 교원지위법 개정안 조속처리 및 통과 협조요청(9.19)
- 교문위 법안심사소위(신동근, 박경미, 오영훈, 곽상도, 이종배, 전희경, 강길부) 면담, 교원지위법 개정안 통과 협조요청(9.21)



- 염동열 의원 발의안('16.11.11)

- 교육활동 분쟁조정, 교원 법률상담 등을 위한 ‘법률지원단’ 구성·운영 의무화
- 피해교원 요청시, 교육청에서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토록 의무화
- 정당한 사유없이 특별교육, 심리치료 미이수 학부모에 과태료 300만원 부과

- 조훈현 의원 발의안('17.2.9)

-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로 학급교체와 전학조치 추가
- 강제전학 전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제공 의무화
- 징계조치 전 가해학생·보호자의 의견진술권 및 재심청구권 부여

4. 교원 지방직화 도입 저지

- 분권과 자치라는 새정부 정책기조와 유·초·중등교육의 지방이양이라는 정책 방향에 따라 필연적으로 추진될 교원지방직화를 선제적 활동으로 저지

- 교총의 입장(교원지방직화의 문제점)

- 국가적으로서의 법적 지위 및 자긍심·사명감의 급격한 상실
- 지역별 보수 격차, 호봉제·연봉제 등 보수체계의 악화 단초
- 비인기 교과 구조조정 등 근무여건 악화
- 비정규직 양산 및 자격·양성 혼란, 수습·인턴교사 및 교직개방의 시작
- 직격탄 받는 사학, 존립자체 위태
- 교육환경 격차 등 교육의 빈익빈 부익부 심화
- 교육감이 중앙부처와 국회 설득, 교원 정원 및 처우 예산 확보 곤란
- 비대해진 직선교육감 권한, 정파이념에 따른 코드인사 및 교육청 눈치보기 심화

- 교총활동 및 성과



-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 - 김태년 국정기획자문위 부위원장(6.1)과 유은혜 위원(6.2)을 만나 현장의 우려와 반대의 입장을 강력히 전달
- 이에 두 위원은 교총 대표단에게 ‘대통령 공약사항도 아니고 검토한 적도 없다’고 답변했고, 교육부도, ‘교사 지방직화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는 공식 설명 자료 배포(6.5)

대한민국 선생님의 노래 '스승의 길'

'스승의 길' 노래는 한국교총이 제작하고 가수 윤형주님이 작곡하였습니다. '스승의 길' 노래는 교원 스스로 국가발전에 기여한 '네이션 빌더'로서의 자긍심, 교육현장의 주체로서의 자존감, 제자 사랑과 교직에 대한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학교속에, 사회속에, 세계속에서 새롭게 거듭나는 '새로운 교원상'을 추구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 이용 방법

- 유튜브(www.youtube.com)에서 '스승의 길' 검색 후 선택하여 Play



- 스승의 길 노래 휴대폰 컬러링 및 벨소리 이용 방법(www.kfta.or.kr)

| 휴대폰 컬러링 이용 방법 |



| 휴대폰 벨소리 이용 방법 |



스승의 길

작사 윤형주
작곡 윤형주
제작 한국교총

내 가

하 늘 을 그 리 면 - 어 느 새 아 이 들 은 새 가 된 다 - 내 가

산 을 그 리 면 - 어 느 새 아 이 들 은 나 무 가 된 다 때 로

는 힘 들 지 만 - 쉬 운 길 이 어 디 있 어 - 내 가

택 한 스 승 의 길 - 어 쟁 편 하 길 바 할 까 - 이 세

상 에 한 아 이 만 남 더 라 도 - 나 는 그 의 스 승 - 자 랑 스 럽 스 승 이 다

사 랑 하 고 - 가 르 친 다 - 내 시 간 태 워 -

위 대 한 스 승 의 길 - 영 원 하 라 - 스 승 의 길 -

오 늘 도 간 다

+ 스승의 길 노래(mp3) 및 악보 다운로드

한국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 메인화면 중앙 '새소식' 메뉴 중
대한민국 선생님의 노래 '선생님의 길'을 내 컬러링으로!,
대한민국 선생님의 노래 '선생님의 길'을 내 벨소리로! (클릭) 다운로드

교원이 감동하는 복지교총

+ 회원이 감동하는 복지!

교총회원의 복지향상을 위한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 회원가입시 지급되는 '복지회원증'(신용카드 아님) 또는 모바일 회원증을 통해 공연, 영화, 스포츠, 외식, 여행, 직무연수, 병원, 쇼핑물 추가할인 등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 더 많은 회원복지 혜택은 교총복지홈페이지 (www.kftaplus.com)에서 확인하세요.



+ 한국교총 주요 제휴기관

타이어	넥센타이어	30 ~ 35% 할인
안경	대저안경	10% 할인
영화	롯데시네마	영화 및 매점 콤보 2천원 할인
미용	gym	50% 할인
	유진성형외과	특가이벤트
	SUNSHINE	주중 70% 할인
콘도	HAWANA RESORTS	특가이벤트
	EL DORADO	70% 할인
힐링	경주박물관	20% 할인
	PIZZA CC	38% 할인

쇼핑물 (도서등)	SBS	임직원물 이용
	11st	2%추가 할인
	한메일	2~5%추가 할인
놀이 테마 파크	교보문고	10% 할인
	카네기홀	자유이용권 특가(동반 3인)
	쌍용	10,000원
	7-Eleven	5인까지 35% 할인
	LOTTE WORLD	25,000원
외식	SINGI	17,400원(소인 13,800원)
	SPRINT	20% 할인
결혼	가연결혼정보	30% 할인

| 교총회비 기부금 처리 혜택 안내 |

교총회원이 납부한 회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2'에 의거 매년 연말정산시 기부금으로 처리됩니다.



| 선생님이 감동하는 복지 |

매일 업그레이드 되는 소식은 [교총복지플러스]에서!

www.kftaplus.com 복지콜센터 02-570-5562~3



한국교총 복지혜택
소개영상

한국교총 모바일 회원가입 안내

+ 한국교총 회원가입 이제 간편하게 핸드폰으로 하세요!

‘한국교총 회원가입’을 클릭하면 간단한 본인인증 후
학교, 직위, 핸드폰번호, 이메일 입력으로 회원가입 절차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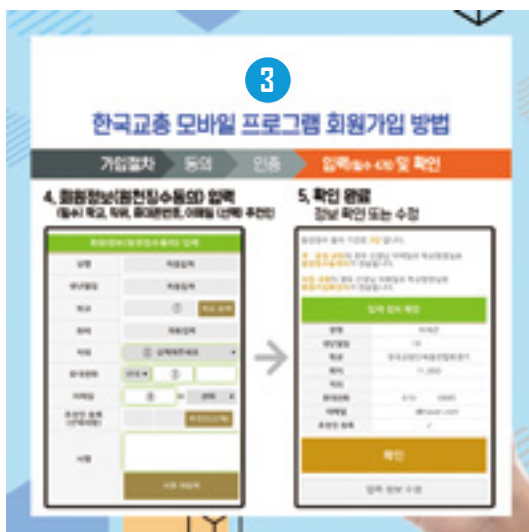


한국교총
모바일 회원가입 바로가기

+ 선생님의 **회원가입**, 선생님을 위한 **더 큰 성과**로 보답하겠습니다

※ 회원가입문의

한국교총 회원사업국 T. 02) 570-5552~4



‘**알**아두면 **쓸**모있고 **신**나는 **역**사연수 캠프’로
신규교사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보다 유익한 연수는 지금껏 없었다!”

한국교총 2030 회원만의 특권

시즌마다 펼쳐지는 교총 2030만의
역사 · 문화 · 미술 · 레포츠 연수 그리고 만남!!



2030 연수캠프
소개영상

› 2017년 2030 연수캠프 소개 ‹

| 8월 동강래프팅 |



| 9월 대부도 낭만 캠핑 |



| 10월 군산 역사 문화 연수 |



| 1월 제주 역사 문화 연수 |



한국교총 2030 겨울연수캠프

우리가 몰랐던 제주의 역사 / 전통 문화 · 자연
2030 교총회원을 위한 특별한 2박3일

알아두면 쓸모있고 신나는 역사연수에 2030 교총회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행사명 : 알아두면 쓸모있고 신나는 역사연수(제주)
- 일정 : 2018. 1. 10(수)~12(금), 2박 3일
- 장소 : 제주도 일대
- 대상자 : 20~30대 교총회원 60여명
- 내용 : 역사 · 문화 · 자연탐방
- 연수 : 직무연수 15시간 이수증 발생

2018년에도
교총 2030 회원 캠프는 꼭 계속됩니다!



20~30대 젊은 교원 대상의 교과(연수), 취미, 만남의 기회 제공
한국교총 2030 청년위원회 기획
전국의 젊은 교원들과의 소통을 통한 넓은 안목과 친화



06764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우면동 142)

Tel. 02)570-5500 Fax. 070-8800-6677

Homepage. www.kfta.or.kr

모바일 회원가입

